佛事 전념 20年
불교미술전시관
석탑불석의 모든 것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2)733-4800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2-1522/구독신청:737-0090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12월 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48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인색한 문화예술 지원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규정하는데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정·재·종교계에서는 '문화'라는 거대한 담론을 안고 씨름하고 있다. '불교는 다양한 소재를 갖춘 문화상품의 보고'라고 이야기 한다. 소재의 무한성과 상품성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계는 이같은 추세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올 가을 '팔만대장경', '천년보다 길은' 등 5편의 불교무대가 선보였지만 정작 종단이나 불자들에게 외면당했다. 문화는 행위자(예술인)를 양성하고 수용자(관객)의 의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발전한다.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작품들은 정작 주인공인 불자들로부터 외면당했다"고 공연 관계자들은 말한다.

불교공연 불자들 외면
문화인프라 구축 절실

현재 교계에서 사부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꼽는다면 문화제, 산사음악회, 성보박물관 전시 등이다. 그런데 문화제·산사음악회는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전시는 다양한 성보를 볼 수 있는 기획전보다는 상설전에 가깝다. 문화 행위가 지속적이지도 않고 다양하지도 않은 셈이다.

문화제를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출연자 초청비와 음향·조명비까지 1~3백만원이면 가능하다. 또 성보문화재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성보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미' 자리하고 있는 문화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계종이 2000년도 문화부 예산을 상향 조정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불교문화계 관계자들은 "오탁 사바세계를 불국정토로 가꾸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예산이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성보문화재 보호를 위해 집행될 때, 새 천년에도 불교의 문화예술은 여전히 불향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이웃돕기 상설기구 만들자

일회성 행사지양 연중 자비실천
불교특성 살린 프로그램 개발도

연말이면 으레 불우이웃을 돕자는 캠페인이 벌어진다. 하지만 이때뿐이다. 통과의례처럼 지나가고 나면 불우이웃은 기억에서 사라진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는 일회적이고 물질적 도움에 그치고 있는 관행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적이고, 정신적 위안까지 줄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현재 불우이웃돕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교계 단체는 복지시설들을 비롯해 몇몇 사찰과 신행단체에 불과하다.

그러나 복지관을 제외하면 연중 활동을 벌이는 곳은 실제로는 없다. 게다가 복지관도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 편중돼 있어 혜택을 받는 불우이웃들이 한정돼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나 사찰 등 개별 단체별로 활동하다보니 프로그램도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계종 복지재단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사실 교계 복지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이면서도 마땅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털어놓았다.

복지관련 학자들과 교계 복지종사자들은 불우이웃을 연중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본사급 사찰을 중심으로 복지위원회를 설치해 말사와 연계하거나, 지역 사암연합회가 중심이 되는 지역중심체도가 종단관리하의 중앙집중식보다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가톨릭과 개신교, 원불교 등의 조직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가톨릭의 경우 전국 15개 교구가 교구별로 사회복지국을 두고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불우이웃을 연중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 주교회의 산하의 사회복지위원회는 교구간의 업무협조 및 조정역할을 함으로써 일관성있고 체계있는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불교는 교단 집행부인 중앙총부에 종합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은혜심기운동본부'를 두고 있고, 은혜심기운동본부는 전국 13개 교구에 지회를 설치해 6개 사회복지법인 및 각 교당과의 연계속에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형태의 복지위원회가 불교계에 구성되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인식전환이 전제된다. 3년 전 조계종 복지재단이 펼쳤던 '1사찰 1인 결연사업'이나 '1사찰 1자원봉사 실치운동' 등이 시행된지 불과 몇달만에 묻혀버린 것은 그만큼 스님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조직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 현재 복지관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우이웃돕기는 물품과 자원봉사 결연후원에 한정돼 있다. 따라서 불교를 통해 정신적 위안을 얻고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불교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 편지 주고받기나 가정 자매결연, 한국복지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세대를 위한 사이트상의 후원결연, 원불교가 펼치고 있는 '은(恩)부모 은자녀 은형제되기'(부모·자녀·형제가 돼주는 것) 등의 프로그램을 불교계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청대 초 조성 달마고행상 공개

최근 선종의 비조(鼻祖)인 달마스님이 입적했던 중국 용이산에서 달마의 석비와 묘탑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지금까지 흔히 보았던 선화에서의 모습과는 다른 달마고행상이 공개됐다. 이 고행상은 불교춘추(발행인 최석환)가 지난 10월 중국 답사중 안휘성 황산박물관에서 발견한 것으로 제작연대는 명대 말기에서 청대 초기로 추정된다. 검은 목단류의 나무로 제작된 이 고행상은 높이가 10㎝ 정도로 달마의 9년 면벽고행을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모습으로 표현했다. 사진제공= 불교춘추사

"재산관련 징계자 사면제외"

정대스님 기자회견
"월하스님 만나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1월 24일 총무원1층 불교회관에서 취임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사면과 관련, "종단 재산을 팔아먹었거나 반국가적인 행위에 의해 징계된 사람들을 지칭한 사면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무원장 직함을 놓고 벌어진 시비 때문에 묶어두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월하스님을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대스님은 "월하스님은 내가 건당한 스승"이라며 "총무원장이 됐으나 개인적으로라도 인사하러 갈 것"이라고 답했다.

종회 운영과 관련해 정대스님은 "종회가 계속 유회되면 또 종회무용론이 나온다"며 "뜻있는 종회의원들과 원만한 종회운영을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의사도 밝혔다.

〈일문일답 3면〉

정성운 기자

"화합 깨뜨린 잘못 참회"
도견스님 기자회견서 밝혀

지난 10월 2일 법원에 의해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바 있는 도견스님(원로의원)은 11월 25일 대구 금성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단과 승단의 위상 실추와 화합중(和合衆)을 깨뜨린 잘못에 대해 깊이 속죄한다"고 밝혔다.

도견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잠시 분별력을 잃었던 것을 종도 앞에 참회한다"며 "종단은 정화개혁회의 스님들을 수용하여 안정되고 화합된 종단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견스님은 원택스님 등 8명을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혐의 고소를 이날 취하했다.

정성운 기자

선학원 "조계종과 별도로 간다"

자체 행자교육-계단 운영 검토

선학원(이사장 정일)은 11월 18~19일 대구 힐사이드호텔에서 전국분원장 회의를 열고 자체적인 행자교육의 실시, 계단 설치에 의견을 모았다.

이사장 정일스님을 비롯 150여명의 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현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조계종의 행자교육원 입방 거부, 각종 증명서 발급 거부에 따라 자구책을 찾지 않을 수 없다"며 "조계종의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한 조계종과 별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선학원 한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거의 모든 분원장들이 자체적인 행자교육 실시, 계단 설치를 강조했다"며 "이후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이사회에서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범종교 환경기구 이달중 발족

범종교 차원의 환경보전 기구가 설립된다. 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정대 외 6인)는 11월 2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가칭 종교단체환경실천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환경부의 제안에 따라 구성되는 환경협의회는 △환경정책의 종단별 실천방안 마련 및 전파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 및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환경협의회는 종교지도자협의회에 가입한 7개 종교에서 2명씩의 대표와 환경부 환경정책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계종총무원 문화부장 임철, 사회부장 양산스님이 불교계 대표로 내정됐다. 환경협의회는 12월중 발족식을 갖는다.

정성운 기자

국내 최대 목탑지 발견

남원 실상사서

지금까지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주 황룡사지 목탑지보다 더 큰 목탑지가 전북 남원 실상사에서 발굴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실상사 유적발굴조사단은 산내면 입석리 사적 제309호인 남원 실상사에서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경주 황룡사지 목탑지보다 규모가 1m정도 넓은 목탑지를 발굴했다고 11월 26일 밝혔다.

이 목탑지의 규모는 남북과 동서가 각각 23.2m인 정방형으로 황룡사 목탑지 보다 약 1m 더 크고, 면적도 127평으로 황룡사 목탑지 108.2평보다 18.8평이 넓어 국내 최대 규모의 목탑지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곳 목탑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중심기둥을 받치는 심초석이 놓인 점과 초석배치 형태 등으로 미뤄 목탑이 확실하며, 858년 실상사 창건 당시 상층석탑 2기(보물 37호)가 축조된 점이나 초석 양식으로 보아 고려 이후 절을 중창할 때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변방 산속 선종사찰에 대형 목탑이 들어선 것은 이례적으로 불교사 연구에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목탑지에서 북쪽으로 60m쯤 떨어진 곳에서는 온돌시설을 갖춘 단일 건물터로는 궁궐을 빼고는 국내 최대 규모인 건물터도 발굴됐다. 면적이 216평인 이 건물터는 구들을 놓기 위해 양쪽에 돌로 쌓아 만든 고래(일명 연도)도 최대 규모.

실상사유적발굴조사단은 지난 4월부터 2000년까지 실상사 앞대에 대해 발굴작업을 계속, 당시 불교문화의 전모를 밝혀낼 예정이다.

목탑은 사리를 봉안할 목적으로 세운 목조의 중층누각 건물로 국내에서는 목탑이 전부 소실되고 목탑지만 발견됐다. 목탑지는 백제의 부여 수리사지와 금강사지 익산 미륵사지, 신라의 황룡사지 등이 있다.

이경숙 기자

· CELLULOSE FIBER SPONGE · CELLULOSE FIBER SPONGE ·

GREEN SPONGE 환경을 생각하는 주부님들의 벗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주방일.
잘 닦이고 위생적인 GREEN SPONGE가 해결합니다.
환경오염이 걱정없는 GREEN SPONGE!
주방의 역사를 바꿉니다.

그린 셀룰로즈파이버 스폰지의 특성

● 환경오염을 막아줍니다.
쓰고 버린 후에도 100% 분해되므로 환경오염의 걱정이 없습니다.
●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강한 흡수력이 물이나 오물 등을 빠르게 흡수하여 흠집을 남기지 않습니다.
● 위생적입니다.
물에 살아 소독할 수 있으며 건조가 빨라 여름철에도 위생적입니다.
● 부드럽고 탄력이 뛰어납니다.
부드러운 감촉과 뛰어난 탄력성으로 구석구석 잘 닦입니다.
● 적은 양의 세제로도 충분합니다
천연펄프를 사용한 부드러운 재질로써 소량의 세제로도 충분한 거품이 생깁니다.

- 다양하고 경제적인 생활용품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제품들이 한곳에 모였습니다.
- 구입하실 땐 만족을, 다쓰고 버릴 땐 흐뭇함을 느끼보십시오.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한 양질의 제품만을 선보이겠습니다.

그린 스폰지 GT-001(사각형)
규격 85×135mm
용도 식기, 유리그릇, 냉장고, 조리기구, 자동차 등 세척시
특성 뛰어난 흡수력과 밀착력으로 잘 닦이며 살아 사용할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

그린 스폰지 GT-002(타원형)
규격 90×120mm
용도 식기, 조리기구, 싱크대, 코팅제품 등 세척시
특성 부드럽고 흡수력이 뛰어나 오래 사용해도 위생적입니다

그린 수세미 GT-003(사각형)
규격 75×115mm
용도 식기, 유리그릇, 냉장고 및 그밖의 물기 제거시
특성 천연스폰지와 수세미의 이중구조로 흡수력, 밀착력이 뛰어납니다. 잘 닦이고 건조가 빨리 위생적입니다.

그린 목욕 스폰지 GT-004
용도 목욕시
특성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 어른뿐만 아니라 아기 목욕시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린 화장 스폰지 GT-005
용도 화장시
특성 부드럽고 밀착성이 뛰어나 화장이 잘 먹습니다

그린 병 스폰지 GT-006
용도 좁은 유리잔, 물통, 아기 우유병 등 세척시
특성 편리한 손잡이와 뛰어난 흡수력으로 구석구석 잘 닦입니다

그린 거품 스폰지 GT-007
용도 식기, 조리기구, 유리그릇 등 세척시
특성 세제를 담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 사용이 편리하며 스폰지와 접촉되는 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어 적당량의 세제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린 압착 스폰지 GT-008
용도 자동차, 주방기구, 유리 등 세척시, 아기 및 성인 목욕시
특성 악간의 물기만 닿아도 점점 커지고 원하는 내용, 색상 인쇄가 가능해 판촉물로 적당하며 부드럽고 거품이 잘 일어 세제가 절약됩니다

GREEN TEX는 환경만족, 고객만족을 약속합니다. 저희 그린텍스는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 환경을 만족시키며 품질향상에 매진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21세기 환경을 이끌어가는 기업! 저희 그린텍스의 미래입니다.

주식회사 그린텍스
GREEN TEX. CO., LTD.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1동 628-14 청호빌딩 2층
TEL:02-3409-2235(代) FAX:02-3409-2236
■공 장: 경북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202번지 (풍산농공단지)
TEL:0571-858-5661(代) FAX:0571-859-3639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어떤 형태나 크기의 스폰지도 가능합니다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사 설

포교사단에 거는 기대

조계종 포교사단이 11월 20일 발대식을 갖고 전국 단위의 조직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늦어도 보통 때늦은 일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의 재가 포교사들을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포교불사에 나서게 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새롭게 내실을 갖춘 전국 포교사단의 출범은 몇가지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포교사단 결성이 종단의 주도하에 타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재가 포교사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실질적인 활동내용없이 단체이름만 걸어두고 이따금 성명서 발표할 때나 동원되는 따위의 구태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고무적이다.

다음으로 포교사단의 조직시스템을 전국 규모로 결성하되 지역별, 전문기능별로 나눈 점이 돋보인다. 특히 전문기능별 조직체계는 바쁘게 돌아가는 전문화시대에 포교역량을 극대화하는 아주 적절한 포교전략이 될 것이다.

새 천년, 새 시대를 맞아 우리 불교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너무도 많다. 불교의 성숙한 역할은 분명 이 시대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금까지 불교는 어떠했던가.

포교분야만 놓고 보더라도 포교사의 자질에 있어서나 포교의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전근대적이며 시대착오적인 활동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해 왔던 게 사실이다.

더구나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종단 분규의 모습은 포교에 진력해온 많은 스님들과 포교사들의 성과를 허물어 버렸고 그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려 왔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대 사회적 이미지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포교사단의 출범은 조계종의 새로운 출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교사단의 새로운 출범에 맞춰 반드시 뒤따라야 할 과제들을 그래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포교사단에 대한 지원이 포교원 차원이 아닌 총무원을 중심으로 한 전 종단적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총재인 포교원장 스님도 발대식 인사말에서 언급했듯이, 지난 19년간 수많은 포교사를 배출하고도 활동지원 체계가 너무나 미흡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이번에 또다시 용두사미나 외화내빈의 단체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포교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전철을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사람들의 근기나 기호의 무상변화함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시대다. 이러한 시대에 예전처럼 진부한 내용, 기어가는 방법을 고집한다면 지나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차라리 포교를 전면 포기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셋째, 무엇보다 포교사의 자질과 의지가 중요하다. 포교사는 인격과 덕성, 지식과 활동이 곧바로 모두 포교가 된다. 입으로 부르짖는 것은 도인과 다를 바 없는데 실천하는 것은 보통사람보다도 못하다면 포교는 오히려 역효과를 거두고 말 것이다.

모든 단체가 그러하듯이 단체의 성패는 그 조직의 완성도와 그 구성원의 역량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포교사들은 더욱 더 금강과도 같은 신심으로 정진하고 닦아야 할 것이다. 포교조차 실패한다면 무한경쟁시대 불교의 경쟁력은 마이너스가 됨을 모두가 명심해 굳센 의지와 새로운 아이디어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조계종 포교사단 출범

21세기 불교중흥 다짐…초대단장에 김기병씨

조계종 포교사단(총재 정련·포교원장)은 11월 20~21일 대전 경원호텔에서 제1차 전국 운영위원(팀장)회의를 열고 전국 단위의 조직을 출범시켰다.

지역 운영위원(포교팀장) 및 상임위원, 운영위(상임위) 간사 등 포교사단 간부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포교사단 정관 및 제규정을 제정하고 김기병(55·신광산업 대표이사) 서울·경기지역 운영위원장을 초대 단장으로 선출했다.

포교사단은 또 △포교사례집, 포교지침서, 회보 발간 등 포교자료의 축적과 자원화 △사무국의 행정 전산화 및 포교사 지원체계 수립 △제2차 전문화교육 실시, 120개 포교팀 구성 △수련회, 세미나 등을 통한 포교사 신행혁신 △포교지도 조사 및 작성사업 △불우 소년소녀 돕기 후원사업 등 2000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군포교(군6팀 이남형) 사찰포교(금어팀 신흥득) 활동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김기병씨

이번 포교사단의 전국 조직화는 종단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 아닌 포교사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종단의 지원없이 개인적인 원력으로 시간과 돈을 쓰며 포교활동을 펼치면서도 '불교 중흥'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사심없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특히 포교사들이 분야별로 포교팀을 구성, 종적인 지역별 포교사단으로 묶고 다시 이를 전국 단위의 횡적인 전문분야별 활동위원회로 나눠 종·횡으로 포교역량을 극대화시킨 것은 출가 공동체를 보조하는 최고의 재가 수행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총 2127명의 포교사 중 1125명이 팀활동에 참석(52%), 83개의 전문 포교팀을 구성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11월20일 전국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새롭게 출범했다.

김기병 신임단장은 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조계종의 수행가풍이 새로운 세기의 정신적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불교 홍포에 앞장서겠다"면서 "포교사들이 자신의 포교 원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단장은 서울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하고 동양나이론 전무이사와 同 원미사업부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봉은사 재적신도로서 동산불교대학을 졸업, 보이지 않는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포교사단 청소년팀 팀장, 서울·경기지역 운영위원장, 포교사단 중앙위원 주비위원장을 맡아 왔다.

한편 포교사단은 전국 운영위원회의에 앞서 보문중학교 이범주 군을 비롯 11개 종립중학교 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씩 총 165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TV 새 사장에 효강원장

불교TV이사회는 11월24일 허문도 대표이사 사장 해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효강 총지종 법장원장을 새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했다. 전체 31인 중 20인(대리참석 2인 제외)이 참석해 불교TV 스튜디오에서 열린 30차 이사회는 또 대표이사 회장 태응스님의 사표를 수리, 이수덕전무이사를 부사장에 임명하는 한편, 14일 오후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불교TV 노조는 이사회 결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난 노사합의대로 제2개국이 준비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효강 대표이사 인터뷰

"경영정상화 가교역할"



"14일 열릴 주주총회 이전까지 유력한 인사를 대표이사로 모셔와 불교TV가 하루속히 경영정상화를 찾도록 가교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 불교TV 대표이사 사장이 된 효강 총지종 법장원장의 첫 인사말은 능력있는 투자자를 영입하겠다는 것이었다.

효강 대표이사는 유력한 인사의 조건으로 불자이며 덕망과 경영에 경륜이 있고, 현 정권과 대화도 가능한 인물이라고 제시하면서 현재 접촉중이며 성사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창립이사로 현대사회에서 영상포교는 중생교화의 중요한 방편이라고 강조하는 효강 대표이사는 "짧은 시간이나마 대작불사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영란 기자

정대총무원장 당선 '인준'

조계종 원로회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탄성)는 11월20일 총무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30대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당선을 인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원로의원 19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총무원장 당선 인준을 결의했다.

원로회의는 또 청하 전계대화상의 입기가 만료(10월 24일)됨에 따라 새 전계대화상으로 동화사 비로암에 주석하고 있는 범룡(梵龍)스님<인터뷰 3면>을 추천했다. 이에따라 종정 혜암스님은 11월23일 범룡스님에게 전계대화상 위촉장을 전달했다. 전계대화상은 단일계단 등 각종 수계산림을 관장하며 계법을 전하는 조계종을 대표하는 계사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집행부인사 완료

정대스님 "소신껏 일해달라"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1월 23일 총무원집행부 부·실·국장 인사를 실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기획실장과 사회국장 문화국장은 25일 임명했다. 호법부장 종지스님에 대해서는 사표를 반려했다. 사서실장은 당분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집행부 부·실·국장들은 20일 정대스님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교육원장 포교원장 및 교육원 포교원 부·국장은 변동이 없다. 집행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무부장 원택(유임), 총무국장 중원(유임) △기획실장 지원(신임, 완주 송광사 주지), 기획국장 정오(전보), 감사국장 진효(전보) △재무부장 자승(재임명), 재정국장 성효(전보) △문화부장 일칠(유임), 문화국장 태진(신임) △사회부장 양산(유임), 사회국장 정념(신임, 상원사 주지) △호법부장 종지(유임), 호법국장 법승(유임), 조사국장 석청(유임) △사서실·사서차장 지정(신임) △불교신문사장 영담(재임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임명장 수여 후 인사말을 통해 "종단의 어지러움은 집행부가 단결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며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법화종 '법화본종'으로 개명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화종(법주 혜흡)이 11월 16일자로 '한국불교 법화본종'으로 종명을 개칭했다. 법화본종은 법주 혜흡스님 승정원장 묘선스님 유지재단 이사장 겸 교육원장 혜경스님 총무원장 위불스님 등 종단스님과 신도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총본산 법화사에서 새 종명 선언식 및 현판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일본 법화종의 간부스님 31명이 참석, 축하했다.


◇11월16일 열린 한국불교법화본종 현판식.

유지재단 이사장 혜경스님은 "창종 70주년을 앞두고 종조 물착당(勿着堂) 혜선 대종사의 유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 종도들의 재창종 의지를 만천하에 천명하고 유사단체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종명을 개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태고종 '선교육 후득도' 제도강화

승적발급 엄격관리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이 '선(先) 교육 후(後) 득도' 제도를 강화한다.

태고종은 11월 3일 수계식을 가진 제23기 합동득도 수계자들부터 내년 5월 실시 예정인 연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승적을 취득토록 방침을 정했다. 태고종은 11월 18일 서울 종무처 회의실에서 종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승려교육강화 방침을 결정하고 향후 2~3년내에 종립학교인 동방불교대와 선암사 강원 중 한 곳을 반드시 졸업해야만 승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선 교육 후 득도'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장 백운스님은 "도제양성이야말로 종단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가장 중요한 불사"라 전제하고 "21세기와 통일된 한국불교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승교화종단의 교역자를 배출해 낸다는 차원에서 23기 수계자부터는 승적발급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찾아가는 서비스

육지장(六地藏) 성상, 석조(石造) 6만불 봉안불사

● 위 치 :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산 128-1번지
도리산 육지장사(母乳井 약수터) 서울 구파발 25분거리
● 주 관 : 삼보사, 도리산 육지장사성지 조성건립회
● 연락처 : 삼보사 (02)352-6406 · (02)3417-3388

(1) 지장보살 좌상, 입상 1위당 20만원(화강석 예술조각) 크기 1.5자
(2) 1조 육지장(6분) 120만원(화강석 예술조각) 크기 2.0자



소원이 있다면 육지장 원불을 모십시다.

현세를 주관하는 대위덕 보살이시다.
미륵부처님이 출현하실 때까지 육도중생(하늘, 인간, 아수라, 아귀지옥, 축생)을 구제하라는 부처님 위촉을 받은 현세를 책임진 보살
무간지옥의 고통받는 중생들까지 구제하시며 천번 만번 죄를 지어도 용서하는 어머니 사랑의 자비 보살이시다.
우리들 삶에 있어 정치, 경제, 문화, 농, 공, 상등 각계각층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지장보살의 분화신으로 정치 잘하는 보살, 사업 잘하는 보살, 장사 잘하는 보살, 농사 잘짓는 보살, 가정살림 잘하는 보살, 문화예술을 잘하는 보살이 되도록 각자 원불을 봉안하고 큰원을 세워 실천하는 도량으로써 6만 지장봉안성지를 장엄하자는 큰뜻으로 여러분들의 동참을 권선 합니다.

영탑 분양안내 (지장성지 도리산 육지장사)

육지장사는 도리천궁 지장보살님의 회상을 지상에 건설 실현하고저 6만 육지장보살상과 1,000탑, 1,000등(화강석 예술조각)을 조성하여 지장성지의 도량으로 장엄되는 세계유일의 지장성지입니다. 지형은 앞에는 천왕봉이 받쳐주고 뒷주산은 일출봉이 도리산을 감싸안은듯 좌청룡이 3중첩으로 병풍처럼 둘러있고, 우백호등은 험차게 내려와서 겹겹으로 앉았으며 좌, 우쌍정을 이루는 호수가 둘씩이나 좌우에 있어 풍광이 아름다운 명당중의 성지입니다.



차별화된 특수분양 조건

1. 사찰경내 부지에 지장보살상(화강석 예술조각)과 함께 봉안
2. 정리 조성된 공원묘지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사찰경내 스님들 부도탑전과 같은 자연지형 그대로 석조 탑형으로 봉안
3. 기간의 제한없이 영원히 안치 봉안됨
4. 설, 추석, 백중등 모든 크고 작은 사찰 행사때마다 영가를 위한 합동축원과 천도공양이 봉행됨

영탑분양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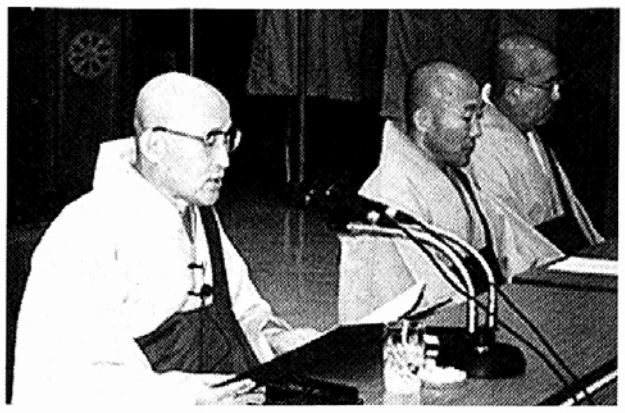
1. 탑형 7자, 3대(6분 유골 안치)
2. 종탑형 6자,3대,2대,1대,(6분, 또는 4분, 2분 유골안치)
3. 종탑형 5자, 2대, 1대(4분, 또는 2분 유골안치)
4. 사각탑형 4자, 1대(2분 유골안치)

▶위치: 서울 구파발에서 승용차 25분거리, 감사교육원 안내 간판보고(장흥유원지 가는 길, 용미리 공원묘지 가는 길) 저수지, 상, 하 어느곳에서나 600~800m가면 도리산 육지장사 석조 큰간판이 보임 산쪽으로 1000m에 사찰입구

※ 전국 사, 암, 주지스님께 희소식 → 석불상, 석탑, 석등, 영탑조성 국내 최고 염가제공, 육지장사 6만불 조성추진회 (02)3417-3388

"종단 안정과 화합 최우선 과제"
"최소한의 종법 절차거쳐 사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기자회견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1월 24일 취임기자회견을 갖고 "종단의 안정·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1월 2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의 문답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종단혼란으로 불자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계질서의 확립을 강조한 정대스님은 또 "원로스님들의 뜻을 받들고 교구본사 주지와 중진스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종단운영의 폭을 대폭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면의 방식과 범위, 월하스님을 만날 계획은.

▲월하스님은 내가 건당한 스승이다. 비구계도 그 어른에게 받았다. 총무원장이 된 지금 개인적으로라도 인사하러 갈 것이다.

사면할 뜻이 없으면 총무원장에 취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종단 재산을 팔아먹었거나 반국가적인 행위에 의해 징계된 사람들을 지칭한 사면이 아니다. 의견과 이해가 달랐거나 총무원장 직함을 놓고 벌어진 시비 때문에 묶여있는 분들을 묶어두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도 온당치 않다.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 시점에서는 화합해야 한다.

-사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올해 안에 가능한가.

▲종법에 정한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후회없는 사면이 되기 위해 종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다. 전과 같이 종단을 어지럽히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자신없는 집행부나 종회라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나는 자신있다. 정화회의쪽에서도 올해 안에 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의지가 크니 일정에 구애됨이 없이 추진하려고 한다.

-총무원장선거 과정에서 사면 대상자와 만난 적이 있나.

▲월탄스님은 나와는 동지적인 입장이나, 일(사면)이 되기도 전에 깨질까봐 만나지 않았다. 사면 이후 공직을 맡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을 달 필요없다.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사면이다. 그냥 푸는 것이다.

정화개혁회의에 관여된 스님들에 대한 사면은 내가 가장 적임자다. 내가 못하면 다음 총무원장이 하기도 어렵다. 정화회의에서도 종단에 참여해야 한다.

-총무원 청사, 승가대 김포학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사는 조감도만 나온 단계다. 사실상 무(無)이다. 중앙승가대의 김포학사 입주는 청사 건립과 연계할 생각이다. 김포학사 이전 후 운영에 대해 걱정하는데, 1명의 훌륭한 스님이 나와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조계사 철문을 철거할 용의는 없나. 건강은 어떤가.

▲건강은 보시는대로다. 내일 죽을는지, 20년 후에 죽을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대답은 건강하다고 해야 않겠나. 철조망도 치우고 일주문도 열었다. 해탈문도 곧 열 것이다. 철문에 대해서는 양해해달라.

-원만한 종회운영을 위한 방안은.

▲종회가 계속 유회하면 또 종회무용론이 나온다. 뜻있는 종회의원들과 모여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얘기할 것이다. 또 분열을 부추기는 총무원장선거법을 바꾸도록 하겠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과는 어떻게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

▲지역에 옳은 사업을 하고, 실력을 갖춘 사람을 지지해야 한다. 불자라고 해서 도와줘서는 안된다. 선거에는 말려들지 않으려 한다. 백해무익하다. 스님들에게 표를 구하는 정치인은 각성해야 한다. 돈 있으면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말하고 싶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계율은 바꿀 수 없는 것"

조계종 새 전계대화상 범룡스님



11월 24일 종정 혜암스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직후 주석하고 있는 동화사 비로암에서 기자를 만난 범룡스님은 무엇보다 계율의 수지를 강조했다.

스님은 "참선을 배우려오는 자들에게 5계의 수지 여부를 먼저 묻는 것은 참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계율이 청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불자들은 늘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종단사태와 관련, "승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각자가 가진 업연의 소치 때문"이라며 "부처님께서도 '중생이 이미 지은 업은 바꿀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를 범했다할지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구제될 수가 있다"면서 참회정진하는 자세를 당부했다.

또한 계율의 현대적 변용에 대해서는 "미륵부처님이 와서 고치면 모를까 아무나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스님은 "마음은 생주이멸하고 육체는 생노병사하며 우주는 성주괴공한다"면서 "깨달음이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곧 꿈속임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강경의 한구절인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니 모든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보면 곧 부처를 본다)'를 언급한 뒤 '약견제상실상(實相)이면 즉견여래'라는 스님의 견해를 피력했다.

하루 3시간 정도밖에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는 스님은 "결제시기에 돌아다니는 스님은 돌팔이중"이라며 정진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인간수명이 원래 120세인데 과음하고 공상하며 색을 밝히는 까닭에 제명대로 살지 못한다"면서 일반불자들도 절제하는 생활태도를 견지할 것을 당부했다.

범룡스님은 끝으로 수행자가 지켜야 할 덕목으로 '제악막작 중선봉행(諸惡莫作 衆善奉行, 모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한 뒤 성인의 경계에 도달하기 전에는 함부로 막행막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1914년 경남 맹산에서 출생한 범룡스님은 41년 상원사에서 한암스님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유점사 승가대 대교과를 졸업했다. 48년 상원사 승려수련소 수료 후 수덕사 범어사 해인사 등 제방 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했다. 동화사 주지, 봉암사 조실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동화사 비로암에 주석하고 있다. 이윤호 기자

전계대화상이란 스님배출 戒壇관장

전계대화상(傳戒大和尙)은 계단의 설치와 운영, 수계식 등을 관장한다. 전계대화상은 원로회의의 추천에 의해 종정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종정(宗正)이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고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지녔다면, 전계대화상은 스님을 배출하는 계단(戒壇)을 관장한다.

계단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계단위원회가 있는데, 전계대화상은 계단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계단의 주요 구성요건인 3사(갈마아사리, 교수아사리, 증계아사리)와 7증사(證師)를 위촉한다.

조계종은 지난 81년 전계의 엄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단일계단을 마련했으며, 출가자는 단일계단을 통해야 승려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범룡스님은 자운, 고암, 석주, 일타, 청하스님의 뒤를 이어 6대 전계대화상에 위촉됐다. 전계대화상은 법랍 45년, 세수 65세 이상이 되어야 위촉 자격이 부여된다.

"범종단 군불교위원회 설치해야"

군승단 창설 31주년 기념 공청회

군승단(단장 김말환)은 11월 23일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창설 31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개최하고 군불교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육군사관학교 장성화 법사(군승단 사무총장)는 '군포교 비전 21'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군불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군승단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군불교를 전담하는 종단의 공식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군불교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군포교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군포교 비전 21'의 성공여부는 종단과 군승, 불자들의 한마음이 될 때만 가능한 어려운 숙제다. 자유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군불교 전담기구 설치

군불교의 모든 업무를 전담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로서 조계종 포교원 산하의 (가칭)군불교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군불교위원회의 대표는 현역이 아닌 비구승으로 하되, 군승총회에서 선출하여 포교원장이 임명토록 해야 한다. 군불교위원회의 예산은 각 종단의 분담금과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군법당 분담금과 후원금, 사업이익금 등을 운영한다.

■각종단 군승 파송

군승 부족 현상과 군불교의 새로운 자극과 충전을 위해 국방부와의 협의와 종단간의 동의에 따라 (가칭)군불교위원회 형태의 기구에 파송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군불교위원회가 군승 후보생 및 요원을 각 종단에서 선발, 파송받아 교육 후 군에 파송하고, 군승의 신상관리 등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종단이 다른 만큼 통일된 의식과 제도를 교육하고 시행해야 한다.

■종합적 군불교 시스템 수립

△군포교 정책의 부재=대상별 부대별 포교의 방향, 중점 포교방안 등 종단 차원의 지속적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법회 지원의 어려움=군승의 효율적 인사 배치, 재가 포교사 활용, 지역 군종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간부 불자의 관리 부재=간부 신도카드의 통일관리, 전군불교장교회의 결성을 추진한다. 수계불자 명단의 종합 관리가 필요하며, 전역후 종단으로 자료가 넘어가야 한다. △예비역법사단 군불교진흥회 예비역장성불자회 불교어머니회 등 군불교 후원단체의 등록 및 관리제도의 시행으로 군포교 지원의 체계화를 유도한다. △군불교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군불교 예산의 확보 및 시행 방안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군법당 표준기준 등을 담은 군법당 건립 규정을 시행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연대급 이하 법당에 군승이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군승 교육 및 관리

△군승 후보생 및 요원 교육의 부재=후보생 및 요원 선발 규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립해 시행해야 한다. △군과 승의 이중적 구조에 의한 관리부재=독신조항 등에 대한 장기적 연구, 군승 관리 규정 및 활동 지침 시행(법당 월말보고서, 감사제도, 상벌권 확립 등)이 필요하다. △군승 전역후의 문제=종단 복귀, 복지기관 수용 등 수용방안, 상임법사 제도(군법당, 군법회 지원) 시행, 예비역 군승 관리 규정 마련 등이 연구돼야 한다.

▲군불교 방법론 및 군법당 관리방안 개발

△법회의 정체=책자와 교육기관 수계를 통한 교육, 출석제도 연구, 설법 및 포교방법 경연대회를 열어 다양한 법회의식을 연구하고 지원한다. △법당 재정 자립의 부재=불전 보시에 대한 신도교육 실시, 법당 재정운영 규정 시행과 감독 강화, 합장주 쵸코파이 등 공동구입·분배를 시행한다. △불자 신도조직의 정체=전군장교불자회, 하사관불자회 등을 조직하고 군실정에 맞는 통일된 신도 조직 운영지침을 시행한다. △불자교육의 전무='통일' 주제의 설법 등 군 특성에 맞는 단계별 교육방안을 추진하고 교육 책자 등을 제작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목어

오직 진실만이…

한때 이 나라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모 인사가 아내와 함께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두하며 기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밝히면서 눈물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의 눈물인지 악어의 눈물인지 의심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때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던 국회청문회에서 조차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을 들먹이면서까지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전력이 있으니 그보다 더한 일인들 하지 못할까닭이 없다는 불신 때문이다.

결국 그러한 불신은 저들 자신이 뿌려 놓은 인과응보요,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원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선 연정희씨의 남편은 문건의 출처는 밝히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니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처럼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한때나마 이 나라 검찰총수였다는 사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외혹은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망령처럼 되살아난다는 점에서 오직 진실을 밝히는 길만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진실처럼 확실한 의지처는 없다. 진실을 등진 사람은 아무리 보리수 아래 앉아 있어도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고 〈자타카〉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설파했다. 진실은 수행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주변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진실을 등진 권력은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되고 끝내는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국민이 위대한 것은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은폐하려 할 때는 결코 용서하지 않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정의감이 그들의 가슴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기 때문이라 본다.

설령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해도 정의감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살아있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일등국가는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고급옷 로비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진실규명 여부는 새로운 천년의 시대에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한 명암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성열(강남포교원장·본지논설위원)





박지원장관 정대스님 예방

'종교화합' 당부…김세옥 이사장도 방문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11월20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총무원을 예방했다.

박지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행력과 행정력을 겸비한 원장스님이 고산 전임 총무원장 스님에 이어 남북교류와 종교화합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정대스님은 "진정한 자주와 개혁은 수행을 통한 자기 성찰과 개혁"이라면서 "마음의 개혁을 통해 불교계의 대화합을 이루고 종교간의 화합에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장관은 새해 문화관광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40% 증액되고, 문화재청 예산은 80%, 전통사찰관련 예산은 3배, 종무실 예산은 120% 늘었다고 밝혔으며, 정대스님은 불교문화재 보존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김세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25일 오전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환담했다. 이날 정대스님은 "공단이 적자를 안 내려고 사찰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단은 비용을 들여 사찰을 외호하는 단체라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당부했으며, 김 이사장은 "국립공원내 사찰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교 차 로

해외 보육시설 견학



혜성 도선사 회주스님은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美 하와이 무량선원 개원식에 참가하고 청담·혜명복지관 산하 어린이·보육원·양로원장 등 15명을 인솔, 해외 보육시설을 견학했다.

신당창당위원에 선정



현각 동국대 불교대학장 스님은 11월22일 여권의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위원에 선정됐다.

남아공 세계종교의회 참석



진월 종교연합 한국지부 대표스님은 1일부터 8일까지 남화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제3회 세계종교의회(PWR)에 참석키 위해 11월28일 출국, 11일 귀국한다.

무불선원 영어경전 강좌

무심스님(화계사 국제선원)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30분 강남 무불선원에서 〈The Whole World Is Single Flower〉를 교재로 영어 경전강좌를 연다. (02)541-0002



중국성립 50주년 기념패 수상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11월11일 한국과 중국간 문화학술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50주년을 기념해 특별제작된 '문화부 기념패'와 '교육부 기념패'를 중국대사관을 통해 전달받았다.

석불연구회 송년모임



이근후 한국석불문화연구회장은 4일 오후 4시 출판문화회관 4층에서 송년모임을 갖는다. 이날 석불문화연구회 1년간의 활동보고 및 슬라이드 쇼가 진행되며, 문화공연도 열린다. (02)760-5138

일붕문학상 시부문 본상

임완숙 조계종 전국교사불자회장은 11월24일 한국문예진흥원 소강당에서 거행된 18회 일붕문학상 시상식에서 시집 〈바다에 내리는 비〉로 시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바람소리' 주제 개인전



하수경 전주대 미술학과 교수는 11월 24~30일 서울 관훈동 아트사이트넷에서 '바람소리'를 주제로 개인전을 가졌다.

신흥사 주지 법장스님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는 11월 21일 산중총회를 열어 법장스님을 새 주지로 선출, 총무원에 임명을 품신키로 했다. 법장스님의 임기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1947년 공주출생인 법장스님은 74년 사미계, 82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77년 정암사 수선안거 이래 10 하안거 성만, 84년 동화사 승가대학 졸업 뒤 운기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다. 미국 하와이 대원사 총무 등을 역임했다.

"군 중앙신도회 창립 추진"

새 군승단장 김말환 법사



"21세기에 걸맞는 군불교의 정보화 추진과 함께 군 중앙불교신도회를 창립하는 등 군포교 관련 단체의 활성화와 연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1월 23일 군승단 정기총회에서 이희용 군승단장에 이어 2년 임기의 제 25대 군승단장에 선출된 김말환 군승법사(46·대령·육군종합학교 군종학 처장)는 각 군 사령부 이상의 법당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도 개발해 인터넷을 통한 군 포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예비역성불회, 군불교진흥회, 예비역군법사단, 포교사단 군포교팀, 불교어머니회 등 군 포교 제 단체의 연대를 통한 군 포교 역량의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해 기독장교회와 천주교군령신도회에 필적하는 군 중앙불교신도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군포교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는 선에서 진각종 등의 군승 파송문제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군불교위원회 설치 등 제도개혁도 추진하겠다면서 불자들의 군 포교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 단장은 지난 72년 대각사 조실 도문 스님을 은사로 경주 분황사에서 출가한 뒤 78년 군법사로 임관, 15사단과 28사단, 5군단 군종참모, 군종감실 종무장교 등을 역임하고 현재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학 처장으로 있다.

김재경 기자

조선족 서예가 사기당해 생계 위협

도·와·주·세·요



조선족 서예가인 윤봉호(60·사진)씨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서체를 주사로 쓰는 서예가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전서체를 구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윤씨는 2년전 국적취득과 관련 사기를 당해 생계는 물론 작품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된 울산의 지인들이 '서예가 윤봉호 후원사업회(회장 이창일)'를 만들어 안정적인 작품활동 후원을 위해 애쓰고 있다. 윤씨는 〈금강경〉〈반야심경〉'불(佛)'자 등을 경면주사를 이용, 독특한 전서체로 제작 보급하고 있으며 전서체 전수를 위해 〈한국소전체〉라는 전서체 사전 발간을 계획중이다.

후원회 이창일 회장은 "서예계에 정식 입문해 안정적인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며 "전시회를 마련, 전서체 서예의 깊은 멋을 많은 이들에게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창일 회장은 국적 취득문제, 작품 활동비 마련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해남사, 정토사 등 사찰에서 작품전시회를 열고 있다.

윤봉호 후원회=018-641-8935

부산=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불교·한의학 보급 힘쓸터"

LA로얄대 조재호총장



"선교사 언더우드가 한국에 연세대를 세워 기독교를 전파했던 것처럼 미국 땅에 불교이념을 바탕으로 한의학을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국대 LA분교인 미국 로얄대 총장으로 선임된 조재호씨(59·동국의료원장)는 새롭게 개교하는 일념으로 일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조 원장은 지난 95년 국내 처음으로 비의료인이 동국의료원장을 맡아 세간의 화제가 됐던 인물. 조 원장은 서비스 개선, 시스템 개혁, 고객 만족(Satisfaction) 극대화라는 3S 정책 수립과 투명 경영철학 등 5년간의 의료원 경영을 바탕으로 이번엔 LA 로얄대 총장으로서 새로운 구상에 한창이다.

"현재 로얄대 한방병원이 미국 내에서의 입지가 저조합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만, 당뇨 등 각종 클리닉 과정을 우선적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내 박사과정, ELS과정을 개설하고 대학발전 후원회도 만들 생각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4년간의 임기 동안 조 총장은 로얄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세부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조 총장은 "21세기는 등양사상 특히 한국 선불교가 세계인의 정신적 대안이다"며 "동국학원 건학이념인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서구에 불교와 한의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로얄대를 한국불교의 전법 전진기지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중근 기자

'불광' 창립 25돌 법회



서울 불광사·불광법회(법주 지정)는 11월 14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불광 창립 25주년 및 월간 〈불광〉 300호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1부 대법회와 2부 축하행사로 이어진 이날 법회에는 서암스님(조계종 前 종정)을 비롯해 도문(대각회 이사장) 성오(범어사 주지) 스님과 송석구 동국대 총장,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등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애주 교수 의 전통춤회의 승무, 불광사 유치원생의 찬불동요, 국악인 김영임씨의 판소리,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공연이 벌어져 기념법회의 흥을 돋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학술상 제정…불교학 대중화 역점"

한국불교학회 신임회장 목정배 교수



"권위의 회장이 아니라 회원들의 원할한 학문연구활동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학자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발표분야를 세분화 하고 발표기회를 자주 갖도록 학술대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1월 19일 한국불교학회 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추대된 목정배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는 불교학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학자들이 각자의 연구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목 교수는 불교학회의 조직 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불교교학, 불교사학, 불교문화 등으로 개편하고 학술대회도 연2회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목 교수는 불교학 발전을 위해 학술상을 제정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특히 한국 불교학의 세계적인 발전을 위해 내년 10월경 5개국 학자를 초청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목 교수는 "불교학이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불자들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학문세계를 구축하겠다"며 불교학의 대중화에도 남다른 뜻을 내비쳤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요리가 왕준련 보살 별세



불자 요리연구가 왕준련 보살이 11월24일 81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고인은 60년대 이후 전국 사찰 순회 요리교육을 통해 불교 식생활 개선운동을 활발하게 펼쳤으며, 크고 작은 불사에 동참했다. 고인의 장례는 26일 열반종 전국신도회장(葬)으로 치러졌으며 화장 후 영단은 용인 와우정사에 모셔졌다.

인 사

진각종 △응신심인당 주교=성정정사 △무애심인당 주교=무외정사 △대명심인당 주교=보후정사 △신락심인당 주교=심원지 전수 △아축심인당 주교=효심정사 △대승심인당 주교=혜언정사 △용화심인당 주교=정학정사 △영신심인당 주교=혜암정사

公 告

創宗 70년을 앞에 두고 宗祖 勿着堂 慧宣 大宗師의 遺業을 達成하기 위하여 法華의 搖籃인 法華寺를 中心으로 再創宗의 精神 아래 宗名을 다음과 같이 改稱하고 類似團體와 混同없기 爲해 이를 公告함.

新宗名: 韓國佛教 法華本宗

法主 大僧正 惠 洽
僧正院長 妙 宣
總務院長 爲 佛
副院長 惠 無
總務部長 惠 能
教務部長 法 證
財務部長 法 惠
社會部長 一 啄

教育院長 惠 耕
副院長 惠 輪
布教院長 宗 明
副院長 惠 藏
護法院長 梵 翁
副院長 泰 翁

宗會議長 惠 昭
副議長 惠 光

佛紀 2543年 11月 16日

韓國佛教法華本宗 法主 惠洽

大新正脩 大藏經

불교의 수행과 신앙의 뿌리는 「경전」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불자들은 경, 율, 론 삼장을 열람하여 신심의 깊이를 더 하고자 합니다.

불자들의 이러한 여망에 부응하고자 금번 도서출판 법보원에서 「대정신수대장경」을 영인하여 지금까지 출간된 「대장경」과는 달리 우수한 제작과 더불어 사부대중 앞에 보급하고자 내놓게 되었습니다.

- 신수대장경 (경집부) 총 55권, 목록 1권
- 하드카바 양장, 케이스(4.6배판) 인쇄선명도 양호
- 신청즉시 택배 (직배) 발송가능
- 정가 : 1질 1,500,000원 (신용카드구매 가능)

100질 한정판 정가 : 1,500,000원

구입처 도서출판 **법보원**

☎ 02)2272-0252, 2269-2972

불교산악회 자연보호 파수꾼

대구불교산악회 사찰주변 산에 나무심기
제주불교산악회 동물 먹이주고 오물수거
수원불교산악회 산림보호 스티커 나눠줘

'몸과 땅은 본래 두 모습이 아니다(身土本來無二相).' '자연은 후세에게 빌려온 재산이다.'

최근 환경문제와 연관해 곳곳에서 빚고 있는 갈등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대고 있는 가운데 사찰환경을 비롯한 자연보호 활동에 전국의 불교산악회가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매월 산행과 함께 자연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 수원불교산악회, 안동불교산악회, 대구불교산악회, 영주불교산악회, 제주불교산악회, 양산불교산악회 등 10여 곳에 이른다.

사찰순례를 겸한 산행으로 전국의 크고작은 산을 누비고 있는 대구불교산악회(회장 홍성식)는 50여 명의 산악인으로 구성된 '녹색환경단체'를 결성, 자연보호 활동 및 시민의식 계도를 비롯한 사회환경 개선활동을 벌이고 있다. 산악회로서는 이례적인 환경단체 결성으로 대구 환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대구불교산악회는 매월 정기 산행때면 어깨에 띠를 두르고 사찰 주변 환경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찰 주변 산 나무심기를 비롯해 인각사 수물댐 건설 및 해인사 골프장 건설, 동강댐 건설 등에 제동을 걸었다. 또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등을 통해 잠자던 시민의식을 깨우는 일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불우이웃돕기를 통한 사회에 따뜻한 정나누기도 대구불교산악회 부설 녹색환경단체의 몫이다.

대구불교산악회 홍성식 회장은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탄생하고 환경은 인간이 만들고 다듬는데서 모양을 달리한다'는 취지에 동참하는 회원이 하나둘 늘면서 환경단체로까지 확대됐다"며 "내 것이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타인의 것이라는 공간개념과 환경 훼손을 초래하는 과도한 욕심을 깨는 불교의 자연관에 입각해 일과성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환경운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환경보호활동을 목적으로 창립된 산악회도 있다. 지난 10월 발족한 제주불교산악회(회장 김만국)는 매월 한차례 봉행하는 산상법회를 통해 사찰 주변환경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쓰레기 줍기는 물론 올 겨울에는 주변산 동물먹이주기 행사를 가져 환경친화적 사찰환경 조성에 산악회 연말사업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수원불교산악회(회장 임병선)도 오는 12일 수원 광교산을 등반하고, 광교산 일대 쓰레기 줍기 행사를 갖는다. 또 직접 '산림보호' 스티커를 제작해 사찰 참배객 및 등산객들에게 배포한다. 영주불교산악회는 5일 어깨띠를 두르고 문경 주흘산에서 산불조심캠페인 및 쓰레기줍기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는 11월 20일 밀양 표충사에서 재약산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산행을 통한 수행과 전법 단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불교산악회의 이같은 활동은 환경운동에 대한 의식을 계몽하고 실천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대구불교산악회는 지난 4월 50사단을 찾아 오물수거 및 자연환경 정화작업을 벌였다.

소외된 환자 찾아 정성 간호

탐방 불교 간호사회



◇불교간호사회는 창립과 동시에 98년 11월 1일 첫 '늘기쁜 마을, 무료진료 봉사'를 시작해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회원 40명…무료진료봉사
병원에 법보시…회보준비

아픈 이들을 보살피는 일, 그 어렵고도 끊임없는 수고로움을 자청하고 나선 이들이 간호사들이다. 그 고됨을 수행으로 여기고, 병든 이들을 보살피는 일로써 부처님 법을 실현하고자 하는 간호사들의 모임이 있다. 98년 10월 17일 병원 복지관 간호사, 양호교사, 퇴직간호사 등 4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된 불교간호사회(회장 황보선)는 1주년을 맞아 바쁘게 걸어온 일년을 돌아보고 있다.

1주년을 맞아 해인사 임원수련법회를 가졌고 〈밝고 따뜻하게 불교간호사회〉라는 회보 창간에도 여념이 없다. 지난 4월 회명 공모를 통해 '밝고 따뜻하게'라는 단체명을 정하고 이름대로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교간호사회는 창립과 동시에 제1회 늘기쁜 마을 무료진료에 동참해 건강상담 및 진료 봉사활동도 펼쳤다. 또 복지관 간병인 교육을 전담해 왔다. 병원내에서 자비의 손길로 환자를 간호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 곳곳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러나 참다운 실천은 올곧은 신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개인의 신행과 정진을 강조하고 있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마다 가지는 월례법회와 자비수참기도로 불교적 소양을 갖춰 나가는 한편, 송광사 수련법회와 직지사 사찰순례 등을 통해 자비실천의 힘을 비축하고 있다.

불교간호사회의 활동 중 빼놓을 수 없는게 또 하나있다. 올 5월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발간한 〈살아있는 모두가 행복하기를〉 소책자 보급이다. 쾌유를 위한 기도법과 〈관세음보살보문품〉등에서 가려 뽑은 좋은 글귀를 모은 이 책자는 부산대학병원, 동아대학 병원, 진주 경상대학 병원, 서울대학병원 등에 1천5백부가 보급돼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반응이 좋아 1천부를 추가로 제작해 각 병원에 보급할 방침이다. 또한, 불교간호사회는 부산 간호사들만의 모임으로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아래 내실 다지기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홍순탁 부회장은 "더 많은 환자들을 불교로 이끌고 불자 간호사 양성을 통해 간호사들이 퇴직후보다 조직적인 전문 봉사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호남 청보리 4백여명 탄생

광주 · 전남교사불자회 청소년 수계식

광주전남교사불자모임회(회장 김병철)는 11월20일 광주 정광 중·고등학교 대법당에서 4백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청소년불자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96년 이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청소년수계법회는 광주지역 청소년들에게 불교도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모범생활의 잣대로 삼아 미래의 주역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김병철 회장은 "불자청소년들에게 불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자리로 큰 의미가 있다"며 "청소년불자들이 한국불교 거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교사불자모임회가 기름진 토양이 되겠다"고 말했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좋은친구' 가을호 나와

청소년포교지 〈좋은 친구〉 가을호가 나왔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최근 〈좋은 친구〉 2호를 발간하고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배포했다. 〈좋은 친구〉 2호에는 임완숙 회장이 직접 쓴 '시(詩)'가 있는 풍경-추위에 고통받는 새'를 비롯해 간송미술관 최완수 학예실장의 '우리 문화의 향기-정양사'와 '작지만 따뜻한 이야기', 영화배우 장동건의 매력을 분석한 '스타는 내 친구' 신데렐라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은 영화 'EVER AFTER'의 이야기를 정리한 '다시 보고픈 명화, 경북교사불자회 회장 조동연 선생님의 어릴적 이야기 '선생님 어릴 적엔…' 등이 실려 있다. 02)720-0218

도필선 기자

우리 모임에선

경찰청 불교회 수계법회



경찰청불교회(회장 김남배)는 9일 정오 경찰청 법당에서 경찰불자 및 경찰가족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갖는다. 이날 경찰청 경승실장 자우스님(금강사 주지·사진)이 계사로 참석해 5계를 설한다. 02)313-0815

동산반야회 교리강좌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1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직장인을 위한 불교교리 강좌를 열고 있다. 불교의 정의, 삼보설, 연기설, 반야심경 강의 불교의범 등의 강의가 있다. 02)732-1206.

금강메아리 6돌법회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윤부윤)는 5일 운천 산정호수 녹색장원에서 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산악회 회원과 회원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날 행사는 기념법회와 친교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02)772-9517



법륜종 총무원장 법선종사 취임식

한국불교 법륜종 제5대 총무원장 지천당 법선종사 취임식이 11월 26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원로 혜안스님, 효성 전 총무원장 등 법륜종 스님들과 원택(조계종 총무부장) 운경(대한법화종 총무원장) 남정(총화종 총무원장) 스님, 서석재 국회정각회장, 이승규 종무관 등이 참석, 축하했다.



조계종 포교전문인 교육 수료식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실시한 제1차 포교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3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11월26일 회향식을 가졌다. 이번 수료식에서 35명의 스님에게 수료증이 수여됐으며 종후스님 등 3명이 공로상을, 보은스님 등 4명이 정진상을 받았다. 한편 교육에 참여한 40여명의 스님들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포교 승가회'를 결성, 11월25일 창립법회를 가졌다.



성남사암련 시민안녕 기원법회

성남불교사암총연합회(회장 우향 천은정사 주지)는 11월19일 성남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성남시민의 안녕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천은정사를 비롯 대도사, 연화사, 백련사, 화성사, 장안사등 주지스님들과 시민 5백여 명이 함께한 이날 법회에서는 각 사찰에서 모은 백미 120가마를 소년소녀 가장 및 독거노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고 위로했다. 최우진 명예기자



강화 적석사 도량정비불사 회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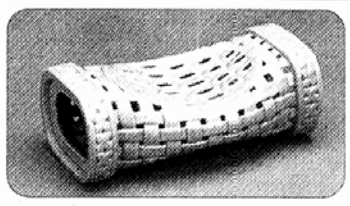
강화 적석사(주지 선암)는 11월 25일 도량정비불사 회향 및 수계식을 거행했다. 적석사는 지난 9월 '8백m에 이르는 진입로와 대웅전 앞 석축공사를 시작, 이날 회향했다. 이날 법회는 서울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봉행됐으며, 법왕사 주지 계성스님(조계종교육원 교육부장)과 김선홍 강화군수, 김상갑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전통도자기로 만들어진

옥 · 게르마늄베개

HEALTH CERAMIC PILLOW



권장소비자가격₩96,000

현대인의 건강은 바로 편안한 잠자리에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인체를 흐르는 기가 조화를 잘 이룰때를 말합니다. 기의 조화가 깨지거나 기가 부족하면 모든 질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소승은 오랜 세월동안 기공을 연구하던 중 현대인의 건강은 바로 편안한 잠자리에 있음을 알게되어 옥·게르마늄 베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먹는 산소라 불리는 게르마늄과 신비의 약리작용을 일으키는 천연옥 성분을 배합 전통도자기 형태로 만들어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다량 방사해 피로회복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해 드립니다. 특히 후두부와 어깨부분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높이와 구조로 설계되어 목부위를 편안하게 감싸주므로 아늑하고 편안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이제 옥·게르마늄 베개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도 일 합장

문의 전화 0372-344-5250 관음사
02-332-2233 신풍상사

농협 038-01-019828 예금주 안희성

의장등록출원 제 30-99-0008814호
실용신안출원 제 20-99-0006929호
KICM 원적외선 검증/ KICM 음 이 온 검증

이런 분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견통, 목통, 요통,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수험생이나 학습능력을 향상하고 싶은 분
앉아있는 상태로 장시간 근무 하시는 분
화장이 안받고 피부가 거치신 분
류마티스, 고혈압 통맥경화로 고생하시는 분

◆옥·게르마늄 베개는
한국 전통의 투각청자 형태로 빚어 외관이 수려할 뿐더러 오래 될수록 가치를 더하며 세탁을 하실 필요가 없어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제품입니다.

◆경혈점 지압효과
신경을 조율하는 경추부에 옥과 게르마늄을 돌출시켜 압자극을 해 주므로 비정상 혈압(고혈압, 저혈압)을 치유시키는 역할에 도움을 줍니다.

◆인체의 전류 밸런스 조절
게르마늄은 피부 및 혈액과 같은 반도체이므로 우리인체에 흐르고 있는 고르지 못한 전류가 축전된곳(통증이 있는 곳)에 밀착되어 방전과 함께 힘해을 측진하여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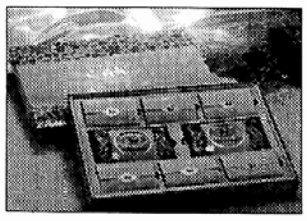
◆혈행의 정화작용
옥과 게르마늄은 우리인체의 피아조직인 혈관속으로 침투함으로서, 전자 이동 작용을 하여 혈액의 pH농도를 정상적 균형으로 전환, 혈액의 정화작용을 시켜 줍니다.

◆반도체 역할로 통증을 해소
몸속의 기 흐름을 전류의 흐름과 같이 조절하는 반도체의 역할로 피로데 의한 각종통증을 부드럽게 완화시켜 불안, 초조, 불면증을 제거하여 줍니다.

판매원 新豊商事 제조원 태운도예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이렇게 들었다

소문

"거짓말하는 입 뭇사람 괴롭혀"

현직기자와 정치인이 연루된 언론 문건사태가 명확한 실체규명에 실패해 무성한 소문만을 뒤로한채 흐지부지 꼬리를 감추고 있다. 특별검사팀에서 수사중인 옷로비 사건도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게 사직동내 사팀의 문건을 전달한 실체에 대한 갖은 소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수한 고문 기술사 이근안씨의 경우도 그를 비호한 배후세력과 관련한 소문들이 항간에 나돌고 있지만 소문만 난무할뿐 실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이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실체규명보다는 잇단 소문으로 의혹을 더하며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허술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일수록 진실보다는 소문에 더 혹하게 되는 법이다. 경전가운데 이와 관련한 가르침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악인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스스로 저를 망치며, 가르쳐서 갖가지 악을 함께 지으면서, 객적은 맡만 주로 하여 오직 중상하는 말, 거친 말, 욕하는 말, 거짓말로 서로 시샘하고 서로 다투어 착한 이를 미워하고 성자를 미워하며, 부모를 효도로 봉양하지 않고, 스승을 얕보고 친구에게 신의가 없어서 성실하기 어려우며,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존귀하고 도가 있다 하여 위엄을 부리며 횡행하고, 세력을 휘둘러 선인을 꺾으면서도 자기가 악한 짓 하는 줄 알지 못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세속의 오악중 하나다. 〈무량청정평등각경〉

▨중생들은 몸으로 악업을 이루며, 입으로 악업을 이루며, 마음으로 악업을 이루며, 성자들을 비방하여 사견과 사견업의 인연을 이루는 까닭에, 목숨이 끝나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화엄경〉

▨중생이 옛날에 많은 죄를 널리 짓고 신(身)·구(口)·의(意)의 행위에 있어서 나쁜 짓을 한 까닭에, 마지막에 목숨이 다하면 지옥 같은 악취에 떨어지는 것이며, 지옥의 보가 끝나도 여업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대해(大海) 속에 떨어져 축류의 보를 받게 된다. 〈시설론〉

▨온갖 죄는 진리 아닌 것을 말하는 입과, 내세를 배척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파리문법구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게 말하는 것이 제일이니 이는 곧 성인의 말이로다. 험담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거짓없이 진실한 말이 세번째이며, 법답지 않음을 피하는 법다운 말이 네번째니라." 이 말씀을 듣고 바기사가 일어나 게송으로 찬탄하였다. "말씀마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 또한 해치지 않는 것이 착한 말이라 할 것이요, 부드럽고 사랑스런 말로 남을 기쁘게 하며 모든 허물 짓지 않아야 한다. 〈별역잡아함경〉

▨말(좌)과 저울로 남을 속인다거나, 마음은 악하면서 말만 착한 체하여 언행이 성실치 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다. 〈분별업보경〉

▨속마음이 정직하고 겉모양이 유화(柔和)하며, 모든 사곡(邪曲)을 떠나고 진실한 행위를 지키며, 최고의 진리로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고요하고 견고해서 평등한 경지에 머문다면, 이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미증유정법경〉

▨수보리야, 불퇴전의 보살은 어느 때거나 모든 말이 내용 있고 남을 이롭게 하는 점이 있게 마련이니,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으며, 남의 미오(美惡) 장단(長短)도 살피지 않느니라. 〈불모출생경〉

▨사문이 되기는 했어도 몸과 입을 조심하지 못하여, 거칠고 나쁜 말로 중상하는 바가 많으므로 뭇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지혜있는 이가 아끼지 않으며, 죽고 나면 삼도에 윤회하여 스스로 나고 스스로 죽어 괴로움이 끝이 없다. 〈법구비유경〉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거짓말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말하는 내용이 지성(至誠)스러우며, 말이 진실하며, 전하는 바가 도리에 맞으며, 말이 시기에 적합해야 한다. 꿈 속에서라도 도에 벗어나는 일을 말하지 않고, 늘 바른 가르침의 경전을 설해야 한다. 세속의 행위에 관한 쓸데없는 일을 말하지 않으며, 이간하는 말을 떠나 저쪽의 나쁜 말을 이쪽에 전하지 않고, 이쪽의 나쁜 말을 저쪽에 말하지 않음으로써 다툼을 화해시켜 원한을 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점수일체지덕경〉

▨거친 말을 멀리 함으로써 저를 해치고 남을 해쳐서 피차 함께 해입는 일을 면하고, 좋은 말을 익힘으로써 저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남과 내가 널리 이롭도록 해야 한다. 〈대아미타경〉

▨승단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는 데 긴요한 일이 여섯가지 있다. 첫째 성실한 말, 둘째 성실하고 친절한 행위, 셋째 성실성과 동정심, 넷째 공유재산을 평등하게 이용하기, 다섯째 순결한 마음으로 같은 계율 따르기, 여섯째 사물을 모두 바르게 보는 일이다. 이 여섯가지 중에서 다섯가지는 주변조건이다. 〈팔리, 율장대품〉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긴 부리를 늘려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서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염치있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을 겪을지언정, 義를 취해 청백하며 부끄러움을 피해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모름지기 스스로 결단하여 몸을 바르게 지니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며, 여러 善을 더욱 많이 짓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닦고 몸을 깨끗이 하여 마음의 때를 씻어내며, 언행이 진실하여 겉과 속이 어울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아미타경〉

목탁소리

위 영 란〈뉴미디어부장〉

불교TV이사회는 허문도 사장을 11월24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결의로 해임했다. 허씨의 해임은 불교 언론기관에서 사장 해임의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불교 공익 공공단체의 지도자 자격 요건을 새삼 일깨워 주는 교훈을 남겼다. 허 전사장의 영입때 제기됐던 숱한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성원에 신경전을 벌인 허씨는 동화사 주지 성덕스님과 전 주지 무공스님, 법상종 총무원장 법륜스님에게 "진짜 등기 이사 맞아요?"라며 회의테이블 면전에서 확인하는등 무례한 질문도 서슴지 않았다. 또 해임결의를 안건에 부의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목을 치는게 불교집안이냐, 칼질해요, 난 당할테니까"라고 소리지르면서 회의장을 떠났다. "종교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다"는 그의 말대로 불자로서의 기본조차 알지 못하는 행동이었다. 과연 그가 장관을 지낸 수준의 관단력을 가진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했다.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대목이었다.

허사장 해임의 교훈

허씨를 해임한 이사회서 나온 이사들의 '왜 해임이어야 하는가'를 논의한 내용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불교TV 초대 사장으로 대표회장인 태응스님은 "투자자도 주주도 아닌 불교TV와는 무관한 허장관을 영입한데는 화주보살로서의 능력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정치도 그만두고 해보겠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30억원의 주식도 무상기증해 달라기에 인계했건만, 지금까지 고스란히 그대로 있다니 이제 다시 회수하겠다. 그리고 내가 뛰어다니면서 팔겠다"고 말했다. 총지종 총지화 통리원장은 "오직 불교TV만 산다면 하는 마음으로 영입에 동의했다.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배려도 할만큼 했다. 지금 불교TV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허씨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는 불교일은 신심있는 불자가 순수한 포교와 불교권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한 중요한 회의였다.

"무소유의 삶은 새처럼 자유롭지요"



20여년간 누더기 한벌만 걸치고 퀼른대학 근처 숲에서 살며 불법을 실천하고 있는 독일의 거지성자 페트 노이아르(60세). 그는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유통기간이 지난 시든 채소와 흑빵으로 연명하면서도 동서양의 사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대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를 일컬어 '세기를 관통하는 무소유 정신의 실천자'로 묘사한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의 초청으로 11월16일 한국에 온 페트 노이아르는 지난 해 국내에 발간돼 인문과학서로는 드물게 1만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거지성자〉(선재 刊)의 실제 주인공이다.

그는 독일내 태국, 티벳, 스리랑카, 중국의 사원에 갔지만 관념화 형식화된 사찰의 모습을 보고는 홀로 부처님법에 따라 수행을 하며 불법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당분간 한국에 머물기로 한 페트 노이아르를 영등포 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회장의 서재에서 만나 그의 사상과 수행 그리고 불교적 세계관을 들어봤다.

'독일의 거지성자' 페트 노이아르 방한 인터뷰

-왜 집없이 숲의 나무 밑에 살고 있는가?

▲무소유의 삶은 새처럼 자유롭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무소유를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숲으로 들어가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고 허물어진 빈 집에서 명상을 하셨다. 대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근원으로 돌아가려다 보니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리게 됐고, 자연스럽게 나무 밑에서 잠자며 탁발하는 생활을 하게 됐다.

계율 안지켜서 승단분열

-기성종단의 생활과 위배되는 것 아닌가?

▲종교가 조직화되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을 말씀하셨다. 즉 가르침만을 유일한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계율을 지키지 못해 승단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계율만 지키면 분열과 혼란은 저절로 사라진다. 또 싸움은 무아사상을 이해하지 못해서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없는데 누가 싸움을 하는지 찾아봐야 한다. 예고에서 나오는 분쟁의 마음은 삼법인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면 해결된다.

-기성승단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부처님은 승가에 어떤 계급이나 서열을 정해주지 않았다. 제자와 문중을 만들게 하지 않았다. 또 승가내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인 자자와 포살을 보름마다 시행하도록 했다. 부처님은 그러한 모임을 통해 제자들이 법을 상기하고 가장 겸손하게 반성하도록 했다. 수행자는 권력과 부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질된다.

-어떻게 해서 부처님가르침에 따르게 됐는가?

▲인도 관련 서적을 접하면서 부터다. 그리고 티벳라마가 인도의 고아를 만나 깨달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노벨상을 받은 키필링의 〈킴〉이라는 책을 15번쯤 본 것이 불교에 입문하는 계기가 됐다. 인도 보드가야에 갔을 때 버마승려가 '부처님은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부처님 경지는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말한 것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 처음에는 〈벽암록〉 등 선불교를 공부하고 영국의 선공동체에도 들어갔는데 가르침과 실천이 부조화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초기불교에 들어가 부처님이 실천한 것을 따르게 됐다.

성자들의 가르침은 같아

-종교를 보는 눈이 넓은 것 같다.

▲부처님과 위대한 성자들의 삶과 가르침을 보면 동일하다. 종교들은 욕망이라는 자신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욕망에 패배한다. 부처님께서 오욕을 이기라고 말씀한 것이 그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충분하지 않는 분야를 알고자 한다면 다른 종교의 가르침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불교가 특히 위대한 점은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이 설한 진리의 세계는 분명하고 깨끗한 가르침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25세기나 30세기 인류가 돼야 받아들일 수 있는 미래적인 사상이라고 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아름답다. 또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달리 예언을 배격하고 세월이 변해도 수정처럼 맑은, 변치 않는 진리를 설하셨다. 부처님 법에는 지혜로 인간의 우매함을 걷어낼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이 담겨 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의사

-깨달음의 추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다. 최종 목표는 깨달음이다. 부처가 되려는 욕심이 있으면 부처가 될 수 없다. 단지 수행을 오래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 과학문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의사이다. 어려운 난제들도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절로 해결된다. 서양에서는 물질문명이 발달하여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터전을 잃어버렸다. 부처님의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사상과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법이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실천이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보는가?

▲자연이나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일을 해야 한다. 살아가는 것은 간단하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한다. 5계를 지켜 인간정신이 올바로 서야 한다. 사소한 관찰을 함으로써 진실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거짓을 고쳐나갈 때 부끄러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마음이 따뜻하면 혼탁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인곡(麟谷) 대선사의
法語集을 발간합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계시는
제방의 원로대덕 큰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제위 여러분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해인사 원당암에서는
백용성 큰스님의 법제자 中
한 분이신 인곡(麟谷)대선사의
法語集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인곡스님의 법문, 사진, 유물등
관련자료를 소장하고 계시는 분,
또는 평소 인곡스님에 관한 일화를
알고 계시는 분께서는 12월 7일까지
해인사 원당암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곡 대선사 약력

· 1895년 출생
· 백양사에 출가 득도
· 운문선원 조실(30세)
· 가야총림(해인사)에 주석
· 1961년 해인사에서 입적

연락처

기간 : 1999년 11월 27일 ~ 12월 7일(1차)
주소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해인사 원당암
전화 : 0599-932-7308, 011-9575-7308
팩스 : 0599-931-7515

불교성지순례에도 배낭여행 전문여행사

아제여행사 가 있습니다.

삼보귀의하옵고, 아제여행사 새로운 출발을 스님이하 불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아제여행사는 "체험하는 순례", "깊이가 있는 순례"를 추구하며 불교배낭여행 전문여행사로 시작했습니다.
인도, 네팔, 스리랑카, 중국, 티벳, 미얀마 등 불교국가를 주력하여 개인배낭여행, 단체배낭여행, 대학과 강원 졸업여행 등에 행사진행, 정보제공, 세계 모든 국가로 저렴한 항공권 판매, 비자대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순례속에서 법열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아제여행사 대표 구광국 합장

소승불교의 본산지 스리랑카 배낭여행 9일 (12월 8일~12월 16일) ₩750,000
◆일정 - 고대불교유적지, 세계최고 보리수 친견, 정글사파리, 하키두와해변
◆포함내역 - 항공, 보험료, 한국어가이드(그외 불포함) ★16명 이상시 출발

인도성지배낭여행 12일(12월 23일~1월 3일) ₩1,040,000
◆일정- 기원정사, 룸비니, 영취산, 녹야원, 쿠시나가르, 타지 마할, 갠지스강
◆포함내역 - 항공, 보험료, 인도비자, 한국어 가이드(그외 불포함) ★16명 이상시 출발

인도문화탐방 배낭여행 16일(1월 6일~1월 21일) ₩1,060,000
◆일정 - 타지마할, 오차, 카쥬라호, 갠지스강, 자이푸르, 부다가야
◆포함내역 -항공, 보험료, 인도·네팔 비자, 공항세, 한국어 가이드(그외 불포함)

인도 성도재일 철야기도 준 배낭여행 13일(1월 9일~1월 21일) ₩1,500,000
◆일정 - 기원정사, 룸비니, 영취산, 녹야원, 쿠시나가르, 타지 마할, 갠지스강, 아잔타·엘로라석굴
◆포함내역 - 항공, 보험료, 인도·네팔비자, 공항세, 한국어 가이드(그외 불포함)

불탑의 나라 미얀마6일(12월 23~28일, 3월 1일~6일) ₩1,590,000
◆일정 - 까비예파고다, 고대도시 파간, 부처님 다녀가신 만달레이
◆포함내역 - 항공, 보험료, 비자, 한국어 가이드, 공항세

체험하는 순례 아제여행사 ☎ 02)783-1458, 0602 인터넷주소 : Http//www.aje.co.kr E-mail : aje@aje.co.kr

"북한산은 성보박물관"

조계종 문화부 유적등 정밀조사
'북한산 불적' 이달중 발간예정

서울 시민의 휴식처로만 생각하기 쉬운 북한산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노천의 성보박물관이라 해도 좋을 불교 성지임을 알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북한산 전역에 산재해 있는 불교유적을 조사해 온 조계종 총무원이 12월 초순 〈북한산 불적〉(가칭)을 발간하고, 1600여년의 불교사를 간직한 북한산의 역사를 현실로 끌어낼 예정이다.

조계종 문화부가 5월부터 9월까지 삼천사, 부왕사, 진관사, 진국사등 북한산에 소재한 폐사지 11곳에 대한 실측·정밀조사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북한산 불교유적·유물에 대한 최초의 자료집이다. 또 조계종 문화부의 자체 지표조사와 발굴 능력을 검증하는 첫 사업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북한산에 소재한 사찰들을 가장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선능 스님의 〈북한지〉에 따르면, 북한산성이 축조되면서 산성을 지키기 위해 21개 사찰들이 중수·건립됐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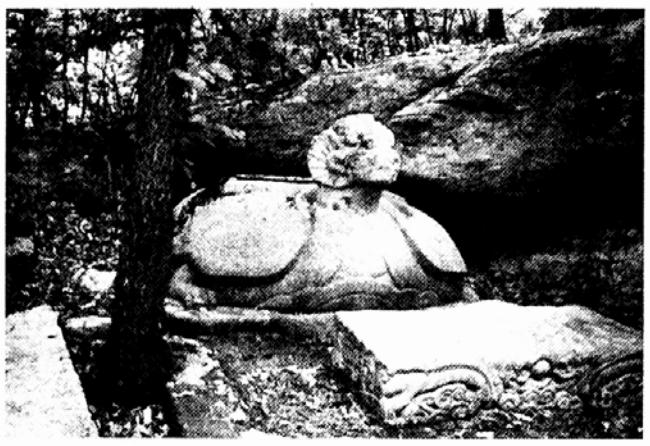
그러나 국녕사, 상운사, 노적사, 태고사, 진관사, 승가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찰들은 현재 폐사지로 남아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 기념물 제136호로 지정된 중흥사지만이 유일하게 복원·관리되고 있을뿐,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

북한산 불적의 역사와 지리를 고증사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게 가장 큰 특징인 이 보고서에는 폐사지 중에서 부왕사, 삼천사, 봉정암 등 관리가 시급한 폐사지 11곳의 유적과 유물을 집중 조사한 내용을 싣고 있다.

여기에는 거란족의 침입 때 개성 송악산에 있던 태조 왕건의 관을 옮겨와 안치했다는 향림사, 고려시대 3천여명의 스님들이 거처하였다는 삼천사, 북한산성 수리와 관리를 전담했던 승군이 수행하던 부왕사 등 불교유적의 위치와 연혁 뿐만 아니라 폐사지와 관련된 역사와 인물에 대한 고증을 덧붙이고 있어, 당시의 불교유적을 생생히 그려낼 수 있게 한다.

또 정재훈(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단장) 김창균(문화재청 상임전문위원) 정병삼(숙명여대 한국사학과 교수) 등이 논문을 수록해, 〈북한지〉에 누락되었거나 이 책 이후에 찬술된 비문, 기문, 시문 등을 지지, 문집 등에서 새로이 채집 보충해 놓아 학술서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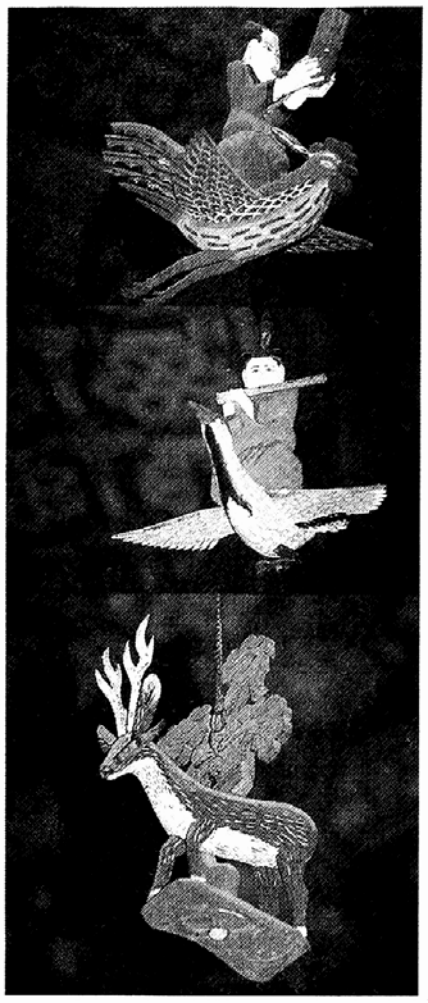
"북한산에 있는 수많은 불교유적지와 그 유물들이 폐허화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는 조계종 문화부 손영무 연구원은 "이번 조사가 북한산의 각종 불교유산들을 복원·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산 증취봉 기슭 삼천사 터의 고려시대 대지국사 탑비의 귀부와 가첨석. 사라진 비신은 너비 120cm 두께 30cm 높이 250cm로 추정된다.

또 이 보고서는 "진국사등 5개 사찰을 창건하고 북한산성의 축성과 수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성능스님의 사적비를 스님이 주석했던 중흥사터에 건립해야 한다"는 과제와, 북한산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불자들의 몫으로 남겨 놓는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전남 장성군 백양사 대웅전(지방유형문화재 43호) 대들보위에 모빌처럼 달려있는 학·사슴·봉황.

묵필의 단순미학 보기

정정웅 '수묵채색화전'

7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서호



◇정정웅씨의 '황혼'

사물의 외관과 본질을 구분하는 분별심을 허문 경계를 체험케 하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나무는 나무대로 학은 학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머물며 조화를 이룬 세계를 담은 정정웅씨의 채색수묵화 작품전이 1일부터 7일까지 갤러리 서호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범어사에서 입적한 광덕스님의 추모행렬 뒷모습을 절제된 선으로 형상화한 '황혼', 앉은 채 열반한 방한암 스님을 옮긴 '좌탈' 등 정씨가 부산에서 과수원을 일구며 제작한 작품 40여점이 선보인다.

사물의 재현보다는 오히려 추상화된 선묘의 방식으로 예술세계를 가꾸고 있는 정씨의 수묵화는 내면의 풍경 그 자체이다. 그 내면의 풍경조차도 개인에게 국한된 사사로운 풍경이 아니라 한 인간이 한 세계를 품는 과정으로서의, 과정의 결과로서의 풍경이다.

이번 전시회에 내놓은 작품들의 한 특징은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도가 있으되 구도가 없고, 원근이 없으면서 원근이 있는 무위의 필행이 어떤 작품보다도 선(禪)적인 느낌을 갖게 하고, 묵필의 단순미학은 선승의 문인화를 보는 듯하다. 정정웅 씨는 78년 한국 남화의 대가 옥산(沃山) 화백에게 수묵화를 배우고, 여백의 묘와 외형의 과감한 생략법을 통하여 창출하는 작품세계를 열어가고 있다.(02)723-1864

사진으로 보는 사찰의 美

박보화 사진집 사찰 36곳 소개

일상에 지쳐 있는 도시인들이 삶의 고단함을 훌훌 털어내고, 늦가을의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사찰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닐까.

사진작가 박보화씨의 〈산사의 미를 찾아서〉(다른세상)는 박씨가 20년 가까이 전국의 유명한 사찰 36곳을 찾아다니며, 작은 연꽃 조각부터 저녁노을의 기운이 비치는 문창살의 신비함, 행자의 웃음에 이르기까지 산사가 품고 있는 정(靜)과 동(動)'을 사진으로 담아낸 책이다.

'3백여장의 사진과 해설이 곁들여져 있어 산사의 아름다움을 알뜰히 살피게 할 뿐 아니라,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숨겨진 곳에 담겨 있는 사찰의 '미학'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각 사찰의 역사와 건축양식에 나타난 특징, 석탑과 범종에 깃든 종교적 의미도 상세히 기술했다.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영장리 고령산에 자리하고 있는 보광사의 목어와 대웅전을 비롯해 충남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심왕산에 있는 개심사의 소나무 숲길, 충북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월악산 기슭에 위치한 신륵사의 삼층석탑, 전남 순천시 승주읍 조계산 등쪽에 있는 선암사의 정원, 경북 영주시 부석면 봉황산 중턱에 있는 부석사 석등과 노을 등 산사의 주요 감상 포인트를 생생히 보여 준다.

20여년동안 전국의 사찰을 찾아 다녔다는 박씨는 "산사를 찾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탐하지 말고 없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야만 산사가 품고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에 눈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한다.

가릉빈가 어린이 합창단 15일 창단 연주회

수원지역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불교문화를 심어주기 위해 창립된 수원포교당의 가릉빈가소년소녀합창단(단장 유익상)이 15일 오후 7시 수원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창단 연주회를 갖는다.

1부에서는 '아름다운 우리 절 재미있는 법문'이라는 주제로 '이 작은 생명을' '보시하는 마음' '부처님이 계신 나라' '색종이 마을' 등 8곡의 합창곡을 선보이며, 2부에서는 '함께하는 음악회'라는 주제로 '찔레꽃' 'tonight' '연날리기' 등 11곡의 다양한 곡들이 연주될 예정이다. 또 가릉빈가어머니합창단, 테너 손형승씨, 국악인 박애리씨 등이 특별 출연한다.

창단공연을 앞두고 어린이들의 발성훈련에 주력했다는 가릉빈가합창단 유익상 단장은 "공연 이후 권위있는 합창콩쿨에서 바른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며 "선명회나 리틀엔젤스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팀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미 가릉빈가합창단은 수원시 주최로 오는 13일 열리는 밀레니엄 행사에 초청을 받았고, 내년중에 해외공연도 할 계획이다.



◇55명의 새싹불자들로 구성된 가릉빈가어린이합창단이 5월19일 불교인권문화제에서 연주하는 모습. 이날 합창단은 공식적인 창단 전이었으나 대중가수 송시현 등 유명 가수보다 많은 박수를 받았다.

'안계사' 명문적힌 기와 발견

위덕대 박물관 경주 안계리사지 조사

석조여래좌상(경상북도 문화재자료 92호)과 석탑부재만 남아 있는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안계리사지에서 고려시대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계사(安溪寺)라는 명문기와가 발견돼 불교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위덕대학교 박물관 발굴조사단(단장 김무생)은 22일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확인되지 않은 채 구전으로만 전해져 오던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절터에서 '安溪寺(안계사)'라고 찍힌 기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기와의 크기는 길이 23.5cm, 폭 13cm, 두께 2.5cm로 옅은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명문은 해서체로 양각돼 있다.

김단장은 "이 절터에 있는 석조여래좌상과 석탑부재의 뛰어난 조각수법으로 볼때 8세기 주요 사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안계사는 신라시대인 8세기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으며, 높이 150cm의 석조여래좌상과 석탑부재 등이 남아 있으나 지금까지 절 이름을 확인할 수 없어 동명을 본따 안계사 터로 불려왔다.

사찰·신행단체·계모임 등에서 떠나시는 해외성지순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외여행업허가번호 42-109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미얀마·태국·스리랑카 성지순례 11일 ₩2,334,000

출발일 - 1월 14일 (선착순 20명 모집)

방콕-양곤-바간-만달라이-양곤-방콕-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폴론나루와-시기르아-댐불라-캔디-콜롬보-방콕 (총 24개 성지탐방)

그 나라만 생각하여도 마음이 설레이는 미얀마와 스리랑카……. 우리는 미얀마에서 높이 99.2m의 황금대탑이 있는 쉐다곤파고다, 위빠사나 명상의 산실인 마하시 수도원, 2500여 개의 불탑과 사원이 남아 있는 파간의 아난다 사원, 세계 최대의 120m 와불을 모신 보디따다웅파고다, 크고 작은 불상 58만불을 모신 딴보디파고다 등 총 15개 성지를 순례합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아쇼카왕의 아들인 마힌다 왕자가 심었다는 보리수를 비롯하여 아누라다푸라 대정사,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뽀로나워 와불상과 세계 10대 불상 중 하나인 아우가나 입불상, 시기르야에 있는 석굴사원의 부처님들과 아름다운 벽화,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다는 불족봉(佛足峯), 스리랑카 최대의 사찰인 불치사(佛齒寺) 등 10여 곳의 성지를 탐방합니다.

때묻지 않은 이들 나라에서 정말 감동적인 순례가 되리라 자신하면서, 감히 이 성지순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청하여 봅니다.

중국 북경 성지순례 5일 ₩680,000

출발일 - 12월 22일 (선착순 20명 모집)

벽운사·외불사·법해사·운거사·법원사·대종사·법운사 등 북경의 고찰 순례와 만리장성·이화원·자금성 등 관광

북경은 원·명·청나라의 왕도답게 대단한 사찰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코 놓칠 수 없는 다음 8곳 사찰을 순례 코스로 정하였습니다. 5백 나한과 5불탑이 유명한 벽운사, 열반상이 모셔진 와불사, 수월관음을 비롯하여 중국 제일의 벽화가 법당에 가득 차 있는 법해사, 방산석경으로 유명한 운거사, 천불석주가 여럿 있는 신비의 동굴 뇌음동, 천불좌대여래상 및 각종 석불이 모셔진 법원사, 2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종과 수많은 종들을 접할 수 있는 대종사, 10m가 넘는 나무로 조성한 미륵대불이 모셔진 옹화궁 등을 참배합니다. 그리고 북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만리장성·이화원·자금성과 골동품 거리로 유명한 유리창도 찾아갑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번 특별순례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감동과 신행·품격이 있는 성지순례! 저희 善哉여행사와 함께 하십시오.

인도 성지순례 9일 ₩1,900,000

출발일 - 1월 23일

델리 - 아그라 - 기원정사 - 룸비니 - 쿠시나가르 - 바이살리 - 나란다 - 라지기르 - 보드가야 - 사르나트 - 바라나시 - 델리 (특급호텔이용)

인도·네팔 성지순례 16일 ₩2,780,000

출발일 - 1월 11일

불교 8대성지, 산치대탑·아잔타·엘로라석굴 및 히말라야 일출 카트만두·포카라 등 네팔 주요 성지 탐방 및 주요 불교성지 총망라

인도·네팔·태국 성지순례 12일 ₩2,100,000

출발일 - 2월 21일

방콕-카트만두-나가르코트 일출-룸비니-기원정사-쿠시나가르-바이살리-나란다-라지기르-보드가야-사르나트-바라나시-카쥬라호-아그라-델리

중국 상해·보타산·항주·소주 6일 ₩920,000

출발일 - 1월 4일

상해 옥불사·용화사-관음성지 보타산-영파 아육왕사·천동사-항주 서호십경·영은사·비래봉 석불동굴-소주 한산사·호구·졸정원-상해

◈ 출발조건 : 국제선 항공료, 현지 국내선 항공료, 호텔, 현지차량, 식사, 현지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공항세, 관광세, 1억원 보상한도 보험료, 각국 비자비 포함(단, 여권인지대는 별도), 선택관광 및 팁은 일체 없습니다.

善哉! 좋고 또 좋구나, 좋은 것 뿐이로다. 불교신행연구원 선재여행사 전화 : 02-582-6647~9 · 팩스 : 02-586-9078

새로나온 책



▲불자로 태어나라(이동성 지음)= 신행을 오래했지만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을 위한 교육지침서. 20여 년간 포교의 현장에서 활동한 이동성(제천 장엄사 포교원장)씨가 펴낸 이 책은 불교교리와 교육체계를 불성개발훈련에 맞춰 '현대인의 고통과 불교'를 시작으로 '불자가 되는 길' '사찰의 전각과 불보살의 의미' '보살의 삶과 인생의 회향' 까지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우서적 刊. 값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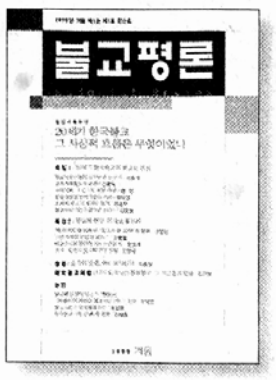
▲진리의 당체인 부처님(안영일 편저)= 초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불교교리만을 엮은 책.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에서부터 경전의 결집과 교설, 종단(파)의 성립, 한국·인도·중국의 불교역사, 〈묘법연화경〉의 진실 등이 수록돼 있다. 22년간 천태종 신도로서 신행해 온 안영일씨(부산 삼광사 신도회장)가 엮은 이 책은 현태사상, 상월스님 일생, 구인사 소개를 비롯 불교인 연담과 수행이야기도 곁들이고 있다. 여래 刊. 값 8천원.



▲무염국사(한정섭 지음)=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성주산문을 개산한 무염국사(801~888)의 재가 및 출가생활에서부터 중국 유학, 포교와 불사 등의 행장을 적고 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충남 보령에 위치한 성주사지 무염국사의 비문을 해석한 것이다. 저자는 "최치원의 비문과 무염선사 비문을 중심으로 무염국사의 선사상과 행징을 올바르게 조명하기 위해 집필했다"고 말했다. 불교통신교육원 刊. 값 8천원.



▲불가기공(영우스님)= 기운을 모으는 동작이나 행위없이도 기운이 나오는 근원을 마음으로 보는 불가기공(佛家氣功)의 특징과 수련에 대해 설명한 책이다. 기초단계에서 중급단계까지, 그리고 활용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 익힐 수 있도록 풍부한 그림과 사진을 곁들여 이해를 돕고 있다. 1부 '안심을 통한 안심법'을 시작으로 불가기공 수련의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기까지 모두 6부로 구성돼 있다. 하남 刊. 값 1만5천원.



불교평론

불교 비평 문화의 고급화시대가 열리는가. 교계 비평 문화의 부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불교 제문제의 전위적 비평을 표방한 계간 〈불교평론〉(발행인 정휴스님) 창간호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불교평론〉은 불교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정치·사회현상을 불교적 시각으로 분석·비판·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불교학을 비롯 문화·사상에 대한 치열한 논쟁 문화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교평론〉 창간과 관련 교계 일각에서는 '거대한 담론이 열리는 서장' '불교사상가 배출의 요람' 등으로 평가하고, 불교 비평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불교평론〉 창간은 불교의 새 지평을 여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여느 잡지의 창간보다 더욱 의미깊게 평가되고 있다.

■계간 '불교평론' 창간호 나왔다

불교 비평문화의 열린마당 '기대'

〈불교평론〉은 창간 권두언에서 활발한 비평문화를 통한 불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새로운 시대의 불교는 과거의 권위에 억압받지 않는 비판정신과 도전 정신에 의해 열려져 나갈 것이다. 세계가 불교를 향해 끊임없이 던져오는 새로운 질문에 응답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한 논쟁을 거쳐 정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는 창간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불교평론〉 창간호에는 '20세기와 21세기를 잇는 현 시점에서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논제로 다양하고 활발한 논쟁의 장을 열고 있다.

좌담 '20세기 한국불교, 그 사상적 흐름은 무엇인가'와 특집으로 다룬 '20세기 한국불교의 회고와 반성' '불교학 연구 이대로 좋은가'는 〈불교평론〉의 색깔을 대변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종범스님을 비롯 동국대 정병조·이봉춘교수, 서울대 최병헌 교수가 벌인 기획좌담에서는 20세기 100년간 한국불교의 사상적 흐름과 정체성을 일제 강점기, 45년 이후 해방공간, 54년부터 62년까지 불교정화운동, 70년대 불교의 현대화, 80년대 민중불교운동, 90년대 돈점논쟁 등 시대적으로 나누어 진단하고 있다. 특집기사 가운데 특별히 눈길을 끄는 글은 토론과 논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계의 토론부재 현상을 꼬집은 '논쟁 부재와 긴장된 글쓰기'와 한국불교학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한 경전중심의 불교학 연구를 강조한 '영국·일본의 불교학 연구동향' 등이다.

또 승가의 유래와 정신, 교단으로서의 승가, 승보로서의 승가를 쟁점으로 다룬 '승가의 범위, 어디까지인가'와, 불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윤리학자 키온의 주장을 비판한 '불교에 인권이 있는가'도 읽어볼 만한다. 이밖에도 '시민정치의 확대와 불교시민운동의 전망' '불교사상과 국제평화주의' '한국현대시의 선(禪)적 경향', '불교에서 보는 철학, 철학에서 보는 불교' 등은 현대불교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불교사상 현대적 고찰
역사·정치·사회현상
불교적 시각으로 재해석

〈불교평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30부터 50대까지의 불교학 연구자 및 불교활동가들을 필자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 제문제에 대한 논쟁을 소장학자들이 결집으로써 향후 불교사상가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출판사의 복안이다.

한국불교 역사속에서 왜곡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지를 낱낱히 밝히고 바로잡기 위한 비평지로 출발한 〈불교평론〉. 생산적 논쟁의 장으로 발전하여 한국불교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절망과 희망사이에 선 인간상

정찬주 소설집 '김룡사에서 나비를 보다'

작가 정찬주씨가 처음으로 창작집 〈김룡사에서 나비를 보다〉(해들누리 刊)를 내놓았다. 사실을 기초로 한 일종의 '다큐소설'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아픔을 나누겠다는 것이 창작의도다.

표제작인 중편 〈김룡사에서 나비를 보다〉는 부도 직전의 중소기업 출판사 사장인 주인공 강헌이 은행의 약속어음을 막지 못하고 쇠고랑이냐, 죽음이냐 갈림길에서 어머니의 체취가 스며있는 김룡사를 찾는 것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김룡사를 찾아온 객들과의 생활과 주지스님과의 만남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가족의 인연을 끊고 출가한 아버지 법성스님을 찾게 한다. 그러나 아버지 법성스님은 "김룡사가 할 이야기를 다했다"며 발길을 돌린다. 절망의 끝에 선 주인공은 그순간, 지친 날개를 접고 부처님 이마에 내려앉아 쉬고 있는 나비를 통해 자신이 헛꿈에 취해 살아왔음을 깨닫게 된다.

이 소설은 모두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헛꿈을 버리는 작은 깨달음이 있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작가는 "작은 깨달음도 헛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해탈이다"며 "가열찬 번뇌가 삶의 힘이 된다"고 말한다.

표제작 〈김룡사에서 나비를 보다〉가 일주문 밖 저잣거리의 삶을 다루고 있다면 또다른 중편 〈월인천강지곡〉은 일주문 안의 이야기이다.

단편 〈포옹〉은 80년 광주항쟁 때 책수금을 하러 갔다가 진압군에게 잡힌 주인공이 중국집 딸의 도움으로 살아나 그녀와 결혼, 벌거, 재결합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값 7천원.

"효봉스님 판사출신 아니다"

혜봉스님 '종정열전'서 주장



근현대 불교사를 표상하는 역대 종정스님의 행장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새롭게 조명한 〈종정열전〉(전 2권·가람기획 刊)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불교전기학을 연구하고 있는 혜봉스님(이천 지족암)은 이 책을 통해 일제시대 조선인 최초로 판사를 지내다가 출가한 것으로 알려진 효봉스님의 이력이 허구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판사의 기록이 총망라돼 있는 '조선총독부 직원록'과 '한국법관사' 등의 관련문헌을 조사한 결과 효봉스님(1888-1966)의 속명인 이찬형이 판사였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

이와 함께 혜봉스님은 좌탈로 유명한 한암스님에 관한 새로운 사실 3가지를 제기했다. 출가 연도가 탄허스님의 한암비문에 기록된 21세가 아닌 9세이다. 2차대전 막바지에 이케다 경무국장이 한암스님에게 '전쟁의 승패'를 물었다는 〈한암집〉 〈한암일발록〉 등의 기록은 이케다 재임기간으로 볼 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것이다. 27년간 오대산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불출동구(不出洞口)의 설 또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방후 조계종의 종정예우가 정연하지 못함도 지적했다. 효봉스님을 통합 종단의 초대종정으로 인정하면서 광복 직후의 박한영스님과 정화후 동산·석우스님 등을 종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혜봉스님은 한영(1945.9)→한암(1948.6)→만암(1951.6)→동산(1954.11)→석우(1955.8)→효봉(1958.4)→동산(1958.8)→효봉(1962.4)→청담(1966.11)→고암(1967.7)→서옹(1974.8)→성철(1981.1)→서암(1993.11)→월하(1994.5)→혜암(1999.4)스님 순으로 기록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책의 또다른 성과는 그동안 묻혀 있었던 고승의 행장을 최초로 밝혀냈다는 것. 일제종 종정 경운스님과 환응·동선·해담·용허스님 등에 관한 행장을 당시 잡지와 관련서적을 뒤지고 행적을 일일이 찾아 밝혀냈다.

종정열전 1권 〈그 누가 큰 꿈을 깨었나〉는 해방 직후 한영스님으로부터 만암, 석우, 동산, 효봉, 청담, 고암, 서옹, 성철, 서암, 월하 등을 거쳐 혜암스님에 이르는 종정 12명의 행장을 담고 있다. 2권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처럼〉은 원종의 초대종정을 지낸 회광스님을 비롯 경운, 환응, 동선, 해담, 용허, 혜월, 만공, 한암스님 등 9명의 일제시대 고승의 전기를 실었다. 값 1권 1만1천원, 2권 9천원.

화제의 책

대도무문 | 정태혁 지음

선승들 공안 27가지 자세히 풀어



화두를 중심으로 선의 세계를 살핀 〈대도무문〉(불교춘추사 刊)이 나왔다.

정태혁 동국대 명예교수가 펴낸 이 책에는 〈벽암록〉의 대표적 공안 '확연무성(廓然無聖)'과 〈무문관〉의 '조주구자(趙州狗子)'를 시작으로 선승들의 공안 27가지를 풀이하고 있다. 우리 나라 선승의 공안도 다루고 있어 흥미롭다. 태고 보우국사의 '파전수후(波前水後-조주는 물결 앞, 물 뒤에 있다)'가 바로 그것. 우리의 선은 우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저자는 "이 책을 계기로 우리의 얼굴을 한 우리의 불교, 우리 선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참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값 8천원.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법 | 진현종 지음

禪이야기 속에 담긴 지혜로운 삶



세상은 변하고 있다. 이젠 컴퓨터 게임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거나,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 몰라 막막해한다.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참모습과 세상을 살아가는 참지혜를 들려주는 〈네글자에 담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법〉(책이있는마을 刊)이 나왔다. 불립문자, 이심전심, 인과응보를 비롯 모두 88가지 선이야기 속에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엮은이 진현종씨는 "선어의 사전적 설명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옛 선사들의 가르침과 참뜻을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값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2	금강경 강해	도 올	통 나 무
3	풍경	원 성	이 레
4	원효어록 100선	이 영 일	불교춘추사
5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6	나는 아직도 스님이…	최 인 호	여 백
7	달라이라마 예수를 말하다	류 시 화	나무심는사람
8	방편개시	대 성	여시아문
9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 장	우 리
10	무소유(개정판)	법 정	범 우 사

도서 안내:(02)737-0695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선(禪) 302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어떻게' 도업(道業)을 이룰 것인가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종일관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허운 스님의
방편개시
方便開示

도업은 이루기 어려운데,
처음 출가했을 때는 도심(道心)이 좋았으나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출가 1년에는 부처님이 눈앞에 있고,
출가 2년에는 부처님이 서천(西天)에 있으며,
출가 3년에는 부처님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한 것입니다.
도심이 오래가지 않으면 도업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슬 같은 도심으로 어떻게 생사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 본문 중에서

허운 스님은 누구인가?

허운(虛雲)스님은 1840년에 중국의 복건(福建) 천주(泉州)에서 태어나
1959년 세수 120세 승랍 101세로 운거산에서 입적하였다.
청말(淸末) 이후 쇠미해진 중국 불교를 다시 일으킨 고승으로 추앙받는 허운 스님은,
19세에 출가하여 30대부터 여러 곳을 두루 돌며 참학하다가
43세 때 3보 1배(三步一拜)로 오대산을 참배한 뒤,
티베트,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의 불교 성지를
순력하였고, 56세 때 찻잔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에
문득 깨쳤다 한다.
특히 스님은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의 억압하에서도
불법을 수호하고 사찰의 파괴를 막았으며,
수십 개의 가람을 복원하였다.



허운 스님 지음 / 대성 스님 옮김
B6 변형 330쪽 / 값 6,000원

"종말론, 비관적 역사관의 한 담론"

고영섭씨 '세계종말과 새 시대' 학술회의서 주장


◇고영섭

새 천년을 앞두고 기상이변 등 재난에 대한 불안증후군, 환경 오염 및 생태계 교란, Y2K문제, 예측 불가능한 경제상황 등 불길한 징조로 인한 종말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불교적 시각에서 종말론과 말법론을 재고한 논문이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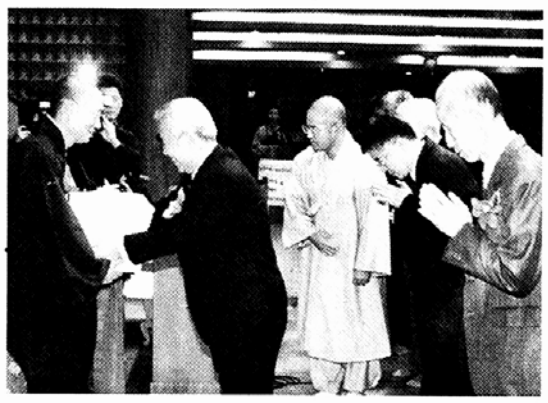
민족학연구소와 한국민족학회 공동주최로 11월19일 한양대에서 '세계 종말과 새 시대'를 주제로 개최된 '99 연례 국제 학술대회에서 고영섭씨(동국대 불교학과 강사)는 불교의 시간관을 통해 '불교의 말법론(末法論)'을 조망했다.

고영섭씨는 '불교의 말법론' 주제발표에서 "종말론은 '시작'과 '끝'을 실체화함으로써 생겨난 병폐다"며 "'제행무상(諸行無常 모든 것은 변화한다)'으로 설명되는 불교의 무상적 시간관에서 볼 때 종말론과 불교의 말법론(末法論)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논의된 '비관적 역사관의 한 담론'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간은 존재하는 사물의 변화에 따라 인식되는 것일 뿐 존재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무상적 시간론)라는 것이다.

고영섭씨는 이러한 맥락에서 불교인의 비관적 역사관인 삼시론(三時論)을 설명하고 삼시론이 불교 교단 안팎에서 자행된 폐불과 훼불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형성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역사관에서 비롯됐다고 정의했다. 삼시론은 ▲정법시 : 불교의 황금시대.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에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입각한 수행자와 그 수행을 통한 깨달음이 엄존하던 시기. ▲상법시 :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진실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형식적인 겉치레로 바뀌는 시대. 부처님의 가르침과 형식적인 수행만이 남아있던 시기. ▲말법시 : 불법의 멸망시대로 부처님의 가르침만 있을 뿐 수행자와 깨달음이 없는 시대.

이와관련 고영섭씨는 "모든 종교의 타락은 교단 내에서 정한 규율조차 지키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며 "성직자나 신자를 불문하고 해당 종교가 제시하는 '절제'와 '금욕'적 삶의 방식을 지키지 않고 '무절제'와 '욕구'에 따르는 삶을 살때 그 종교는 사회와 불화하고 국가의 기반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 '불교학 논총'을 헌정받고 있는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왼쪽).

운덕스님 화갑논총 출간

국내외 논문 55편 수록

천태국제학술회의 열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1월 23일 서울 관문사에서 제2회 천태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천태종 총무원장 화갑 기념 논총인 〈불교학논총(천태불교문화연구원 刊)〉 헌정식을 봉행했다.

1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논총집은 물리적 부피만큼이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10편의 해외 논문을 포함한 총 55편의 논문을 4부로 나누어 싣고 있다.

'제1부 천태사상 제2부 한국불교사상과 역사 제3부 불교사상 제4부 불교문화와 예술'로 이루어진 주제 가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논총의 1차적 목적은 불교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천태학을 통한 천태종의 정체성 확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불교학 전분야에 걸친 폭넓은 관심을 보이며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인접 학문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등 학문적 편협이라는 위험성으로부터는 멀찍이 물러나 있다.

특히 '불교 합창음악 지도법 연구'(박상진, 동국대 교수)와 같이 현장의 필요에 대응하는 구체적 연구는 불교학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사례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서 동국대 김상현 교수는, 국청사가 낙성되고 의천 스님이 이 절에서 천태교학을 강의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천태종의 개창은 공식화됐다며 천태스님이 천태종을 개창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일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중국 산서성 사회과학원 진경부 교수는 의천스님이 교의 입장에서 선을 접수하고 둘을 함께 닦음으로써 종파를 넘어 불교의 통일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희대 블리디미르 티코노브 교수(vladimir tikhonov)가 '의천의〈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편찬, 교장(教藏) 간행의 문화사적 의미', 일본 화원대(花園大) 오키모토 가즈미 가쯔미(沖本克己) 교수가 〈보리달마사행론(菩提達摩四行論)〉에 대하여'란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도필선 기자

"승가교육 조선중기 교과과정 답습"

'교육개혁 그 멀고도 험한여정' 법인스님 '불교평론'에 기고

부처님의 생애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 조선중기의 교과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외전과목의 강화가 필요하다….

법인스님(화엄학림 강사)이 최근 〈불교평론〉창간호에 현행 승가대학의 교육 문제점을 지적한 '교육개혁, 그 멀고도 험한 여정'을 실어 주목되고 있다.

스님은 "문명의 전환기에 승가교육이 어떤 행로를 걸어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스님이 지적한 승가교육의 문제점은 시대에 뒤떨어진 교과과정이다. 제도의 정비와 체계화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조선 중기에 이 과정이 확립된 것은 시대 환경에 조응하기 위해서이다. 현 승가대학 교과과정이 정착된 조선시대와 지금은 여건과 환경이 다르다. 아직까지 변화 또는 발전을 모색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무신경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승가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미·사집·사교·대교과의 교육과정이 350여 년 전 조선중기에 마련된 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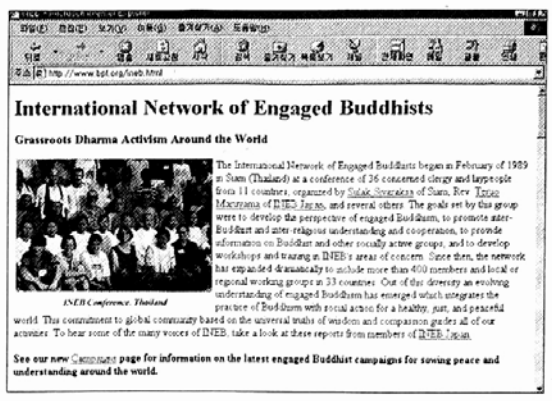
부처님의 생애를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스님은 "부처님이 수행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운 일, 전도하면서 겪었던 일, 제자를 가르치면서 겪었던 일 등 율장과 아함부 경전에 담겨져 있는 부처님의 발자취를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며 "승가교육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생애다"고 강조했다. 또 "행자교육원의 부처님 생애에 관한 교육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행자교육원에서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유교경, 부처님의 생애를 46시간 동안 배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스님은 또 현재의 강원과목은 기본교육이 아니라 특수교육, 산중은거형 선정주의 교육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재의 교과과정으로 불교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교의 기초교의, 특성,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하는데, 가장 원초적인 부처님의 육성이 담긴 〈아함경〉을 교수하고 있는 승가대학은 거의 없다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스님은 "불교가 어떤 종교, 어떤 사상인지도 모르고 스님이 되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넌센스다"며 "불교 기초교리, 불교적 가치관,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곧바로 선으로 직행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을 절대화 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불교이해가 아직도 중세에 이루어진 교판(教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인스님은 컴퓨터를 비롯 영어 일어 등 외전(外典)과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가운데 비교종교는 다종교사회에서 꼭 가르쳐야할 외전 과목으로 꼽았다. 종교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다른종교의 이해는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법인스님은 강주 1명, 강사 2~3명이 전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인력 절대부족 등 열악한 교육환경, 재교육부재 등을 해결해야 할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참여불교도국제연대회의

불교 사회참여 프로그램 보급등 활동

요즘 방송매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NGO'이다. 비정부기구로 선행을 베푸는 사회조직을 총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아시아 불교계 가운데 대표적인 NGO를 꼽으라면 단연 '참여불교도국제연대회의(INEB, 이하 '참여회의')이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 인포싯이나 야후를 방문하면 이 단체의 연혁이나 활동 내용, 인물·지도자·교육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INEB'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참여회의'는 1989년 태국 시암에서 11개국 36명의 스님들이 모인 아시아평화회의에서 슈라크 시바라크사(태국·인권운동가)와 테루오 마루야마(일본) 스님에 의하여 조직됐다. 이때 참여회의는 △불교의 사회 참여 △종교 간 이해와 협력 △불교와 진보 사회 단체와의 연대 △불교 사회운동가 훈련 및 워크샵 개최 등과 같은 취지로 설립됐다.

따라서 참여회의의 주요 관심분야는 교육, 비폭력, 인권, 환경, 여성문제, 개발, 양심 등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참여회의는 전세계 각국의 불교도와 사회활동가를 연결하여 우호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창립 9년째인 1997년도 참여회의 총회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 태국 칸챠나브리시(市) 외곽에 있는 리더쉽훈련센터에서 20개국 1백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독일에 있는 티벳 불자들이 제기한 문제인 관첸라마(6세)의 납치·구금을 즉각 취소하고 석방시킬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함과 동시에 널리 국제 사회에 호소하고, 베트남 정부에 의해 체포·구금되어 있는 '베트남통일불교도회'의 스님들을 위해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결의안을 제출, 석방시키기도 했다.

참여회의 슈라크 시바라크사 공동대표는 "불교계 참여운동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실천한다면 서로 다른 의견도 융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ttp://www.bpf.com/bpf/ineb.html

'한글시대…' 학술회의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소장 임기중)는 11월19일 90주년기념문화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한글시대의 불교언어와 불교문학'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한글창제 이후 갑오경장까지 한글을 매체로 한 불교언어 및 문학에 대해 조망한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불교산문연구'(인권환 고대 국문과 교수) '현대 불교시 연구'(홍신선 동국대 국문과 교수) '불교언어 연구(김무봉 동국대 국문과 교수) '불교시가 연구'(임기중 동국대 국문과 교수)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학술단신

4일 백련불교아카데미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은 4일 제13회 백련불교아카데미를 연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황인규씨(동국대 역사교육과 강사)가 '무학대사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고려말과 조선 초에 걸친 무학대사의 활동과 아울러 성리학이 전파된 변천사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02)744-1544

4회 동아시아 문화포럼

동아시아문화포럼(회장 송하경)은 4일 오전10시 성균관대학교 종합강의동 31406호에서 '새로운 생명관과 문명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4회 포럼을 개최한다.

달라이라마등 종교지도자들 이스라엘서 '새천년 평화선언'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등 종교 지도자들은 11월 21일 이스라엘의 5세기 비잔틴 사원 유적지에서 범(汎)종파간 종교회의를 갖고 다가오는 새 천년의 평화를 역설했다.

달라이 라마는 종교를 전쟁이나 분쟁의 수단이 아닌 평화의 수단으로 만드는 방법을 토의하기 위해 전세계 주요 종교지도자들이 참가한 3일간의 종교회의 개막연설에서 "평화에 대한 갈구는 이제 실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달라이 라마는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 이번 종교 지도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이스라엘에 입국했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세사미놀」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보살승에 설한 '부처 되는길'

대소승 모든 선관법 집대성한 경전
대승불교의 정수 오상성신관 제시

금강정경 (上)

경전 속의 禪 사상 43

글쓴이

정 태 혁
〈동국대 명예교수〉

불교의 참된 도리는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에 있다. 이 중에서 계가 없이는 정이 있을 수 없고, 정이 없이는 혜가 있을 수 없으니, 정을 닦는 선관이야말로 지혜를 얻어 부처가 되는 길이다.

그러므로 모든 불교경전은 부처의 지혜를 얻는 길을 설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도달되는 깨달음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모든 경전은 모두 지혜로써 진실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로 들어가는 길도 간곡히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설해지고 있는 수많은 관법(觀法)이다.

흔히 우리가 선법(禪法)이라고 하나, 불교의 선법과 외도들의 선법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도 달라야하므로 같은 선법이면서도 외도의 선과 구별하여 불교에서는 관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의 관법은 선관(禪觀)의 방법이 된다.

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선(dhāna)이라고만 할때에는 지(止 · samādhi/sthana)에 그치는 선이 되고 만다. 그러나 선관이라고 할때에는 '지'에서 관(觀 · upalaksana/vipasyana)으로 나아가서 '지'와 '관'이 하나가 되어 지관쌍운(之觀雙運)이 이루어진 것이 된다. 그러므로 불교의 모든 경론에서는 그냥 선이라고 하거나 모두 선과 관이 같이 있는 것이므로 불교의 선은 선관이고, 불교의 관에는 선과 관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는 본질적으로 구별될 수 없는 것이지만, 시대적으로나 그 사유의 방향에 따라서 서로 구별하지만, 본래는 다를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승의 교리가 없이 대승의 교리가 따로 없고, 대승의 교리를 떠나서 소승의 교리로 따로 없다.

이와같이 선관법도 대승의 선관법이나 소승의 그것이 본절적으로는 다를 수가 없으며,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어느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것을 〈법화경〉에서는 회삼귀일(會三歸一)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대승인 반야경류에서 설하는 관법에 모든 소승경전의 선관법이 그대로 와 있고, 〈금강정경(金剛頂經)〉에서 설하는 관법에는 대 · 소승의 모든 선관법이 같이 와서 있게 된다.

그러나 소승은 소승의 세계가 있고, 대승은 대승의 세계가 있으며, 금강승은 금강승의 세계가 있으므로, 금강승의 세계를 설한 〈금강정경〉의 선관법에는 소승에서부터 대승으로 이어지는 관법만이 아니라, 〈금강정경〉 특유의 관법이 더해져서 설해지고 있다.

이제 〈금강정경〉에 나타난 관법을 소개함에 있어서, 먼저 불교의 가르침에서 선의 위치는 어떠한 것인가를 보았고 어떻게 다시 이것이 발전했는가를 생각해 보겠다.

이와같은 선관의 역사적 발전은 어찌하여 있게 된 것인가.

이것은 우리 중생의 근기의 차이에 따라서 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승경전에서는 성문승(聲聞乘)에 맞는 선이 설해졌고, 대승경전에서는 연각(緣覺)이나 보살승에 맞는 교설이 설해졌으며, 특히 〈금강정경〉과 같은 금강승에 속하는 경전에서 설해진 선관은 그대로 보살승에게 설해진 것이니, 부처가 되는 길, 곧 불신원만(佛身圓滿)이 이루어지는 선법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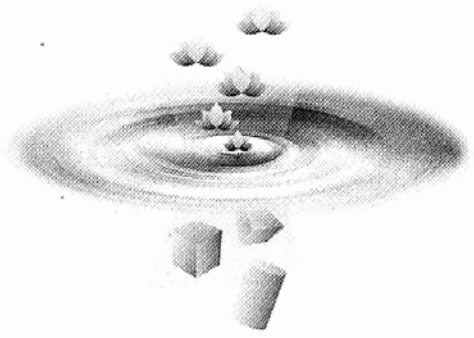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는 불교경전에서 설해지고 있는 모든 선법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설해진 것임을 알고, 자기자신의 수행에서 이것과 맞춰서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 어느 한가지만에 매달리지 말고 구경(究竟)에 이르는 금강승의 선법에까지 도달되지 않으면 결코 성불할 수 없다고 말해질 수 있다.

이런 뜻에는 나는 〈금강정경〉에서 설해지고 있는 선관법인 '오상성신관'의 관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

과 학 산 책

W · Z보존(boson)

무거운 W · Z 보존입자
낮은에너지 상태에선
전자와 같은 성질 지녀



전통적인 입자와 힘의 개념은 대립이 아니라 보즈장(場)으로 통일되고 오로지 장(場)만이 존재한다. 전통적인 힘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가상 모드 상태로 관찰되어지는 보즈입자이다. 진공 상태에서 무거운 장(場)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결과 무거운 입자를 얻기 위해서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 E = Mc2에 의한 양만큼의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 일상적인 온도와 거리에서는 무거운 양자장을 자극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에너지가 없다.

일상적인 시공간 단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입자는 중성자와 양성자이다. 약한 전자기 통일 이론에 따르면 이들보다 100배나 무거운 W와 Z 보존(boson)이 존재한다. 무거운 질량 때문에 이들 입자들은 자극되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없는 일상적인 시공간 단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장들은 양자 법칙의 결과로 인해 자연 법칙이 더욱 생동적인, 더욱 섬세한 시공간 단위에서 계속 동작한다. 이 더욱 근본적인 단위에서는 전자와 중성미자 사이의 대칭이 회복된다. 즉, 전자와 중성미자는 심오하게 꼭 같아 이들은 단지 하나의 통일된 양자장의 두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 된다. 빅뱅 후에 충분한 에너지가 있던 시간에는 무거운 W와 Z 보존에 의해 통일성이 유지되다가 우주가 확장되어 무거운 W와 Z 보존 장이 기능을 멈출 정도로 차가워지면서 전자와 중성미자, 위 쿼크와 아래 쿼크는 서로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빅뱅이 있은 후 처음 100만 분의 1초 동안에 W · Z 보존들은 우리 우주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자와 중성미자 등은 구별되지 않으며 전자기적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은 통일된다.

그 때 세상은 훨씬 간단했다.

그라쇼-사람-와인버그에 의해 제안된 약한 상호작용과 전자기적 상호작용을 통합한 모델이 뛰어난 성공을 얻게 되어 물리학은 자연에 깊이 숨겨져 있는 대칭성을 바탕으로 통일이란 주제를 확립시켜 나가고 있다.

이 약한전자기 이론에 의하면 전자와 중성미자, 위 쿼크와 아래 쿼크 등은 근본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분별할 수 없음을 지탱하고 있는 W · Z 보존은 매우 무거워 일상적인 시간과 거리 단위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그 결과 대칭 파괴(symmetry breaking)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전자와 중성미자등은 겉보기에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된다.

약한 전자기 이론에 의하면 W · Z 보존은 일단 생겨나면 전자기장과 결합하여 '약한전자기력'이라 불리는 힘을 이룬다. 그래서 '약한전자기 통일'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동시에 전자와 중성미자 등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갖게 되어 통일된다.

오늘날에도 빅뱅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단순성과 통일성을 더 근본적인 시간과 거리 단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 2개의 산란과 중성미자 두 개의 산란을 비교해보자. 전자들은 전하를 가졌으므로 전자기 장의 특성에 의해 산란한다. 반면에 중성미자는 전하를 가지지 않았다. 중성미자는 오로지 무거운 Z 장(場)의 특성에 의해 산란되어진다.

만약 충돌전과 후의 전자와 중성미자가 전형적인 실험실 수준의 낮은 에너지를 가진다면 전자는 중성미자보다 훨씬 쉽게 산란할 것이다. 이는 전자기장이 질량이 없어 그 결과 다가오는 전자들에 의해 쉽게 흥분되기 때문이다. Z 보존이 Mc2의 에너지를 가진 물리적인 입자라면 일상적인 실험실 에너지 수준에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없어 중성미자 산란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Z 보존이 가상입자라면 이보다 훨씬 낮은 에너지에도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저에너지 수준에서도 중성미자 산란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작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조원희 〈본사 전략정보실장〉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와 같지만 (24)

현대인의 불법 (3)

자비심으로 교화하라

증오 · 편견 버리고 이해 · 포용력 지녀야

참된 불교정신이 체질화된 사람은 종교적, 국가적, 정치적 편견이나 증오 따위란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전쟁 특히 도발적인 전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강도나 살인자들이 너희 사지와 관절을 자른다 해서 화를 낸다면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다음과 같이 자신을 단련해야 하느니라." 또 "우리의 정신은 평정을 지키리라. 우리의 입에서는 사악한 말이 한마디도 새어나오지 않으리,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해 호의와 연민으로 충만해 있고, 마음 속엔 아무런 원한도 묻어두지 않으리. 우리는 분노와 증오를 모르는 넓고, 깊고, 가없는 자비심으로 그들을 감화시키리라."

이렇게 모두를 감싸안는 자비심, 즉 '메따'는 한쪽 뺨을 맞았을 때 다른 쪽 뺨도 내밀어야하는 어린 양의 적극적이지 못한 사랑과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르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는 가라앉지 않고 오직 온화함으로만 가라앉는다." 불교는 한번도 총칼을 쓰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부처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부처님의 이름으로든, 불교의 교리를 전파한다는 명목으로든 단 한방울의 피도 흘린 일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해탈을 증득함에 있어 무덕대고 믿는 신심이나 피상적인 종교의식은 아무 쓸모도 없다고 가르치 듯이 불교에서는 형식적인 개종이란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것은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목표에 가깝게 다가가는 길은 스스로 바른 견해를 갖추고 분발 정진하는데 있음을 잘 알고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덕성과 지혜를 갖추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른 길을 알아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한마디 더하자면 이 보편적 자비심, '메따'는 초기 불교시대로부터 모든 불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왔다. 대표적인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는 전국의 주요 도로상에 지친 여행객을 위한 무료 쉼터를 만들었고, 목마른 자를 위해 항상 시원한 물이 담긴 물항아리를 놓아두었고, 사람과 동물 모두가 먹고 마실 음식을 마련하였으며, 병든 사람이나 동물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약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듯 불교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의 성격과 태도를 향상시키고 고양시키는데 적합하다. 불교는 한 국민의 자존심과 책임감을 일깨워주고 그 나라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또한 인간 본연의 능력인,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힘에 호소하여 정신의 고양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국민들이 종교적, 국가적 편견을 떨쳐내고, 광신에 빠지지않게 함으로써 더욱 넓은 포용력을 가지게 해준다. 불교는 국민들 마음 속에 모두를 감싸안는 자비심과 형제애를 심어주어 증오심과 잔인성을 없애준다.

또한 불교는 술이나 약물 등을 금함으로써 국민이 늘 맑고 냉철한 정신을 유지하게 한다. 요컨대 불교는 인간의 모든 운명은 자신의 손에 달려있으며, 어떠한 신이나 부처님도 궁극의 목표에 데려다줄 수 없기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의 힘과 통찰력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줌으로써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불어넣어 준다.

따라서 자기 존중의 태도, 자신감, 이해심, 너그러움, 모든 것을 감싸안는 자비심, 명정한 정신, 사고의 자주성 등이 불교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점들이다.

이러한 장점들이 널리 자리잡고 있는 나라에서는 평화와 행복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한 나라야말로 전세계가 바라마지 않는 모범국가가 될 것이고 바로 지상의 낙원이 될 것이다. 현대인의 도리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이제는 집에서도 온 가족이 손쉽게 법회를!
가정법회
모든 불자들을 위한 가정법회 안내서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 5계 수지문 낭독 ·
찬불가 · 성구 및 해설 · 발원문 · 사홍서원

신행활동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될만한 내용을
아함부경전에서 가려뽑은 성구와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해설,
축원이나 감사는 물론 각종 행사나 절기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된 발원문,
온 가족이 날짜나 요일을 정해놓고 혹은 특별한 날에 가정법회를 진행한다면
훌륭한 불자가정은 물론 삶의 지혜와 교훈,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학종 편저/신국판/350쪽/값 10,000원

중국과 대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선화총서 첫 번째 권
불교와 유학
불교와 유교, 동아시아 사상계의 가장 큰 충돌,
그리고 중국화된 불교와 불교화된 유교!

불교와 유학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상호간의 투쟁, 배척, 흡수, 융합
등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책은 바로 이 양자의 관계를
정확한 관점과 명쾌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와 중국에서 발원한 유학이 갖는
각각의 특징, 불교의 중국화 과정에 유학이 미친 영향,
역으로 중국의 유학에 불교가 끼친 영향,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의 결과 및 의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賴永海 저 · 김진무 역/신국판/363쪽/값 12,000원

알기쉬운
한문해석법
현대 한문해석법의 완성과 반야심경에 대한
최초의 문법적 분석

불교경전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이 책은 한문의 기초부터 한시는 물론 허사에 이르기까지
한문해석을 위한 한문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총정리한
초보자를 위한 한문입문서이다. 특히 반야심경을 현대의
한문해석법에 문법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장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심재동 저/신국판/383쪽/값 12,000원

初發心自警文
누구나 쉽게 공부할수 있게 꾸민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
번역 및 자해난은 물론 원문에 토를 달고,
원문 해석의 순서와 방점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혜공 편역/신국판/136쪽/값 4,500원
1999년도
불교서적
종합목록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교서적을
총망라한 국내 유일의 종합정보지.
전 서적에 대한 내용별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전체목록 색인란과 출판사별 색인란을 두어
목록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가까운 불교서점에 가시거나 운주사로 연락주시면
(우편발송비 2,000원 동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해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명상수련 댄스 컴퓨터
신문제작 자원봉사 운동
:
:
:
교계 복지관-청소년 단체
동아리 활동 다채



◇창주 상당고등학교 파라미타 명상수련반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학교예절실에서 좌정한채 자신을 관조하는 수련활동으로 한층 성숙해진다. 사진=고영배 기자

꿈도 '쑥쑥' 불심도 '쑥쑥'

11월 23일 오후 5시 서울 구로종합복지관 3층 강당으로 교복차림의 남녀학생들이 하나 둘씩 모여든다. 준비해 온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10여명의 학생들은 어느새 강당 한복판에서 저마다 준비운동을 하며 대열을 맞춘다.

"어깨를 앞으로 당기면서 팔을 늘어뜨리고 앞으로 나갔다가 빠른 걸음으로 뒷걸음질 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창 유행하는 댄스그룹 SES의 최신곡 '러브'를 배경음악으로 거울을 보고 춤연습에 한창인 이들 청소년들은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유명한 청소년 댄스그룹 '위(We)'의 회원들이다.

하루종일 공부에 시달렸던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흥겨운 리듬에 몸을 내맡긴다. 지난해부터 댄스동아리 활동을 해온 박수진양(영서중 2년)의 꿈은 전문 백댄서가 되는 것. 이미 '위' 출신 5명의 선배들이 전문 댄서로 발탁돼 활동중에 있고, 그런 선배들을 따라 오늘도 힘든 춤연습에 비지땀을 흘린다.

박양은 "춤추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어른들은 춤추는 저희들을 조금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지만 저희는 불량학생이 아니예요. 다만 어른들과 미래에 대한 방향이 좀 다른 것 뿐이예요. 언니 오빠들과 매주 화, 목요일 오후에 모여서 새로운 춤 안무도 하고, 연습도 하면서 특별한 성취감 같은 걸 느껴요."라고 말한다.

댄스동아리 위는 신입회원도 회원모두가 직접 심사를 통해

건전 놀이문화 마련
탈선-비행 예방
자연스런 포교 가능

선발해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꾸려나가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 운영되다 보니 미흡한 점도 많지만 그런 모든 과정이 이들에겐 또하나의 공부요, 체험이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치열한 입시전쟁을 일찍부터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들. 동아리활동은 그들에게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자신을 찾아가는 일종의 비상구다.

최근 복지관과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얼마전 수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이 이같은 동아리를 찾아오면서 각 복지관과 단체마다 수능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구로복지관에는 댄스동아리 '위' 외에도 또다른 댄스동아리 '자강불식', 컴퓨터 동아리 '다-덤버', 신문제작동아리 '왐(wam)', 자원봉사 동아리 '한우리' 등이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이들은 주 1회 모임을 통해 홈페이지제작을 연구하기도 하고, 복지관 곳곳을 청소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등 자신들이 원하는 활동을 통해 건전여가활동을 펼친다. 또 매월 각 동아리의 활동을 소개하는 월례모임을 가져 활동을 반성하고, 새로운 활동을 계획한다. 다가오는 연말에는 동아리들의 송년의 밤도 열 계획이다. 서로의 동아리활동을 격려해주고 한해동안의 활동을 결산하기 위해서다.

능인종합복지관에서도 올해초부터 사·희·우(사랑과 희망을 주는 우리의 약자), 능인청소년축구단, 청소년자원봉사단 등의 동아리가 결성돼 운영되고 있으며, 목동청소년회관에서도 댄스동아리와 방송연합동아리등이 활동중이다. 부산 양정청소년회관의 경우 지난해부터 컴퓨터, 영화창작, 자원봉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요구로 내년에 청소년 댄스동아리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의 청소년 댄스동아리 '위(we)'. 복지관 3층 강당에서 매주 화·목요일 열리는 동아리 '위'의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 10월 결성된 걸스카우트 불교지역대는 종교와 이념을 초월한 청소년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능인종합복지관의 능인청소년축구단. 인근 개포1·2동 구룡마을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축구단 동아리를 통해 건강한 심신을 기르고 기량을 펼칠수 있는 문화환경을 제공한다.

춤, 컴퓨터, 영화 등 사회의 다양한 문화가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반영되면서 청소년문화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고, 이를 즐길만한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했던 청소년들이 복지관과 청소년회관의 동아리방을 찾기 시작하면서 동아리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구로복지관 안영순 복지사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심어주기 위해 복지관에서 방과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댄스와 컴퓨터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와 연계된 동아리모임을 활성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시도는 다양한 휴식공간이 없어 자칫 음지에서 방황할 수 있는 청소년을 양지로 이끌어내고 탈선과 비행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한다.

이같은 복지관 중심의 동아리활동과는 조금 다르지만 학교내에서의 불교동아리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96년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창립이후 종립학교 이외의 일반학교에서도 특활 활동의 하나로서 파라미타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다. 불교학생회 형식으로 명성여중, 동대부고 등 종립학교에서 불교동아리모임이 열리고 있고, 서울 선덕고등학교, 동해 광희중학교 등에서도 법회와 문화재애호활동을 전개하는 불교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청주 상당고등학교의 경우는 특화된 동아리활동을 대변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학교내 예절실에서 파라미타 명상수련반 동아리가 모임을 갖는다. 11월 24일에도 50여명의 학생이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자! 오늘은 장면떠올리기 명상을 해 보는 겁니다. 모든 중심, 기력을 단전에 두세요. 허리는 펴고, 혀는 입천장과 윗입술 사이에 턱은 앞으로 당기고 가장 행복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모아 관을 하는 겁니다."

최시선교사의 지도로 진행되는 명상수련반은 상당고 23개 동아리 가운데 이색 동아리로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불교종립학교가 아니고서는 쉽지않은 신행활동을 동아리 모임을 통해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명상수련반에서는 명상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9월 축제때는 명상수련반 모든 회원들이 직접 연 등을 만들어 학교정문입구를 장엄하기도 했다.

최교사는 "명상수련외에 자율적으로 선체조도 실시하고 가까운 사찰을 찾아 불교문화를 체험하면서 학교생활외에 또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면서 "동아리라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줌과 동시에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고, 직간접적으로 불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러운 포교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총회원 170여명인 상당고 파라미타 명상수련반은 이번 겨울방학에 인근의 관음사와 법주사 등지에서 명상수련을 겸한 문화재보호 자원봉사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청소년의 문제를 청소년이 직접나서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의 동아리 청소년인권봉사단은 얼마전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 사건때에 청소년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으며, 최근 결성된 걸스카우트 불교지역대도 종교와 이념을 초월한 건강한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선발대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새천년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 청소년기의 활발한 동아리활동은 그들의 꿈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실천에 옮기고, 정서적 욕구와 사회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주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청소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불교종립학교와 복지관, 청소년시설 등에서 시도하고 있는 동아리활동은 딱딱하게 불교를 가르치기 보다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며 그들의 세계에 불교를 훈습시키는 자연스러운 포교의 변화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중원 봉황리 마애불상군은 6세기후반의, 초기 마애불 형식을 보여준다.

마애불을 찾아서

중원 봉황리 마애불상군

상체 짧고 머리주위 화불배치
6세기후반 조각특징 보여줘

중원군 가금면 봉황리 개울이 내려다 보이는 경관좋은 산중턱 바위 두곳에 조각된 삼국시대 마애불이다. 본존으로 여겨지는 큰 마애불은 따로 좁직한 암면에 부조되어 있는데 무릎이 유난히 넓고 높은 결가부좌한 좌불상이다. 무릎에 비해서 상체는 짧고 네모 났으며 얼굴도 방형에 가까워 초기 마애불의 기법으로 생각된다. 얼굴의 형태나 미소 역시 고졸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머리주위에 배치된 화불은 북지리 마애불의 화불과 유사하다. 이 본존불에서 약간 떨어진 마애불상군은 일단 턱이 긴 암면에 8구의 불보살 상들이 새겨져 있는데 왼쪽에는 무릎부분이 깨어진 불좌상이 있고 불좌상 왼쪽에는 한 무릎을 꿇은 공양좌상이 있는데 시무외인 여원인의 인상이나 힘있는 얼굴과 강건한 체구 그리고 세장한 공양자 형태 등 6세기 후반의 조각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도 유형문화재 131호.

글·사진=불자포교사진연합회 (011-337-7312)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 (99.9%)카드에..



▲앞면 달마도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깨달음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앤씨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위에 새겨서 상품화(실용신안등록 No24366호) 했다. 천만불자 특별 보시 보급품으로 선보여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카드는 앞면에 달마도의 대가 해천 윤종우 선생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깨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님들의 불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할인은 물론 앞뒷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본, 부적, 이름 등 어떠한 문안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달 가능하며 최고의 천신 달마도를 고급 표구액자(27cm×32cm)화한 액자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해천 윤종우선생님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열쇠고리 — 순금판 상반신 달마도 열쇠고리 1개 : 1만원, 3개(set) : 2만원에 판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제조판매원: 한국 지.앤.씨 (24시간 공유열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영업점 모집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19-끝

今若不修 萬劫差違 今若強修
금약불수 만겁차위 금약강수
難修之行 漸得不難 功行自進
난수지행 점득불난 공행자진
嗟夫 今時人 飢逢王饍 不知下口
차부 금시인 기봉왕선 부지하구
病遇醫王 不知服藥
병우의왕 부지복약
不曰如之何如之何者
불왈여지하여지하자
吾末 如之何也已矣
오미 여지하야이의

지금 만약 닦지 않으면 만겁에 어긋나고, 지금 만약 억지로라도 닦으면 닦기 어려운 수행도 점점 어렵지 않게 되어 공행(功行)이 저절로 나아갈 것이다. 슬프다. 지금 사람은 배가 고프면서도 맛난 음식을 보고 먹을 줄을 알지 못하고, 병이 들어 의사를 만났어도 약을 먹을 줄 모르는구나. 참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며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 없다.

且世間有爲之事 其狀可見 其功可驗
차세간유위지사 기상가견 기공가험
人得一事 歎其希有 我此心宗
인득일사 탄기희유 아차심종

고금강경운 어차장구 능생신심자
當知是人 已於無量佛所 種諸善根
당지시인 이어무량불소 종제선근
又云爲發大乘者說 爲發最上乘者說
우운위발대승자설 위발최상승자설

슬프다. 우물안 개구리가 어찌 바다의 넓음을 알며, 여우가 어찌 사자의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법 세상에 이 법문을 듣고 희유한 생각을 내어 믿고, 이해하여 받아 지니는 사람은 이미 한량없는 겁동안 모든 성인을 받들어 섬겨서 모든 선근을 심고 지혜의 바른 인연을 깊이 맺은 최상의 근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금강경〉에 '이 글귀에 능히 신심을 내는 사람은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의 처소에서 모든 선근을 심은 것이다.' 하였고, 또 '이 법은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과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 하였다.

보배 있는곳 알고도 구하지 않겠는가

無形可觀 無狀可見 言語道斷
무형가관 무상가견 언어도단
心行處滅 故天魔外道 毁謗無門
심행처멸 고천운외도 훼방무문
釋梵諸天 稱讚不及
석범제천 칭찬불급
況凡夫淺識之流 其能髣髴
황범부천식지류 기능방불

또 세상 유위(有爲)의 일은 그 형상을 볼 수도 있고 그 공덕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시림들이 한 가지 일만 얻어도 희귀하다고 감탄한다. 그러나 나의 이 마음은 그 형상을 볼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으며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마와 외도들이 훼방하려 해도 길이 없고 제석천과 범천의 모든 하늘이 칭찬하려 해도 미치지 못하는데 하물며 얄팍한 범부의 무리가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悲夫井蛙 焉知滄海之闊
비부정와 언지창해지활
野干何能師子之吼 故知末法世中
야간하능사자지후 고지말법세증
聞此法門 生希有想 信解受持者 已於
문차법문 생희유상 신해수지자 이어
無量劫中 承事諸聖 植諸善根
무량겁중 승사제성 식제선근
深結般若正因 最上根性也
심결반야정인 최상근성야
故金鋼經云 於此章句 能生信心者
고금강경운 어차장구 능생신심자

今不修之 則縱有宿世善根 今斷之故
금불수지 즉종유숙세선근 금단지고
彌在其難 展轉遠矣 今旣到寶所
미재기난 전전원의 금기도보소
不可空手而還 一失人身 萬劫難復
불가공수이환 일실일신 만겁난복
請須愼之 豈有智者 知其寶所
청수신지 기유지자 지기보소
反不求之 長怨孤貧
반불구지 장원고빈
若欲獲寶 放下皮囊
약욕획보 방하피낭

원컨대 도를 구하는 사람은 겁내거나 약한 마음을 내지 말고 부디 용맹스런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숙세에 맺은 거룩한 인연 가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처럼 수승한 근기를 믿지 않고 스스로 못났다고 하여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금생에 닦지 않으면 비록 숙세에 선근이 있다 해도 지금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되므로 더욱 어려워지고 점점 멀어질 것이다. 이미 보배 있는 곳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에 회복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부디 삼가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찌 보배가 있는 곳을 알고도 그것을 구하지 않다가 오래 외롭고 가난함을 원망하겠는가. 만약 보배를 얻으려거든 그 가죽주머니를 놓아버려라."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의 등불 하나켜면

몽월스님 〈극락정사 조실〉



夢踏萬境夢無形
몽답만경몽무형
月照千江月無心
월조천강월무심
無形無心是實相
무형무심시실상
夢覺天下月長明
몽각천하월장명

꿈에 만가지 형상을 밟아도 꿈은 형상이 없고
달이 천강을 비치되 달은 마음이 없더라.
형상이 없고 마음도 없는 것이 실상이니
꿈을 깬 천하에는 달만이 길히 밝더라.

세상을 살다보면 뜻하지 않은 재난과 고통, 그리고 욕망때문에 한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번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눈앞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어떻게든지 자신의 평안만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로인해 번뇌에 사로잡혀 헤매는 것입니다.

불교의 대의는 성불에 있는데 그길은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성불하기 위해서는 자기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진리의 본성이고 자신의 근본이지요. 그러므로 우주적 진리인 자기자신의 마음이야말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임을 인식하고 사각같은 답답한 마음을 옥토와 같은 풍요로운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小)니 대(大)니, 많고 적음의 분별심을 부셔야 합니다. 명예니 돈이니 하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참나가 나옵니다. 참나를 찾으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지요.

한낱 촛불이 굴속을 밝힐 수 있다면 마음의 등불은 세상과 우주를 밝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1919년에 안양 삼막사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스님이셨기 때문이지요. 부친 영은스님은 원래 경기와 서울지역에서 유명했던 침술사이셨는데 45세의 나이에 모든것을 버리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영은스님은 한살차이이며 똑같은 달, 똑같은 시에 태어난 동생 무월스님과 내가 출가하기를 바랐습니다. 항상 동생과 나에게 스님이 되어 불교의 진리를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하셨지요.

그러다가 내가 8살이 되자 아버님은 나를 관악산 연주암 월해스님에게 득도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좀더 자유스럽게 생활하며 공부만 하고 싶지 불가에는 뜻이 없었습니다.

사실 당시 스님들은 밥먹기도 힘들고, 사람들에게 별 대우도 못받았거든요. 어린눈으로 봤을 때 왜 저러면서 스님이 될까? 하는 의문밖에 없었어요. 그러다보니 연주암에서도 오래 있을 수가 없었지요. 안양으로 다시 돌아와 안양서당에 나갔습니다.

동생과 나는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배우며 1,2등을 다퉜지요. 그러던 어느날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에 가고싶다고 했더니 훈장께서 종아리를 막 때려요. 다음날 학교에 편입하려하니 일본어를 모르면 따라갈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시가 일제시대여서 수업이 일본어로 진행됐던 것이지요.

그럭 저럭 19살이 되었습니다. 절살림이 나아지지 않자 아버지 영은스님은 삼막사에 있으면서 다시 침술사 생활을 겸하게 됐어요. 식량을 마련하려는 뜻이었기에 농·어촌지역은 무료로 해주고 조금 나은 집은 수확때 보리한말을 받아왔지요.

아버지와 절친했던 최원홍스님이 우리 절 옆 연주암에 계실때 일입니다. 때는 수확철이라 보리한말을 가져올 요량으로 스님을 따라 나섰지요. 원홍스님과 함께 관악산 기슭의 한 양반집에 들렀는데 젊은사람이 나오더니만 진환갑이 지난 두 스님에게 반말을 하는거예요. 스님들을 공손히 대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까지 반말하는 것을 듣다가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주먹으로 한대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겁니다. 마을사람들까지 모여들더니 천한 중이 양반을 쳤다고 몰매를 때리려고 해요. 그래서 줄행랑을 치면서 생각했지요.

'스님이 돼 불법에 도통하여 불교를 일으키고, 다시한번 이곳에 찾아오겠다' 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당시에는 유교와 불교의 대립이 극심했던 시대였어요. 출가하기 전까지 유학자들에게 두번이나 몰매를 맞을 뻔 했지요.

그길로 큰절로가 수행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 영은스님께 말씀 드렸더니 반가와 하시면서 금강산 건봉사 최원홍스님에게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건봉사는 당시 남한에서 가장 부유하고 큰절이었어요. 그러다보니 유학승도 가장 많았습니다. 또 사시사철 염불만일회도 열리고 있어 절에 상주하며 만일기도하는 불자들도 많았지요.

아우였던 무월스님이 먼저 건봉사 강원에 가 있었는데 우리는 강원에서도 1,2등을 다퉜지요. 건봉사에는 박한영, 진진홍 변설호스님과 함께 조선 4대 강백의 한분이었던 김일후스님이 계셨습니다. 스

약력

- 1919년 서울生
- 27년 연주암 월해스님을 은사로 득도
- 42년 건봉사 불교전문강원 대교과 졸업
- 43년 관악산 11개사 주지대표 역임
- 91년 태고종 서울종무원장
- 95년 본동사회복지관, 현정어린이집, 불교신협 운영
- 98년~현재 태고종 승정추대
- 현재 극락정사 오봉정사 연화정사 회주

"눈앞에 이익만 얻으려하니 마음속 번뇌 사라지지 않아 자신의 근본을 찾으세요"

우리는 매일같이 절에 가면서도 부처님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

정휴 스님 엮음 (시인, 불교신문사 사장)

신간!

우리는 이처럼 주옥 같은 부처님 말씀이 경전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닦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인생도 또한 이와 같아서 무상한 인생은 찰나 사이에 흘러간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닦아 저 불멸의 세계로 나아가라.



우리는 날마다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오로지 돈과 출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지나친 욕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구구절절한 〈소중한 부처님 말씀〉은
진정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러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46판 양장 / 값 5,000원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 · 석지현 스님 엮음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남이 깊어지면 애정이 싹트고
애정이 깊어지면 고통의 그림자가 뒤따른다.

인색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치성하게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 46판 양장 / 값 5,000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가까운 이에게는 선물로, 은혜 받은 이에게는 법보시로 이 책을 선물합시다.

큰스님 수행한담

우주 전체가 환해져요”

“시련 닥칠수록 용기 필요 원 세우고 정성껏 기도하면 안되는 일이 없는 법이지요”



◇ 1984년 극락정사에서 열린 국제보살계수계식 장면.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부터 몽월스님, 서경보스님, 스리랑카 피아다시종정스님.

님은 당시 법문을 최고로 잘했고 경도 거꾸로 외울정도 였지요.

일후스님이 법상에 올라가 경책을 꽉 꿸치고 법문을 하면 참 멋있기도 하고 내용도 귀에 쏙쏙 들어왔지요.

특히 일후스님의 야외수업은 일품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야외수업은 금강산 일주였어요. 금강산에 이력이 훤했던 스님은 학승들을 금강산 골골까지 데리고 다니며 설명한뒤, 유점사까지 가서 그곳에서 비구계를 받게 했습니다.

건봉사 법우강원에서 법우회장 소임을 맡아 보기도 하고 눈내리는 건봉사에서 학인들과 함께 산속을 헤집고 다니며 등산하고 공부할때는 피나게 정진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종무소에서 유학을 가라고 권했지만 모든 것을 팽개치고 만행을 떠났습니다.

가장 먼저 유점사 서울포교소였던 사간동 법륜사에 갔는데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냈던 대륜스님이 계셨지요. 스님은 어찌나 엄격하고 무섭게 대하셨던지 학승들 뿐아니라 신도들도 공부를 엄청나게 했지요. 신도들도 염불을 웬만한 스님보다 더 잘 할 정도였으니까요.

송광사에 가서 구산스님과도 만났는데 스님은 해탈얘기를 하며 '껍데기를 벗어 버려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였지요. 이 말이 어찌나 충격적이었던지 뇌리에 강하게 남았지요.

만행을 끝내고 현재 태고종 종정스님이신 덕암스님과 불교청년회 운동에 매진했지요. 청년회원들과 조직을 재건하고 본격적인 불교위상찾기에 나섰습니다.

불법에는 원을 새우면 안되는 일이 없어요. 원을 세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을 다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법입니다.

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고, 본산이었던 신촌 봉원사에 가서 배급을 받아왔지요.

그때를 잊지 말자는 의미로 당시 관악산 11개 사찰 주지였던 스님들과 자비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노쇠하다보니 모임에는 나가지 못하고 있지요.

연주암에 있을때부터 백일기도를 한뒤 3년간 관음기도를 했어요. 당시 얼마나 목탁을 부쉈는지 모릅니다. 목탁이 부서지면 절을 했는데 목탁에서 떨어진 나무조각들이 법당에 내려앉아 손자국이 날 정도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불자들에게 기도비를 안받습니다. 공양미를 한주먹 가져오면 그것으로 끝이지요. 백일기도가 끝나면 동참했던 불자들에게 꼭 백일기도 성만기념 염주를 목에 걸어줍니다.

선과 염불기도는 모두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수행법의 하나입니다. 어느것이 수승하고 못하고는 없어요. 단지 깨달음의 길로가는 여러갈래 길에서 내가 권하고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불자들 스스로 자기 근기에 맞는 수행법에 따라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세속생활이라는 것이 잡념과 공상이 많은지라 불자들에게 염불기도 할 것을 권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비우고 정진해야 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있는 그곳에서 생활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은 브처님의 바다속에 있는 아름다운 진주와 같습니다. 기도를 하게되면 영원과 하나가 되고 무한한 힘을 이끌어 내주는 원천이 돼요.

자기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베풀려는 지극한 마음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는 나만의 기도는 커다란 힘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보면 어느때부턴가 자기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기도를 해야 비로소 득도의 경지에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불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가르침의 핵심인 윤회 인과법칙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고요. 인과법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자신이 나쁜일을 하면 그만큼 과보를 받아요. 일부 불자들은 어떤사람이 나쁜일을 하는데도 잘살고 착한일을 하는데도 못산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현생에서는 과보를 받지 않지만 다음생에서는 과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과보를 받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업때문이지요. 나쁜 생각 하나가 천가지 만가지 악업이 될수도 있어요. 항상 하던 습이 있다보니 업이 되어 다음 생에서 어김없이 과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전생을 알고 싶으면 현재 나의 모습을 보고, 다음 생의 나를 생각하려면 지금의 내모습을 보면 간단합니다.

미래와 다음생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착한 선업을 쌓는 것 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어요.

불교를 믿는 목적도 분명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눈앞에 닥친 조그만 현실을 이루어 가면서 마음속으로 성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는, 그런 원대한 목적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믿는 목적이 일치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밖에 있지 않아요. 우주에 두루 계신 부처님이 어찌 특정한 물체에 국한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원래 진리 그 자체이므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지요. 그럼 부처님이 우리 모든사람의 마음에 이와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부처님을 뵐 수 있는 지혜가 열릴 그날까지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남 배려않는 나만의 기도 옳지 않아요”
“나쁜 생각 하나가 만가지 악업 될수도”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좌절하면 더이상 헤어나오질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강한 마음을 내면 그사람은 어려웠던 기억을 약으로 삼아 반드시 성공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부처님은 큰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정도 교훈을 일깨워 주는데 그것을 넘어서라는 것이예요. 땅에서 넘어진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는 말이지요.

1943년에 관악산 연주암 주지를 맡으면서 관악산 11개사 주지대표에 취임했습니다. 당시 운경스님(봉선사 회주) 법홍스님(원효종 종정) 입적한 서봉스님등과 함께 관악산에서 주지를 하고 있었는데 주지대표는 사찰에 식량을 대주는 책무가 가장 컸어요. 당시 사찰은 경제가 어려워 특별배급으로 생활했습니다. 동사

나의 수행일기



성재도 〈부산불교교육원 원장〉

〈상〉

21년 전, 2월이 다 가는 날 지리산 쌍계사 국사암에 들어서고 있었다. 이미 해는 저물고 1200년 묵은 암자에는 아무도 머무는 이 없고 어둠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텅 빈 암자에서 홀로 첫 밤을 보내게 됐다. 해는 지고 전깃불도 없는 암자에 아궁이가 어디에 있는 지 또 이불은 어디에 있는 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방에 머물러야 되는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빈방을 찾아서 좌복을 깔고 덮고 하여 하룻밤을 거의 뜬눈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아침 추위와 외로움으로 보낸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공양을 준비해야 했다. 첫날부터 새벽예불은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어 지나쳐야 했다. 아침 공양을 준비하려 해도 쌀과 노란 콩 그리고 간장은 보이는데 다른 것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밥솥은 커다란 가마솥뿐이었다. 그 큰 가마솥에 1인분의 밥을 지었고 다시 콩을 큰 가마솥에 넣어서 익혔다. 익었는지도 알 수 없는 밥과 콩 그리고 간장으로 아침 공양을 해결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밤에 보았던 어둠속의 절이 아닌 밝은 햇살 아래의 절을 천천히 둘러 보았다. 3백년이 넘은 암자의 지붕은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다. 부처님 계신 전각에 들어가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하고 신고식을 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부처님과의 첫 만남이었다.

삭발도 하지 않았으면서, 고시 공부하러온 학생도 아니면서 어떤 인연으로 텅 빈 암자에까지 오게 되었을까? 대학에 갓 입학한 어느 날, 문득 전생(前生)에 이 암자의 곳간을 축내던 서생원(鼠生員)이었다가 그 빚을 갚으러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불교를 느끼게 되었고 그후 초발심으로 이어져 세상과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학기 중에는 학과 생활보다는 불교학과생이라고 할 정도로 불교학생회 활동에 전념하였고 방학이면 집에 있는 날짜는 고작 2~3일 뿐이었다. 마치 구도자처럼 전국의 여러 절을 혼자 다니면서 큰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고 며칠씩 머무르며 수련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나니 군대가기 전에 내 마음을 닦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들어선 지리산 쌍계사 국사암. 절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어 혼자서 몇 달을 지내게 됐다.

그 1년 전, 만 스무 살 생일에 전라남도 송광사의 방장으로 계셨던 구산 큰스님으로부터 '일도(一道)'라는 법명을 받았다.

군대에 오라는 징집영장을 받고나서 국사암에서 내려 왔다.

쌍계사 국사암서 불교와 첫 인연

불교가 삶의 안식처였던 청년기

그러나 군에 복무한 33개월의 시간도 나에게는 절에서의 생활과 다름없었다. 몸만 병영에 있었지 국사암에서와 다를바 없었다. 군대도 나의 삶의 시간이요, 공간이며, 수행처라고 생각했다. 부처님을 향한 마음과 마음공부는 변함 없었다. 군대에서의 나의 숙제는 '물들지 말아야지(無染而淸淨)'였다.

고된 훈련 생활에서도 아침의 기상나팔소리는 오늘도 '날마다 좋은날'의 시작이었다. 무거운 무기를 어깨에 매고 오르는 강원도의 높은 산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루의 근무를 마치면 밤에는 다시 사병들을 위해서 군종 활동을 했다. 제소리를 내지 못하는 목탁소리, 독경소리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한 채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병영생활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나를 크게 깨우쳐 주고 무사히 군대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정신적 위안이 되었던 불교.

나는 전역후 확고한 불교 공부와 신행을 위해 새 길을 찾아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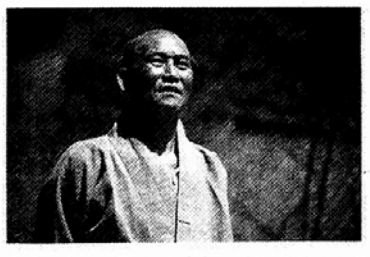
〈계속〉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고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궈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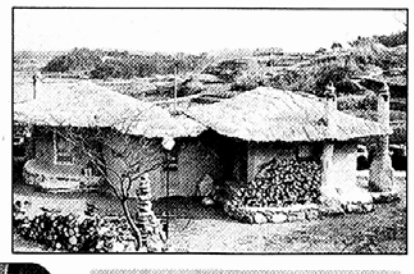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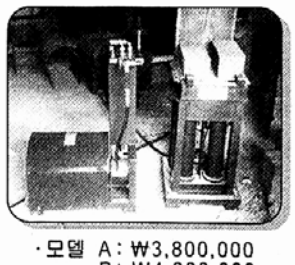
◐ 상담문의 ☎ (02)3437-8282 ◑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3,800,000
B: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眞理의 섬에서 波濤소리를 觀하며,

제7차 송광사 '송광암' 겨울 수련회 안내

거금도 섬에 있는 송광암은 고려시대 중엽 보조국사 지눌스님께서 창건하신 참선수련 도량입니다.

"깨치기 전은 참 수행이 아니다"라는 스님의 정혜 결사정신을 바탕으로 겨울 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진리의 섬에서 파도소리를 觀하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련일정 및 모집요강 ●

내용 / 차수	대 상	기간(3박 4일) 목~일	모집인원	회비
제1차	16세~65세 이하	1999년 12월 23일~12월 26일	50명	8만원
제2차	16세~65세 이하	1999년 12월 30일~2000년1월 2일	50명	10만원
제3차	16세~65세 이하	2000년 1월 6일 ~ 1월 9일	50명	8만원
제4차	16세~65세 이하	2000년 1월 13일 ~ 1월 16일	50명	8만원
제5차	16세~65세 이하	2000년 1월 20일 ~ 1월 23일	50명	8만원

1. 수련내용 : 묵언, 오후불식, 부처님 호흡법, 관음기도(念佛是誰), 108참회, 발우공양, 촬구참선 화두법, 행선(적대봉 등산, 금장해수욕장), 좁功(선체조), 수심결 강의
2. 접수요령 : 별도 양식없이 ①이름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직업 ⑤전화번호 ⑥종교 ⑦희망차수 ⑧참가소견을 적어서 우편이나 FAX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준 비 물 : 간편한 차림, 세면도구, 모포 1장
4. 찾아오시는 길
   1) 서울 → 녹동(직통) - 강남터미널 호남선 오전 8시, 9시
   2) 서울 → 광주(고속) → 녹동(항구) 3) 서울 → 순천(기차) → 녹동(항구)
   4) 부산, 대구, 진주, 마산 → 순천 → 녹동(항구)
   ☞ 녹동항에서 금진행 배로 15분거리(수련 당일 오후 5시까지 도착바람.)
5. 회비 납부 온라인(접수된 회비는 반납하지 않음)
   ■ 우체국: 501023-0039351-17 (일선) ■ 농협: 617073-52-068116 (일선)
6. 접수처 : 우)548-930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산74
   ☎ 0666)843-8488 FAX : 0666)842-7307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암 암주 일선 합장

물질과 정신 조화 새천년 '화두'

2000년을 여는
불교 지상포럼
10 · 끝

문명의 전환

영국 고고학자 조지프 테인터는 〈문명의 붕괴〉라는 책에서 "문명은 취약하며, 결코 영원하지 않다"고 말한다. 묵시록처럼 들리기도 하는 그의 지적은 '발전 강박증'에 걸린 듯 자연에 대한 정복과 무한경쟁을 절대절명의 가치로 떠받들어 온 현대사회에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새로운 세기와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둔 지금, 현대 문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문명의 전환은 기존의 세계관, 기존의 삶의 방식으로는 어렵기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분위기다. 현대세계의 전환기적 성격은 단순한 국제질서의 외형적인 변화나 힘의 이동이 아닌 그 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류사적 전환이라는 성격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사상이 가지는 보편성은 새로운 세계관, 인생관, 사회적 동력의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현대문명의 위기

지난 10월12일로 지구촌 인구는 60억 시대에 접어들었다. 유엔은 이날을 '60억의 날'로 지정해 세계 인구 증가 문제를 비롯한 인류의 장래를 위협하는 중대 요인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일깨우고 있다.

유엔인구기금은 2015년에는 세계인구가 70억, 2050년에는 94억 내지 100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인구증가는 지금 상당수 인류가 겪고 있는 기아·질병·빈곤·실업·환경오염·전쟁·범죄·인종·여성·(종교)전쟁 등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지난 7월에 발표된 〈유엔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8억4천만명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으며, 약 10억명이 기초생활 요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극빈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다. 8억8천만명이 의료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2억6천만명이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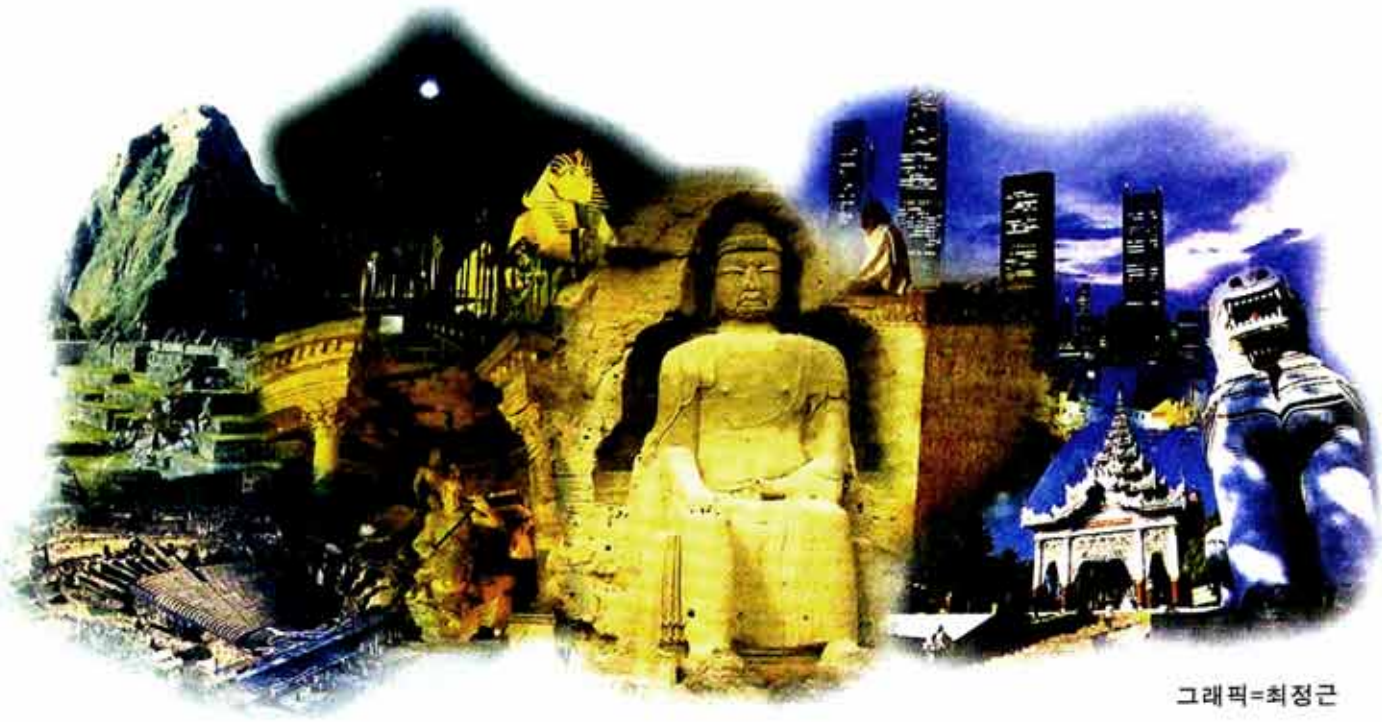
〈유엔인간개발보고서〉는 선진국에 사는 세계 최상위 20% 인구의 소득과 세계 최하위 20% 인구의 소득격차는 60년엔 30대 1이었으나 90년엔, 60 대 1, 97년엔 74대 1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13억명은 하루 미화 1달러 미만으로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 문명의 위기는 바로 이런 세계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 극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 문명의 진화

카프라는 그의 저서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에서 현대문명이 중병에 걸려 있다고 진단하고, 그 원인을 서구문화가 너무 오랫 동안 데카르트·뉴튼적 고정관념(이분법적 결정론적 세계관)에 집착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 고정관념 때문에 현대 문명은 창조적인 유연성을 잃고 경직되었다고 보았다.

유기체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창조적인 적극적 피드백으로 유전변화를 일으켜 다른 종(種)으로 변화되듯이, 문명도 사회제도와 사고방식이 경직되어 있을 때에는 쇠망하고 새로운 문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픽=최정근

환경파괴등 인류문제 풀 새가치관 절실
"연기·평등사상 21세기 이상사회 밑거름"

쇠망해 가는 현대 문명은 기계론적이고 분석적이며, 사변적이고 물질적이며, 개인위주의 남성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새로 대두하는 문명은 시스템적이고 종합적이며, 직관적이고 정신적이며, 환경에 민감한 여성적인 특성을 지닌 문화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 공멸이냐 진화냐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이라는 저서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에 억눌려 역사 흐름에 나타나지 않고 있던 문명간(종교간, 민족간)의 갈등이 수면으로 터져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문명과 문명의 충돌은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되며, 각기 다른문명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만이 세계 대전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1세기의 인류 미래는 자기 중심적인 (我相에 가득찬) 가치 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인류의 가치 이념체제가 전환되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는 암울하며, 최악의 경우 핵전쟁,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자신이 자신을 멸망시키는 최초의 존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불교의 성주괴공(成住壞空)이 말하듯 생겨난 존재는 반드시 무너져 공(空)으로 돌아가듯이 인류 역시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능력에 걸맞는 가치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새 문명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 화폐로부터의 해방

인류의 역사는 원시적 수평사회로부터 신분계급제도를 거쳐 화폐에 의한 지배 등 수직사회로 전개되어 왔다. 이제 새로운 문명은 자각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에 의한 수평적 횡적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직적 위계질서 속에서 부나 권력, 명예 등의 목표를 위해 투쟁하는 사회가 아닌 누구나 현재의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제 당면한 과제는 '자본의 지배로부터 계급의 해방'이라는 것에서 '물신(物神)의 지배로부터 인간의 해방'이라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 과학기술의 인간적 계승

근대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물질적 생활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런 물질적 성공은 인간의 의식과 사회제도의 발전에 필요조건으로 작용했다. 새 문명은 물질과 정신을 아우르며 우주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학을 요구하고 있다. 분자에서 원자, 소립자 순으로 계속 쪼개 나가면 물질의 근본을 밝힐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인간이 마음대로 세상을 개조할 수 있다고 믿어온 물질주의 기술문명이 낳은 환경파괴 등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과학이 문명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 인간중심의 정보화사회

20세기 말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적 발전은 데이터베이스와 뉴미디어 등 정보의 고도화와 다양화가 가져오는 정보 산업화를 이뤄내고 있으며,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 네트워크가 사회의 급격한 정보화를 이뤄내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정보 혁명'은 인간성과 사회성의 상실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아무리 정보가 많고 개인의 개성이 존중된다 하더라도 풍요 속의 빈곤 현상과 개인의 고립화가 심화되고, 사회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 사회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좋은 벗'(善友)으로 규정되는 인간중심의 공동체적 삶을 모델로 하여 인간중심의 네트워크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 불교, 새로운 정신문명의 지주

소유와 차별에 바탕을 둔 현대 문명의 사회질서는 권력에 의해 유지되어 왔지만 새로운 문명 사회는 보편적인 진리의 힘에 진리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대와 사회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어 온 진리는 개인의 자기 혁명(수행)으로 완성된다. 자기 혁명 없이 세계의 혁명은 이뤄질 수 없으며, 진리도 구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소유와 평등을 근본적 가르침으로 삼는 불교는 새로운 문명에 이르는 과정과 성립 이후에 올바른 정신적 지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문명은 새로운 인간에 의해 이뤄질 수 밖에 없으므로 허상과 허위의식에 바탕을 둔 낡은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방향을 갖게 된다. 연기와 윤회의 세계관을 통해 세계가 일체임을 아는 새로운 인간은 갈등과 경쟁의 세계로부터 공존과 연대의 세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미래 문명이라면 불교와 과학의 상호보완은 미래 문명이 존속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인 자율적이고 자각적인 인간 완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법(진리)과 자신에 의지하라는 불교의 가르침이야말로 이런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 작은 보살들의 시대

현대문명이 안고 있는 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새로운 인간형은 '보살상'으로 제시된다. 인류의 사고와 욕구를 지배하고 있는 대립과 경쟁에 바탕을 둔 분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인류의 미래상이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은 "이 시대는 작은 보살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한다. 지금은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작은 보살들이 개미군단 처럼 모여 불국토를 이루어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이다.

첨단과학기술의 고도문명을 구가하는 21세기에 불교는 그 어떤 역사시기보다도 새로운 미래사회의 정신문명을 제시하고 대립과 갈등의 서구적 질서를 조화와 협력으로 포용해 낼 수 있는 사상적, 현실적 에너지를 잠재하고 있다.

기획취재팀
정성운 차장 한명우 기자
김재경 기자 오종욱 기자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 후원회 ARS : (02)700-0108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 A X : (02)705-5229
⊙ 주소 : ㉾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대표전화 : 02-705-5114)

BBS 불교방송 주간방송순서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이유달지 않고 무조건 놓고 가는게 '관'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 이유

문 저는 평범한 여고생이에요.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질문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른 게 아니라,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요. 좀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지만 여고생의 진지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 거리카락을 불가에서는 무명초(無明草)라고 하죠. 스님들이 삭발을 하는 것은 무명초를 자르는 의미인데, 무명초를 자르는 것은 탐내고 화내며 어리석은 마음, 탐·진·치 삼독(三毒), 그 모두를 다 몰록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선지식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자신의 머리를 만져봐라" 하구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올바른 행을 하고 모든 것을 남의 탓을 하지 않고 내 탓으로 돌리는 수도생활을 하는 데 조금도 어김이 없이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부처님 당시에 출가자인 석존과 재가자인 유마힐거사가 한자리를 했던 것은 입산한 스님이든, 재가자이든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불성이 있고 마음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며, 둘째는 그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항상 같이 하고 있으니 유마힐과 석존이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기에 모습은 유마힐거사라는 방편, 부처님이라는 방편을 지니고 나왔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영화 배우들이라면 부처님의 역을 맡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자기의 근본 종지가 바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통달했기 때문에 그 배역을 가지고 나온 거죠. 유마힐은 유마힐대로 그 배역을 가지고 나온 거구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부를 똑같이 했어도, 뿌리는 같으나 모습이 각각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서,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는 중생들은 말없이 거둘지언정 보이는 데서, 즉 말하자면 이끌어 갈 수가 없으니까 방편으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거죠. 안팎을 다 이끌어 가려고 말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

문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일곱 발자국을 걸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로 일곱 발자국을 걸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그것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그것은 모습이 아니라 뜻을 가르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신 뜻은 결코 부처님 당신만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삼라대천세계, 즉 우주천지와 세상의 근본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본, 마음의 성품이야말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우주천지의 근본이었음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밝아있기에, 있다 없다는 말조차 불일 수 없는, 그래서 본래부터 있어온 이 마음의 근본을 깨우치고자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의 근본을 깨우친다면 일차적으로는 자기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숱한 중생들을 다 제도하여 마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방을 둘러 보셨다는 것은 모두가 다 무공(無空)이요, 무색(無色)이므로 모두 다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을 비유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일곱 발자국을 떼어 놓으셨다는 것은 '모두가 다 한몸이요, 한자리이면서도 또한 너가 있고 나가 있느니라. 우리의 생활은 바로 찰나찰나의 연속이지만 항시 여여하므로, 그것이 곧 그대로 진리의 길이니라' 하는 뜻을 우리에게 말없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래 진리, 이 마음의 근본은 말로써 다 표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식이나 지식으로도 다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대 부처님과 선지식들께서는 말없는 가운데 가르치셨고, 말없는 가운데 배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하기 이전, 생각나기 이전,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 근본을, 즉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왜 '본래 여여하게 걷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러는지를, 지혜롭게 참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깨쳐야겠다는 생각도 욕심이니 생활속에서 하나하나 체험해 나가세요

일체경계 놓다보면 '자기가 부처' 알아요
'내가 한다' 생각없이 보고 듣고 행하도록

'관'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요

문 주인공에 모든 것을 몰록 놓고 관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저는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심자입니다. '주인공,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주인공 당신이 나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 줘'라든지, '주인공, 지금 나에게 이런 고민들이 있어, 당신이 나의 주인이니까, 잘되든 못되든 당신에게 맡길게' 라고 하는 것이 옳은 공부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쩐지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부르니까, 허공에다가 하나의 상을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전부터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다가 맡기고 주인공이란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스님께서는 주인공에게 몰록 맡기고 관하라고 하셨는데 그 '관'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막연하게나마 어떤 생각이나 기분, 욕구 등을 영화보듯이 보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것이 관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사주팔자를 보았는데요, 제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사주팔자를 봐 주신 분이 이야기 하셔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주인공'에게 놓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큰스님, 이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초심자로서 처음 배울 때는 자기의 근본자리에 일체를 맡겨놓으라고 합니다. 맡겨놓을 수 있는 선을 세워야 마음이 안위가 되고 편안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걷지도 않고 뛰려고 하면 안됩니다. 내가 진짜 걸어보고 내가 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려놓지 못하면 전자에 입력된 대로 그대로 나오니 피할래야 피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바꿔서 입력을 하라는 소린데, 이 세상은 구르면서 끝없이 이어져요. 굴림을 모른다면 나라는 게 세워지기 때문에 동참을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세울 게 있기 때문에, 놓을 게 없다고 세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놓기는 뭐를 놓겠습니까. 그건 벌써 나라는 걸 세우는 거죠. 한번 다시 정립해서 놓을 게 없든 놓을 게 있든 몰록 놔야 합니다. 이게 틀리다, 저게 옳다 이러지 말고요.

잘못한다도 없고 잘한다도 없어요. 나무가 바람에 쓸리고 눈에 맞고 비를 맞고 또는 공기, 태양열 등이 많이 흡수가 돼도 나무는 말이 없어요. 뿌리만이 올리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순환을 하지요. 그래서 말길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대로 여여하게 맡겨지는데 그 때까지 우리가 넘어서야 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잖아요?

나무는 그대로 뿌리에서 흡수해서 밑으로 내리고 올리고 태양열, 공기 등 모든 거를 흡수해서 내려보내도 그 내려보내기 위해서 나무가 때로는 비에 젖고 때로는 눈에 젖고, 때로는 바람에 쓸리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에 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 흡수해서 내려보내고, 밑에서는 수분이나 또는 황열, 철분 등을 흡수해서 올려보냅니다. 그렇게 영양을 섭취해서 푸르르게 살고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닥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뿌리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겁내지 않고 굳건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주인공 이름만을 부르니, 허공에 하나의 상을 만든다느니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더욱이나 주인공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놓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데서 잘못되고 잘되고가 돌아가니까 생각을 해야, 즉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좋을텐데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없다면 목석이 돼서 무효예요. 생각을 못하면 목석이 돼서 무효고, 생명이 없으면 무효고, 육체가 없으면 보이지 않아서 무효이니 삼단계가 하나로 집합이 돼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유를 붙이지 않고

☞ 1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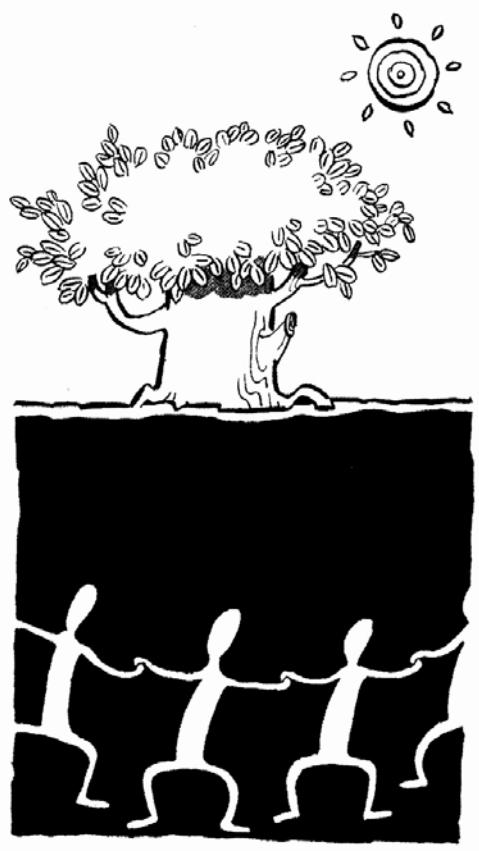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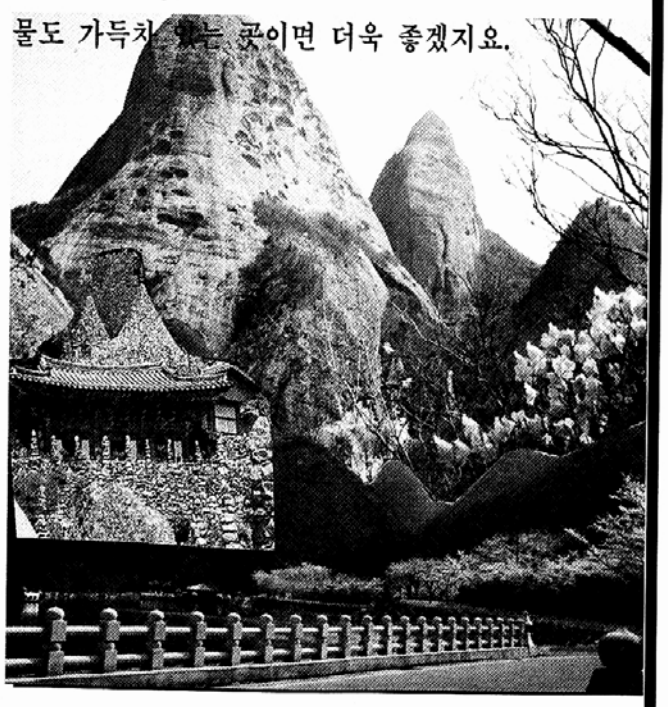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천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94-8859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탑사 —탑영제 방생—

· 관광과 방생을 한 곳에서 ·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433-2900, 0303
(0655)432-0652, 0072
■약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새천년 사찰성지에 석불, 석탑, 석등으로 도량장엄하겠다는
대서원을 세우고 아세아예석은 탄생하였습니다.
아세아예석 (亞世亞藝石)
기획도감 부림 거사
■ 전화 : 02-3417-3388
■ H.P : 011-9674-3388
■ FAX : 02-3417-3388

⊙ 취급품목:
석불, 옥불, 석탑, 석등, 영탑, 시비
석판화(채색인물, 민속화, 가훈등)캐릭터 예술조각

◆◆ 3대 만족 ◆◆
1 가격결정은 각 사암 주지스님 결정 (가격 경쟁력 있음)
2 석조예술 창조하는 안목 있음 정교하고, 균형잡힌 아름다운 선, 잔잔한 미소
3 천년세월을 지켜갈 작품, 신심있는 대서원으로 봉사함
※ 현 도리산 육지장사 6만불, 천탑, 천등, 불사 중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근본에 맡기면 악도 선도 둘 아니죠

☞ 15면에서 계속

그 자리에 무조건 놓고 가는 것이 관하는 것입니다. 놓는 것 따로 있고 관하는 것 따로 있지 않아요. 그 자리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외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놓을 수 있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경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의 그 모습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체 경계를 놓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사량이 끊어진 중도의 마음, 텅 빈 마음이 되고 난 연후라야 이름지을 수 없는 미묘한 공덕의 꽃을 피워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래 자리를 마음껏 쓰려면…

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마치 허공과 같이 곽차서 공한 그 자리, 바로 모습 없는 나의 참나가 세상 모든 것을 들이고 낸다는 것을 사무치게 느껴도 보고, 울어도 보지만 여전히 우매한 중생인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습과 이름을 붙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걸어야 정말 죽어서, 항상 둘이 아닌 내 본래 자리를 마음껏 쓸 수 있을런지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답 공부하는 사람들이 빨리 깨우쳐야겠다고 하는 그것 또한 착이기 때문에 빨리 깨우쳐야겠다는 생각까지도 놓고 그대로 자기 자신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빨리 깨우치고 싶어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내가 항상 말을 하듯이 그런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그것을 밀고 나가고, 자신이 없다면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기밖엔 못 디뎠는데 나중에는 저기 먼 데까지 딛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넓어져서요. 차츰차츰 뛰어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뛰려면 안 되니까 조그만 거부터 체험을 해나가시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 하나 체험을 해나가시다 보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도 만반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을 보면 오관을 통해서 지금 오신통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100%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위법만 활용을 하지 무위법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인해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욕심 없이,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습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대의적인 일을 위해서 했다면 악한 일이 아닙니다. 거짓말도 남을 위해서 방편으로 했다면 잠시 거짓으로 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 생각해서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타인의 육신이나 내 육신이나 똑같은 중생이란 말입니다. 자기 중생을 자기가 이익하게 만들 수 있어야 남을 이익되게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잘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그러니 깨달아야만 한다는 그 관념에 머물러서 얼마쯤이나 더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 하나 체험을 해가면서 턱턱 밀고 나가보세요. 의심을 하거나 걱정하지 말고요. 그렇게 밀고 나가다 보면 점점 감응이 와서 느끼게 됩니다. 점점 점점 점점 아주 근어지는 겁니다. 굳어지는 반면에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구요. 나라에 위기에 온다 할지라도 그걸 밀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신이 생깁니다.

참회의 참뜻 알고 싶어요

문 스님께 감로법문을 구합니다. 참회란 '용서를 빈다', '뉘우친다'는 등의 학적인 뜻이 있습니다. 행법으로는 이참법, 사참법등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금강삼매경에 '어떻게 하는 것을 참회라 하나이까?' 아난이 여쭈었을 때 부처님은 '진실 관에 들 때 모든 죄는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무상임을 관하면 죄과란 남아 있을 수가 없다. 죄가 없어지고 번뇌망상의 마음이 없어지면 이참 곧 참회가 이루어진다 하는데 참회의 진정한 뜻을 알고 싶고, 혹 어떤 도반은 예불시간에는 참회하라고 하는데 참회와 예불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답 법회에서 여러번 한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어떤 농부가 논일을 보러 나가다가 보니까 논두렁 옆 숲에 큰 구렁이가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는지 새끼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본래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들고 있던 삽으로 그 구렁이를 뭉텅 뭉텅 끊어버렸습니다.

되돌려 놓으면
어느것 하나
참회아닌것 없어요
일을 해도 참회
예불해도 참회
남 배려도 참회

구렁이야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구렁이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한 가족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것이죠. 그런데 훗날 그 농부는 손주를 다섯 낳았는데 모두가 다 불구자였습니다. 큰 아들이 손주를 낳아도 그랬고, 작은 아들이 손주를 낳아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 하겠지만 사실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기구한 인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수대(代)째 내려오는 깊고 깊은 업연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무심중에 저지른 일 때문에 내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모르니까 그저 모르고 받습니다만,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전에 내가 지은 생각이나 행동과 연결되지 않고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즈음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지은 모든 업보가 한 군데에 입력되어 있다가 인연이 닿으면 솔솔 하나 하나 나오는 것이기에 나온 그 자리에 다시 놓아야 앞서의 입력된 것이 지워지므로 몰록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과의 법칙을 다 알고 나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때가 늦습니다. 내 앞에 닥쳐오는 대로 모든 경계를 순간 순간 되돌려 놓아서 새로이 입력되게 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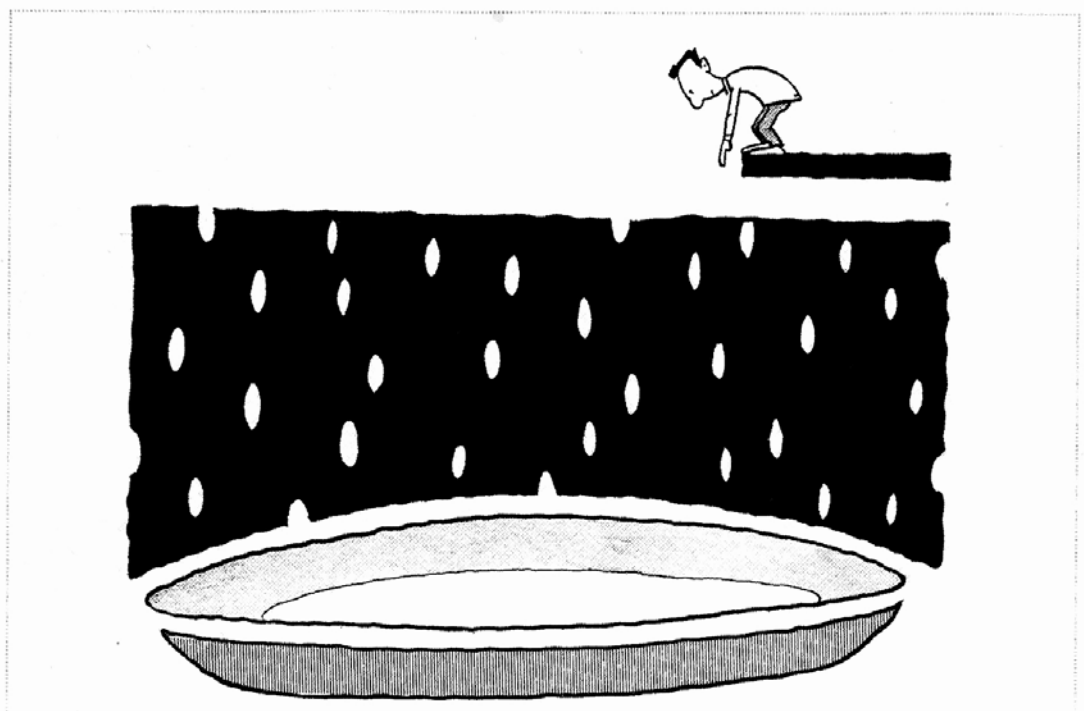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 도리를 믿고 그렇게 한다면 모든 업들은 다 녹게 되는 것이죠. 설사 지난 생 어느 때에 죄업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한번 돌려 놓는다면 그대로 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되돌려 놓는 수행이야말로 참회중의 진참회(眞懺悔)요, 공덕중의 공덕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가릴 것 없이 모두 주인공 한마음에 놓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참회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일을 해도 참회하는 것이요, 법당에서 예불을 모셔도 참회하는 것이요, 남을 위해 한 생각 내주는 것도 참회하는 것이니 즉 일체를 그 자리에서 함을 믿고 놓아가다 보면 참회할 것조차 없음을, 놓을 자리조차 없음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 들어오는 물들은 다만 몰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가 되듯이, 불교에 귀의하기 위해서는 다만 그런 마음이면 족한데, 세상에는 마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미 바다, 즉 불법이라는 한 통에서 헤엄치고 있으나, 다만 사람들이 모르고 못 느낄 뿐이죠. 마음을 가졌다면 모두 결국 불법이라는 큰 바다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도 예외없이 모두 부처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불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 이치를 잘 알아서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자기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발현하는 노력을 하세요. 나는 이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돌이켜 보면 악하게 되는 것도 많고 반대의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꾸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무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생활하는 데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지 혼란이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 윤리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이 사라지고 뭐라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심지가 아직 자리 잡히지 못해서인지 가르침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답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깨달았다 해도 그 이전에 수억겁을 거치면서 나올 때에 무슨 일은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 몰랐을 때 내 모습, 잘못했을 때 내 모습, 알기 이전의 내 모습으로만 본다면 밉고 좋고가 없습니다.

저렇게 몰랐었지, 모두 내 모습 같구나' 하고 생각하면 정말 애닯고 애처로워서 마음을 내게 되지 '저건 몰라서 그래'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사실이 그렇구요.

지혜가 풍부해야 자비도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지, 지혜가 풍부하지 못하면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하고 부모를 위한다 하더라도 자유스럽게 해주면서 위해야지, 말이나 행동으로 간섭한다면 마음이 넓어질래야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 산천초목들을 보세요. 요즈음처럼 가을이 되면 이파리가 떨어져서 그것이 거름이 되어 봄이 되면 다시 푸르르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망가뜨리기도 합니다만,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것도 망가뜨린다고 할 수 없겠지만 잘못되고 잘되는 것은 물 흐름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마음 떠나서는 계발할 수도 없고 마음 떠나서는 원력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과 상대를 보고 일어나는 양면의 마음을 다스려서 놓을 줄 알아야만이 진정으로 규범, 윤리도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기준을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지키다 안 지키다 하지만, 근본에 일임하고 중심을 세운다면 악도 선도 둘이 아니게 올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현상계 이끄는 법칙 있습니까

문 현상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리고 현상계를 이끌어 가는 법칙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답 어리석고 못난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 위에는 거꾸로 진정으로 못난 사람이 있으니 이 무슨 원리입니까? 잘난 사람은 못나고도 못난 그 사람의 뜻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못난 사람이란 누구이겠습니까. 다 놓고 쉰 사람, 세상 모든 것을 나와 둘이 아니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예 못났다 못나지 않았다는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은 사람도 같고,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한 사람도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이 세상을 지극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넓고 평온하며 아름답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진실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진실로써 걸어갈 뿐입니다. 하늘 한 번 쳐다보고 빙긋이 웃고, 산을 바라보면 싱그러운 마음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그는 가장 못났으면서 가장 잘난 사람인 것이죠. 못난 사람이라고 해서 왜소하고 작게 마음을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허허 웃을 수 있는 대장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는 모두 곧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계에 부딪쳤을 때, 얼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자리에 맡겨놓으십시오. 그리고 얼른 그 마음, 경계에 끄달리는 마음을 주인공에게 밀어버리세요.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즉시 맡기세요. 그러면 순간 끄달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용광로여서 헌 쇠를 집어넣는다 해도 다 녹여서 깨끗하게 새로운 도구가 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과 역대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것, 그 자리로 우리는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자리를 금강같이 믿어야 하고, 그 자리에 일체의 번뇌와 경계를 놓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진하세요. 사실 알고 보면 현상계의 법칙도, 그 법칙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리고 현상계를 이끌어가는 법칙도 마음법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현실도, 현상계도, 지금의 나도 우리 모두도 존재치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현상계도 그 법칙도 마음과 둘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 자식관계도 '내기준' 앞세우면 불편
"나도 예전엔 저랬지" 생각해야 이해 커져

불교에 귀의하고 싶습니다

문 존재의 문제어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살아 왔습니다.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무엇이 옳은지조차 모르고 그냥 그렇게 위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모든 욕심과 꿈을 접고 불교에 귀의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답 참으로 불법에는 단계도 없고 일정하게 정해진 문도 없습니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세상 학문에 유식하든 무식하든, 불교를 알고 믿은 지 오래든 초심자이든,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똥물이든 짠물이든 흙탕물이든 빗물이든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 차별이 없이 모두 한 맛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는 불교라는 큰 바다에 들기 위해서는 다만 한 가지 마음이면 족합니다.

이제라도 그런 생각이 났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생각이 나온 그 근본자리에 맡입니다. 불교에 귀의하고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근본자리에 귀의하는 것임을 바로 알고 일어나는 모든 생각, 경계들을 나온 그 자리에 다시 놓는다면 더 큰 세계, 더 넓은 세계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신심이 점점 피어오르도록 열심히 관하시기 바랍니다.

선악 가릴 수 없다는 생각 들어

문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온갖 윤리나 법, 도덕 같은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규범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비난을 당하곤 합니다. 이런 규범을 지키는 것이 선이요 어기는 것이 악이라고 우리는 늘 배워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이러한 규범들이 과연 선하거나 악한 건지 규정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생활에서 배우고 가는,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부모들 눈이나 생각만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녀들 쪽에 서서 자녀에게 한마음이 돼 준다면 폐단이 올 게 없고, 자식들은 부모한테로 들어가서 그 기준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도 폐단이 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면서 "너는 이렇게 안하면 밥 빌어 먹는다" 고 말하고, 부모에게는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마음으로 가정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우주 천하를 통일하겠습니까. 한마음으로 말입니다.

제각기 모습이 다르고 제각기 차원도 다르지만 본래부터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부터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와서 물질에 끄달리고, 먹고 사는 데 끄달리고, 애착에 끄달리고, 욕심에 끄달리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지 애초부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름이나 형식에 끄달리지 마세요. 이름이나 형식에 끄달리다가는 정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어떨 때 여러분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허, 나도 예전에

여시아문의 새책
대행 스님의 신행 문답 ①
생활 속의 불법 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A6신 410쪽
여시아문 펴냄
값 5,000원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앎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과 '대행 스님'이 나눈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빚어낸
깨달음의 和音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38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15)부터 140호(97. 9. 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난에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최근의 절박한 경제난 타개의 한 방편으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고자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불필요한 경비를 제거하고 재생용지를 사용한 것도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여시아문의 의지를 실현한 것입니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강좌

남 녀 비구 비구니 **철학원생 모집**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 인연은 운명에 있다.
세번째 인연은 이름에 있고
네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다.
오복은 이것을 잘 분석하는
진정한 도인을 만남에 있다.
사주 작명 관상 풍수부적
귀 달 마 사 포 교 원
02)999-4804/02)999-5551
02)921-4804/02)928-5551 달마 스님
051)418-4804

깨어있는 의료, 교육자를 찾음
-. 참선은 자연치유력을 극대화합니다.
-. 대학에서 참선(물리치료사, 간호학, 호스피스, 무도, 치유상담역학)
과를 신설, 의료, 교육기관에 도입하고자 하는 분
박민수 참선교육원
http://min soo zen.pe.kr
062)251-2733/017)609-906

수맥과 건강 무/료/강/좌
◆매주 목요일 14시
◆장소 : 조계사쪽 버스정류장 앞 견지불교사 3층(견지광장)
◆지참물 : L로드, 추
※ 수맥강좌 상담 ※
대붕기살림
02)734-2118/011)239-6817

풍수지리 특강
풍수지리 특강안내
⊙음택, 양택 생활풍수 강의
⊙매주: 화요일 10:30부터 시작
⊙매월 : 1회 현장답사 실습
강사약력
⊙한국일보 문화센타 풍수지리 강사
⊙한국 풍수지리 연구회 회장 ⊙남경 풍수지리 연구회 회장 ⊙「명당과 생활풍수」 지음
남경풍수지리 연구회
서울 종로구숭인동 70-15(2층)
남경 성필국 선생 직접 강의 (02)763-6949

역학 수강생 모집
▶과목: 사주, 옥효, 신수, 작명, 관상
▶과정: 기초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3시~5시
저녁 7시~9시 (월~금, 주5일)
▶강사: 엄윤문 원장(명학비해 外 20여권 저술)
김희선 선생, 전종남 선생
▶기타: 사주감정 의뢰하실 분(3만원 입금후 전화요)
제일은행(105-20-258212) 전 종 남
▶문의: 02)752-9013~4, 지하철 서울역③번출구
20년전통 **청운역리학원**

구인

부전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40~50세
금호 관음사
02) 2234-3310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50대~60대)
양평군 양동면
정 토 사
0338)
771-8209,8210

구 직
사찰에서
운전기사로 처사경
일할 곳을 찾습니다
0351)
826-1152
주간에 전화 받지 않으면
야간에 전화 주십시오

사찰 걸립할 터를 시주할 신심있는 불자를 찾습니다
011)
9027-8207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약간의 보시금을 드립니다.
(45세-60세)
0582)
533-2133

공채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주)
고졸이상
35세~55세
10시~17시 근무
02)766-0057
02)3675-0397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기타

건강에의 신비! 준천玉山家(옥)
고혈압 당뇨, 간경화, 폐암, 관절염,
두통, 정력부족 기타 성인병환자들이 이
옥을 활용하고 효과를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의학적 **자연치유!** 건강상태에 따라 복제품과 사용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대일광업 서울중앙판매소 玉山家 (02)777-0105

우리맛입니다!
된장,간장,고추장,메주
사찰전통법으로
숙성, 제조하였습니다.
신도님들의
이용 바랍니다.
0351)863-1888
0351)863-0408
지 장 사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무료치료 안내
뼈 단순골절 기공으로 10분내
무료로 부쳐드림.
엑스레이 필림 지참요
연락처 : 0374-332-9190
016-363-9190
※기공 무료교육도 실시함 ※

사찰안내

포교원 안내
◆위치 : 천안
◇부지 : 80평 ◇법당 : 12평
◇요사채: 20평
◇가액 : 6천 5백만원
◇강능고찰터 1천평(3천5백만원)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02)723-4082/733-0108
광진불사

포교원(법당) 안내
◆ 부산시내 최요지 상권중심
◆ 삼존불(아미타, 관음, 지장)
◆ 법당, 방2칸, 큰거실
◆ 총 55평,옥상 사용가능
◆ 모든시설 완비, 즉시 법회가능
◆ 전세 1천만원, 월 50만원
011)9545-0089

포교원 안내
도심속의 조용한 포교원입니다.
수행하시거나 기도처로 적합 합니다.
◆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평수 : 45평
◆전세포함(2,800만원)
051)337-0648
016)554-2308

사찰 안내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성당시장 사거리
◆가액 : 보증금 2,000만원(월 30만) 시설비 1,000만원
◆시설: 관음보살(동불), 인등(400), 본존, 신중, 칠성, 지장, 나반 및 산신탱화예불종등 의식용품 일체
◆법당(30평) 요사(26평) 전화, 팩스, 대형냉장고등 사정상 급매(스님 직접 상담)
02)493-7603 / 011)271-7603

포교원 안내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시외버스 터미널 앞
◆법당 : 30평 (휴게실, 공양실, 거실, 방완비)
◆ 기타포교 당시설완비
◆가액 : 보증금500만원(월60만원) 권리금1,800만원
051) 557-2982
011) 482-2091

불사종합 안내
◆전국에 소재한 사찰 매매, 전세 무상 안내
◆전국에 소재한 사찰부지 무상 안내
◆전국에 소재한 포교원 무상 안내
◆부전스님, · 공양주보살님 가실분, 모실 분 무상 안내
◆스님외 일반인, 무속인, 보살 및 투기성 있는 상거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동국불사
02)351-4447 / 011)736-4447

절터 안내(별장터)
◆위치 : 전남 진도군 임해면 죽림 정동항에 위치 (해돋이볼수있음)
◆땅 : 4,000천평
◆저수지 : 79ht, 담수량 273,000m
◆여귀산(해발457m)안에 사찰위치-등산코스, 바다위 수십개의 섬이 있어 경관 빼어남. 물이 깨끗
◆사찰서 해수욕장 5분거리
◆국도서 찻길로 사찰까지 약 5분거리
◆방문 답사후 가액 상담 요망
0632)544-0086/0056

사 찰 안 내
◇위치 : 충남 ◇위치 : 경남
◇법당 : 30평 ◇법당 : 30평
◇요사 : 60평 ◇요사 : 100평
◇부지 : 1,400평 ◇부지 : 130평
◇가액 : 1억(급매) ◇가액 : 4억
●전남, 광주, 순창, 남원, 정읍, 나주 목포지역에 사찰 양도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토굴 안내
◆위치 : 강릉시 왕산면
◆평수 : 1,800평, 건물 2동
◆가액 : 7천 5백
011)9782-9544

사찰 안내
◆위치 : 충남 논산시 연산면 대전에서 30분거리
◆부지 : 368평
◆법당 10평, 요사채 30평
◆가액 : 9천만원
0461)735-5850

사찰 안내
◆위치 : 밀양시 상동면 (시내에서 5분거리)
◆대지 : 총 235평
요사채- 슬라브 21평
◆법당 : 슬래이트 17평
◆절충가 : 1억
011)560-2478

포교원 안내
(사찰 운영관계로 사정상 급매)
◆위치 :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평수 : - 39평 3층 요사채 방 3개, 거실, 욕실, 주방, 최신설비
- 38평 4층 법당, 주지실, 상담실, 욕실
◆가격 : 1천만원 - 월 50만원 (월세만도 가능함)
시설완벽, 신도확보, 교통, 시장 편리함
0343)469-1562,443-9733
016)363-1562

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천안시 성정동
◆건물 : 1층
◆요사채 : 21평, 주방 : 10평, 법당 : 21평(2층)
◆특징 : 지장보살 칠불
◆모든시설 완벽함
◆가액 : 전세 6천만원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417)577-1469

사찰부지 안내
◆위치 : 충북괴산
◆면적 : 임야 27,000평
◆준농림지역, 도로접, 야산
◆가액 : 평당 6천원 (1억 6천만원)
상보에 귀의하옵고 사찰 및 부지를 안내하오니 많은이용 바랍니다.
삼호공인중개사
0431)216-7900 심청산
011)484-4555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최고요지
◆평수 40평
◆법당, 청동삼존불, 공양실,방2개, 에어콘, 후불탱화, 시설 최고,
◆옥상40평 사용 가능
◆보증금 3000만원 (월20만원)
051)293-0137
011)825-1662
※꼭 하실 분만 연락바랍니다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부곡1리 75번지
◇평수 : 1,907평(대지 207평)
◇요사 35평 · 전 1,700평
◆가액 : 9천만원
◇현재 임법당. 아산밑에 큰 고래산이 있고,
◇3층계단으로 조성 ◇주차장 완비
◇사찰까지 2차선으로 포장되어 있음.
011)655-3883/011)653-8375

사찰 안내
◆위치 : 창녕 부곡온천 5분거리
◆대지 : 130평
◆법당 : 10평(산신각, 미륵불)
◆요사 : 30평
◆가액 : 6천8백만원
017)310-6482
0551)231-5778

사찰 (급)안내
◆위치 :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7)430-9051

사찰 안내
◆위치: 경남 양산시 중부동 74 개원사
◆대지: 84평, 법당: 10평, 아랫채 8평, 산신각 5평, 창고 7평
◆가액: 9,000만원
0523)385-0854
017)573-0854

만물(급)안내
◆위치 : 강동구 암사 지하철역 입구 (암사 종합시장입구, 300여 사암 집결지역)
◆평수: 약 300여평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 140만원)
◆입점 물건, 시설비 포함 2억 2천(절충가능)
02)442-2866/011)769-5090
(주인 직접 상담)

임법당 안내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시내 (전철역서 10분거리)
◆대지 : 76평
◆가액 : 1억 4천만원 (답사후 결정)
017)535-4722

포교당 안내
◆위치 : 충남 대전시
◆평수 : 40평
◆방 2개, 주방1,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칠성,산신탱화
◆가격 : 전세2300만원 시설비
◆즉시법회가능
019)211-8533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방 2, 주방 1, 법당, 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 · 산신탱화
◆ 시설 완벽
053)942-070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거제2동 (사직운동장 주변)
◆2층 38평(삼존불, 후불탱화)
◆법당, 방2개, 부엌
◆가액 : 전세 5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1,300만원(답사후 절충)
051)505-3729 /019)255-1818

포교원 안내
◆위치 : 부천시 송내동
◆평수 : 3층 - 24평
◆가격 : 보증금 5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반액 600만원
◆주방 1, 방1, 삼존불, 신중탱화, 보일러시설 완비
032)654-5859

토굴 안내
◆위치 : 경북 봉화군 현동
◆평수 : 밭2000천평, 논600평
◆대지 : 105평, 가옥한채
◆산새수려하고 스님이 5년 살았음.
◆가액 : 3,500만원(절충가능)
0573)672-2825

천혜의 명당 부지안내 (사찰, 포교원, 수련원, 기타사업시설)
◆위치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면적 : 377평
◆도시계획용도 : 일반주거지역 ◆지목 : 대지(나대지 상태)
◆추 천 용 도 : 사찰, 포교원, 수련원, 기타 사회 사업시설 가능
◆부지의 특징 : 전면 - 대단위 주거지역을 안고 한강조망 가능
후면(측면) - 울창한 수림의 임야
대지의 형태 및 주변 형상 - 삼태기형의 복터
◆매각조건: 시세의 절반가격(평/150만원)
단, 불사(佛事)용으로 사용시, 일부 저리융자 알선도 가능 (22,000만원까지)
02-713-6262, 011-236-6918 (신심있는 불자 소유)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광릉 수목원 근접
◆대지 800평, 법당 40(목조) 요사채 80평
◆산세 좋고 계곡 있음.
◆가액 : 5억 7천만원
▶전국 사찰이나 임자를 양도 양수 하실분 찾습니다.
▶전화상담시 보안유지함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부산시
◆대지 200평
법당 30평, 요사 60평
◆가액: 6억 5천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충북 진천군
◆대지 400평
법당 20평, 요사 30평
◆가액 : 6천5백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 위치 :천안시 ◆부지:3천평
◆ 법당 + 명부전 합 80평
◆ 요사 : 60평
◆ 납골법당 40평, 산신각 20평
◆ 산세좋음. 불교양로원 및 실버타운적지
◆가액: 8억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포교원 안내
◆위치 : 서울시 (전철역에서 200m 거리)
◆대지 : 55평
건평 : 2층 법당 (40평)
1층 요사 (40평)
◆가액 : 3억 2천만원
◆도심포교 최적지임
018)273-9390/ 02)561-7791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최고요지
◆평수 40평
◆법당, 청동삼존불, 공양실,방2개, 에어콘, 후불탱화, 시설 최고,
◆옥상40평 사용 가능
◆보증금 3000만원 (월20만원)
051)293-0137
011)825-1662
※꼭 하실 분만 연락바랍니다

암자터 안내
◆위치 : 용인군에서 이천군 직경 지역인 덕평아이시에서5분거리
◆면적 : 463평(잡종지)
◆가액 : 9천2백6십만원
◆특징 : 진입로와 463평. 토목공사완료 아파트와 주택 거주지역으로 교통이편리함.
0333)683-0338
011)346-8001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주차공간 확보 장애물 과태료

(생활) '내집 앞' 등을 이유로 길가에 장애물을 설치해 남의 주차를 방해하면 최고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11월22일 주택가 골목이나 상점 앞 등에 자신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돌덩이, 물통, 간판 등 불법 장애물을 내놓아 다른 사람의 주차를 막으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제품 사용소감 공개

소비자들이 제품을 써본 후 사용소감과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가이드클럽(www.guideclub.com)이 문을 열었다. 이 사이트는 제조업체나 판매업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11개 아이템의 1000여개 품목이 올라 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원고료도 받을 수 있다.(02) 3472-3642

인턴사원 산재 고용보험 혜택

(근로) 정부지원 인턴사원의 신분이 종전의 연수생에서 계약직근로자로 격상돼 산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인턴사원은 또 고졸 대졸 등 학력과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50만원씩 똑같이 받게되며 연수기간은 종전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노동부는 11월 19일 이같은 내용의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옛 학생용 버스카드 폐지

(교통) 서울시는 1일부터 옛 학생용 버스카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학생전용버스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옛 학생용 버스카드 소지자는 1일부터 학생요금(340원)이 아닌 일반요금(490원)을 내야 한다. 시는 유효기간이 입력된 실명 학생전용버스카드를 지난 3월부터 발급하면서 옛 학생용 버스카드를 학생전용버스카드로 전환토록 유도해 왔다. (02)3707-9731

김치, 심장병 고혈압 예방

(건강) 김치를 먹으면 심장병과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제대 식품과학부 송영선 교수팀은 11월 22일 쥐에게 장기간 김치를 먹이면서 혈압을 측정하고 혈액을 분석한 결과 혈압은 그대로 유지되고 동맥경화 등의 원인이 되는 혈전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효과는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혈전용해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

커피찌꺼기 담배냄새 제거

(상식) 집안에 밴 담배냄새를 없애는데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면 좋다. 청소하기전 커피 찌꺼기를 여기저기 뿌린 뒤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담배냄새가 없어진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중산층 얇아져…근로의욕 저하 우려

최저생계비 이하 빈민 1천만명 넘어

불교는 모두가 고루 잘살 수 있는 '서로 공존하는 사회'를 불국토 이념의 근본으로 삼고, 국가와 종교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물론 부의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그 속에서 소욕지족(小慾知足)할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긍지와 자부를 느낄 때 비로소 나라가 편안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최근들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1월 9일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중산층의 소득이 상위층의 절반이하로 떨어져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이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 분류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위계층 소득에 대한 중위계층 소득 비중은 48.7%에 그쳤다. 지난 85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위계층에 대한 하위계층 소득 비중은 24.8%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내놓은 '3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뚜렷이 나타나있다. 지난 3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상위 20%의 한달 평균소득은 437만 9900원으로, 하위 20%의 5.3배나 됐다. 97년 4.5배에서 상당히 올라간 수치다. 이를 반영하듯 상위 20%의 소득은 IMF이전의 소득수준(97.5%)을 거의 회복했으나, 하위 20%는 82.7%에 머물고 있다.

그런가하면 11월 10일 유엔개발계획(UNDP)과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최저생계비(1인당 월 23만4천원) 이하 빈민이 1천만명을 넘어섰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원인을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절대적 소득분배가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부익부 빈익빈' 심화현상은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던 중산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정치의 이상(理想)을 '내 부성원의 절대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지도자가, 국가가 정치를 올바로 펴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설하셨다. 〈증일아함경〉에도 "소떼가 강물을 건너갈 때 길잡이소가 길을 바로 가지 못하면 뒤따르는 소들이 물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미국이 망한다면 그것은 인종문제가 아니라 분배문제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부엌데기로 천대받아온 아줌마들이 사회의 진정한 '살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을 뭉쳤다.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창립대원 2백여명은 11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이날 낭독한 '아줌마 헌장'에 따라 '산소같은 사회 만들기'에 나섰다.

지도층 火葬 기피

정치인 사후화장 신청 저조

'매장관련법' 국회서 낮잠

우리나라 지도층들은 죽어서도 지도층으로 남고 싶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 장묘문화에 대한 개혁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화장(火葬) 참여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화장 참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사후 화장을 약속한 지도층 인사는 고건 서울시장 국민회의 정호선 의원 등 20여명으로 '장묘문화 개혁 범국민협의회'에 사후 화장을 신청한 5천여명 가운데 0.4%에 불과하다. 이중 정치인은 정호선 의원 단 1명 뿐으로 정치인의 참가율이 제일 낮다.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서랍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틀만 나면 "나라를 위해서…"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살아서도 아니고 죽어서 화장하자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서울시의 화장률은 98년 36.4%에서 금년에는 40%를 웃돌 전망이다. 종교·사회시민단체들도 화장을 적극 권장하고 나서고 있는 판국이다.

'개종과의 전쟁'

불교-힌두교 공동선언

교황 '아시아 포교' 지시 맞서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아시아 포교 강화' 지시에 맞서 불교와 힌두교 성직자들이 개종저지 단결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AP통신이 11월 21일 전했다.

AP통신은 21일 네팔 남부 룸비니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 종교 국제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각국 성직자 1천여명은 교황의 아시아 포교 강화 발언에 대해 불교와 힌두교에 대한 '전쟁'이자 '정신적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참석한 아시아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의 강압적인 개종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바오로 2세는 지난 6일 인도 뉴델리에서 "아시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찬송을 원하며 예수만이 베풀 수 있는 생명수를 갈구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바오로 2세는 또 배석 주교들에게 "로마 가톨릭이 소수인 아시아 전역에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확산시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교황의 포교 지시를 전해들은 인도 힌두교 급진파들은 의국 선교사들의 인도 철수와 400년전 힌두교도를 학살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시론

IMF 2년



김 춘 남 〈용인대 교수〉

"위기탈출 했다지만 정치 사회 혼란여전 아직도 숙제 남았다"

12월 3일은 우리가 IMF 구제금융지원을 신청하고 그 관리체제를 받아들인지 만 2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우리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 운운하며 모두가 망연자실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일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의 선진국대열에 진입했다는 허울좋은 환상에 사로잡혀 흥청거리던 우리가 아니었던가? 그야말로 IMF관리라는 치욕은 어느날 아침 문득 내려진 날벼락과 같은 것이었다. 부도, 실업자, 노숙자, 가계파산,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의 용어가 매일 신문지면을 장식하던 와중에서 실로 우리는 그동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시련과 고초를 겪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뜩이나 줄어든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안방 깊이 간직해둔 어린애의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국가적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범 국민적 의지와 단합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환난을 극복하는데 5년은 족히 걸릴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2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단기간에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여기엔 국민의 단합된 위기 극복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향후진로에 대해 결코 낙관만을 할 수 없는 위기적 요소와 불확실성이 도처에 엄존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경제위기탈출을 위해 정부가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공적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쏟아 부은 결과,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국가채무는 추후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 이외에도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과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세계시장에서의 강력한 경쟁국으로의 부상 등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위험적 요소임이 틀림없다.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는 복병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한, 우리는 결코 방심하거나 대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만에 하나 소득구조와 생활수준의 왜곡, 불균형상태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기존체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극한적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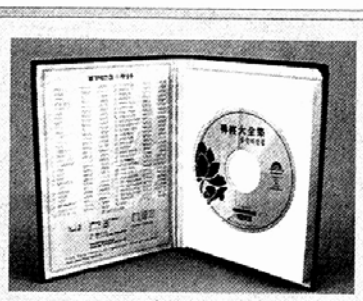
또 한편으로 우리의 국민적 정서가 IMF 2년을 거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월급으로 생활을 영위해가는 대다수 서민들의 신세는 정리해고, 월급삭감, 복리후생제도폐지 등으로 동료간의 인간관계는 급속히 파괴되고, 살아남기 위한 경쟁의식만이 팽배해진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조직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해 오로지 자신의 업적과 성과만을 부풀리고자 발버둥치는 각박한 현실속에서 인간적 삶의 질이나, 가치는 음미해보기 조차 어려운 세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같은 사회적 현상을 다독고 감싸주어야 할 정치권을 들여다보면 더욱 가관이다. 본연의 임무를 등진 채 정쟁으로 시작해서 정쟁으로 날이 저무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무어라고 설명해야 할 것인가?

10년전 귀순한 북한 유학생으로 우리사회에 비교적 적응을 잘 하여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고 있는 전철우씨의 "북한은 못살죠. 하지만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이 많아 여기처럼 각박하지 않아요. 반대로 자본주의는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는 곳입니다. 남한이 좋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인간적인 자본주의가 되길 바랍니다"라는 간절한 외침은 실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 조국은 '돌아와 살고 싶은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음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모두가 마음을 가다듬고, 다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루에 한번만 켜주시면 경내에(가정에) 온종일 부처님의 경전말씀이 은은하게 울려퍼집니다.

인켈 inkel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불경대전집CD는 인켈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데이터압축기술로 제작되어 일반 CD 30~40장 분량이 한장에 수록되므로 인켈 압축 CD플레이에서만 재생됩니다.

▶ 이 한 장에 56가지 경전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총27시간 07분)
1. 천수경(14분 05초) 2. 장엄염불(20분24초) 3. 아미타경(13분38초)
4. 화엄경 약찬게(16분 18초) 5. 반야심경(2분 49초) 6. 고왕경(5분41초)
7. 목탁성(5분 19초) 8. 법성게(2분 49초) 9. 무상게(4분 51초)
10. 관음정진(10분02초) 11. 금강경(33분15초) 12. 반회심곡(13분07초)
13. 천수경(18분24초) … 35. 우리말아미타경(27분51초)
36. 우리말 반야심경(4분00초) … 55. 회심곡(9분05초)
56. 탑돌이(8분05초)까지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가지 경전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예)반야심경 5번 천수경13번
① 번천수경부터 56. 번 탑돌이까지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켈 압축CD플레이어
GOOD DESIGN 통상산업부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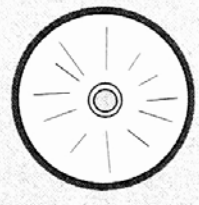


· 규격: W×D×H (26×18×65cm)
· 가격: 불경대전집 + 압축CD플레이어 = 280,000원 ※스피커는 별매입니다.

인켈에서 세계특허를 획득한 첨단오디오로 일반 CD와 FM방송도 들을 수 있습니다.

♣ 듣고싶은 경전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56가지 경전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 경내나 가정에 있는 오디오에 연결하시면 더욱 웅장한 소리로 경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

CD 한장을 비워 두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스님들의 포교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스님들의 높은 법력이 담긴 좋은 법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CD에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찰을 찾는 신도님들에게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간: 1999. 8. 16 ~ 8. 21
(기간안에 주문한 분에 한함)

구입 문의 080-900-0101 032-343-2267

■주문방법 :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 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가능)
■배달방법 :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이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입금계좌번호 : 서울은행 51304-6100001 (예금주 이희숙)

■ 보급처 : 법운 총법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32번지

부산지역 청년불심 뭉쳤다

대불청등 5개 신행단체 첫 체육대회
정례모임 결성키로…교류활성화 기대

11월 21일 부산 금정중학교 운동장에서는 뜻깊은 가을운동회가 열렸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김수현) 주최로 '청년의 힘, 한국불교의 미래'라는 부제를 내걸고 부산지역 처음으로 청년불자들의 한마당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이날 가을운동회에는 부산지역에서 활동중인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통도사부산포교원 심경청년회, 부산청년불자산악회, 보현의 집, 나텔불자회 등 5개 청년단체가 그동안 침체됐던 청년불자들의 활동을 끌어내고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부산지역의 경우 대불청 부산지구를 중심으로 활동해 오던 청년조직이 대불청과 조계종청년연합회로 분열되면서 사찰단위의 청년회가 활동해 왔지만 개별적이고 지엽적인 활동에만 그쳤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지역청년불자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잃고, 단결된 힘을 잃어버려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게 사실이다.

소원했던 단체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청년불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친목도모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운동회에서는 3백여명의 청년불자들이 축구, 탁구공 옮기기, 짝다리 릴레이, 불교상식게임 등을 통해 서로의 신심을 겨루고 화합의 정신을 되새겼다. 대불청 부산지구가 우승을 차지한 이날 운동회에서 청년불자들은 내년 봄 보다 많은 청년단체의 결속을 다지는 청년불자 운동회를 다시 열기로 결의하고, 각 사찰 청년회와 신행단체의 현안을 담아내는 노력을 통해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운동회에 참여했던 심경청년회 정연화씨는 "그동안의 청년회 활동은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구시대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이번 행사는 청년불자 스스로가 변화된 청년회를 만들어 가는 힘을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부산지역 5개 청년단체가 참가해 11월21일 실시한 가을운동회 · 청년불자들은 이를 계기로 정례모임과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 시대에 부응하는 신행 포교활동을 전개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하재훈 대불청 사무국장도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허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청년단체간의 정례화된 모임을 결성하고, 신행단체간의 유기적 관계를 주도하는 등 변화된 모습으로 새천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활동계획을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㉒



김 철 회
〈인성개발연구원장〉

단전호흡·물구나무서기 즐겨
관념퇴치법으로 삼독심 녹여

태고종 전국신도회장을 24년간 역임하며 불교 신도운동에 앞장서온 김철회(68세)한국인성개발연구원장은 산업카운셀러협회등의 강의로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을 자랑한다.

노인대학에 나가 봉사강연을 하게 되면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건강법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김원장은 독특한 자기만의 건강수행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좌선을 하면서 단전복식호흡을 하는데 3초간 숨을 들이마셨다가 1분간 멈춘뒤 7초간 내토하는데 최소한 6회 이상을 한다. 이 방법을 꾸준히 하면 소화력과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그리고 나서 물구나무를 서고 반야심경을 1분30초간 서서히 봉독한다. 물구나무 설 때는 지구를 든다는 생각으로 임해 배짱과 신념을 키운다. 또 김철회 원장은 전통택견에도 일가견이 있다. 그 때문에 대한태권도협회를 창립하는데 일조를 하여 60년대 이사를 역임했던 경력도 가지고 있다.

김원장은 그러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문제라고 밝힌다. 불제자 된 것이 요즘처럼 좋을 수 없다는 김원장은 관념퇴치법으로 탐진치 삼독으로 형성된 근심 걱정 고통 진통을 이겨낸다고 한다. 원인이 있어 결과가 나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그는 내가 만든 원인으로 걱정하는 것이 인간들이라며 스스로 문제의 근본을 찾아서 통찰하고 부처님의 정법에 따라 마음을 조절하면 자연히 해결되고 걱정이 없으면 저절로 심신이 맑아진다는 것이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라는 것도 마음에서 오는 것이므로 퇴치도 한생각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항상 마음을 편하게 가지며 즐겁게 산다.

김원장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순리대로 해결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고, 적절한 운동과 깊은 수면, 고르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비결이다"며 "후세들에게 값진 것을 남겨줄려면 모름지기 건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대상 수상작 '운주사 천불천탑의 비밀'은 천불천탑과 별자리 칠성신앙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했다.

보리방송 대상 KBS '운주사…'

불교방송부문 **김용림씨**
지역방송상 **청주BBS**
특 별 상 **이선희씨**
일반TV부문 **전주 MBC**

방송문화 진흥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제7회 보리방송문화상 대상에 KBS가 제작한 '운주사-천불천탑의 비밀'이 선정됐다. KBS 서울본사의 우종택 PD가 연출한 이 프로그램은 운주사의 천불천탑과 별자리와의 관계를 조명함과 동시에 칠성신앙과의 연계성까지 해석하는 등 흥미롭고 새로운 시각에서 제작된 역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불교방송 부문에서는 '신행365일'의 김용림씨가 진행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지역방송상에는 청주불교방송의 '우암의 풍경소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 특별상은 불교방송 이선희아나운서가 차지했다.

일반TV 부문은 전주MBC가 제작한 '미륵사'가 우수상을 수상했으나, 불교방송 부문의 연출상 수상작과 불교TV 부문은 수상작이 배출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보리방송문화상 심사위원회는 "올해 제작된 프로그램들이 다큐멘터리성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질적으로는 평년작을 넘지 못했다"고 평하고, "특히 불교계의 경우 방송사 내부사정으로 인해 양적 질적 성장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위영란 기자

대불련 인터넷방송 개국

법회 · 공연 실황 · 영상갤러리등 제공

전국 삼만여 대학생불교학생회 회원을 위한 사이버 공간이 마련됐다. 대불련 서울지부에서 11월 13일 KBUF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한 것. 대불련 서울지부 컴퓨터 소모임에서 활동중인 전영진(건국대), 정상미(국립간호대), 류현진(성신여대), 이록훈(경희대) 등 네명의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컴퓨터 실력을 총동원해 제작했다.

음악방송코너에서는 대학생법우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접수받아 최신음악을 소개하고, 영상방송코너에서는 지난 여름 실시됐던 대불련 총연합대회 축하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영상갤러리 '다시보는 여름대회'를 올려놓았다. 이밖에도 KBUF 인터넷 방송국은 앞으로 매주 중지일보코너를 통해 교계내외의 다양한 소식들은 대학생불자의 눈으로 읽어낼 계획이다.



◇kbuf 인터넷방송의 초기화면.

http://kbuf.woorizip.com

대불련 총동문 송년회
정병조박사 초청 특강

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임동주)는 10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천년을 준비하는 99년 송년법회를 연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불교연구원장 정병조박사가 '한국불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다.

또 이날 송년회에서는 2000년 특별사업 계획 발표가 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새천년 기획사업으로 2월 '포럼 파사현정' 결성과 3월 '인터넷 동방불교정보센터'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02)459-9802

도필선 기자

단 신

진선여중 김장담그기

진선여자중학교(교장 한기수)은 11월 26일 학교 가사실습장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했다.

학교 교칙을 위반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특히 이 행사에는 학생뿐 아니라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는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했으며, 김장김치는 수서지역 독거노인에게 전달됐다.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양정청소년회관이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청소년 인터넷 정보사냥 경진대회를 연다.

이번대회는 오는 17일 ~18일 예선을 거쳐 27일~28일 본선을 실시하게 된다. 참가대상은 부산시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및 단체(5명이내)로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주소는 www.sunblue.co.kr/hunter 이다.

고3생을 위한 특강법회

통도사부산포교원(주지 심산)은 10일 오후 7시 30분 수능시험을 마친 고3학생을 위한 특강법회를 마련한다. 이날 특강법회에는 한양대 불문학과 민희식교수가 '법화경과 신약성서'를 주제로 강연한다. (051)816-2241

목동청소년회관 예비대학

목동청소년회관은 7일~16일 2차례에 걸쳐 청소년 예비대학을 실시한다. 대학진학을 앞둔 청소년에게 대학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02)2646-6815

명성여고 훈훈한 경로잔치

재학생 기획
어머니회 참여
음식 · 노래 공양

명성여자고등학교(교장 이원주)는 경로효친의 전통을 계승하고, 어려운 경제현실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경로효도잔치를 11월 27일 오후 12시 학교 구내식당에서 열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경로잔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 준비해 이뤄졌다. 경로잔치 소요비용 150여만원은 지난 10월 개교 69주년 기념예술제 행사기간 동안 총학생회에서 먹거리 장터를 통해 모금했다. 또한 학생들의 뜻에 공감한 학부모 육성회와 불교어머니회인 수심회에서도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과 어머니들은 정성들여 마련한 음식을 노인들에게 대접하고, 흥겨운 오락과 노래로 한마당을 펼쳤다. 명성여고는 앞으로 매년 지역노인을 위한 경로잔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 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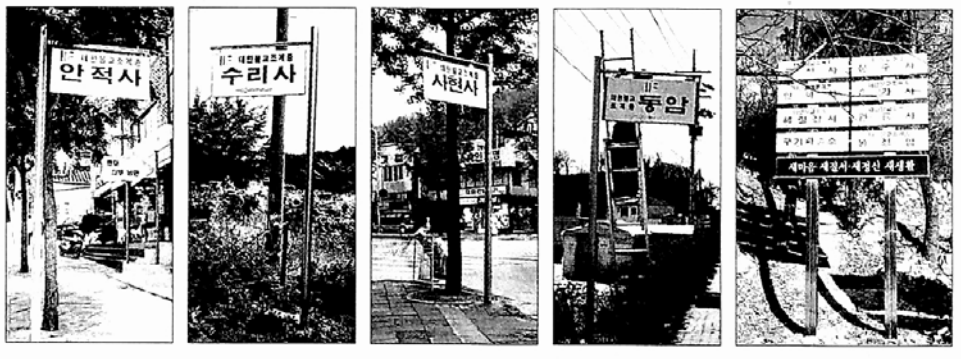
◐ 규격간판(도로지주용 간판) 허가 대행, 제작, 설치, A/S
◐ 각종 사찰 불사 및 event 대행

■사찰 이정표
- 스텐레스 재질로 반영구적인 수명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 가격 저렴
- 녹슬거나 칠이 벗겨지지 않음
- 자체 제작공장 보유 - 신속정확 시공
- 허가 대행 및 A/S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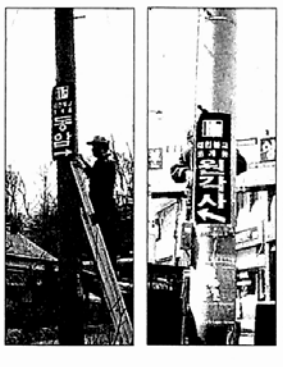
■사찰연혁판
- 스텐레스 재질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방문객에 대한 사찰연혁을 정확히 전달
■전주용 간판 ■게시판 ■현수막
■목간판 ■난간대 공사
■휀스공사(울타리공사)
■각종 event 대행
- 아크릴판, 상패, 불사, 각종행사 등

태영산업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35번지
TEL:02-433-9544 FAX:02-433-9543 H.P:019-278-1119
이 태 영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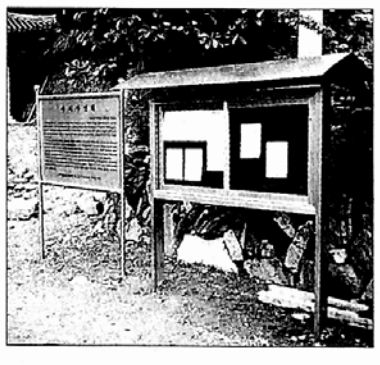
♣ 사찰이정표 건설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전주용 간판



♣ 사찰 연혁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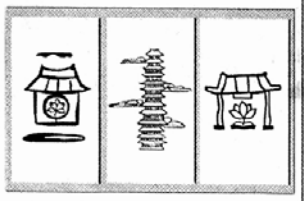


♣ 화재안전 포맥스

사찰화재 방지용 포맥스를 제작하여 본사 작업 사찰은 무료로 드립니다.
- 규격 40cm × 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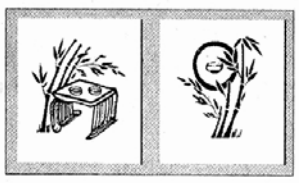
참배후 촛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

마 하 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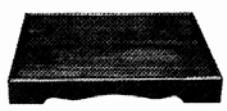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몰.부다피아>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찻 상



규격 52×32×8cm/ 재질- 소나무
가격:₩54,000

다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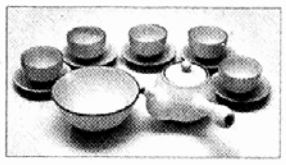
규격 50×39×15cm/ 재질- 소나무
가격:₩126,000

관음분청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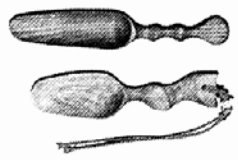
가격:₩495,000

고산다기



가격:₩120,000

차 시



재질 - 참나무 고목 등
가격:₩15,000

불성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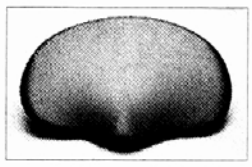
가격:우전₩90,000 / 세작 ₩50,000
중작₩30,000 / 대작₩20,000

경 상



규격 72×34×30cm / 재질 느릅원목
가격:₩85,000

참선명상방석



규격 39×43cm
가격:₩27,000

- 심용신안 1306025039
- 의장등록 412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착주보호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불자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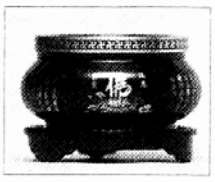
재질 금 · 루빅(15종)
※사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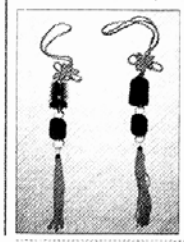
· 재질 면/ 인쇄 나염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정살
가격:₩5,000

반야심경 향로



(가정용) 규격 싸이즈(1)×7cm(지름)
가격:₩25,000

반야심경 종찬걸이



· 색상 검정 · 금색

가격:₩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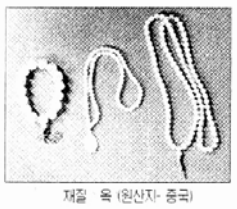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걸 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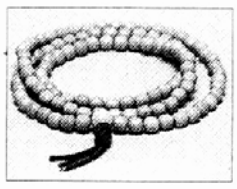
색상 검정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35,000

건강 옥 염주



정옥 · 백옥(小)
₩30,000
정옥 · 백옥(大)
₩40,000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600,000

반야심경 지통



재질 대리석 석분(돌가루)
규격(大)
높이 32cm×지름 25cm
₩220,000
규격(小)
높이 26cm×지름 20cm
₩140,000

금동미륵반가사유상



■ 코팅 · 골동품
₩350,000
■ 개금
₩580,000

관음보살감로병



가격:₩500,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올바른 쇼핑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 을 운영합니다.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각 60분
■ 가격:
각 ₩25,000

불교의식에 쓰이는 범음범패집

불교의식과 의문(儀文)은 참으로 존중하고 진지할 뿐만아니라 타에 비할 수가 없다. 오랜 역사와 함께 전해오는 범패가영(梵唄歌詠)은 우리나라 국악의 모태로서 율(律)과 여(呂), 곡(曲)과 운(韻)이 구전심수의 방법으로 전래되어 왔습니다.
불교의식은 유형은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천도재의식중 상주 권공재를 중심으로 그 진행절차를 살펴 본다.

· **시련** - 절 입구에서 영가나 부처와 보살을 맞이하는 의식을 말한다. 시련 의식의 주지(主旨)는 '옹호게(擁護偈)'를 중심으로 무사히 시련 대상을 절 안으로 모셔오게 하는데 있다.
· **대령(對靈)** - 시련 절차에 의하여 절 안으로 모셔진 부처와 보살, 천도 받을 영가에게 부처와 보살을 만나게 될 차비를 갖추도록 하는 의식이다. 대령의식은 영가 천도를 주도할 아미타불과 그 협시로서의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그리고 인로왕 보살에 대한 귀의의 마음을 일게 하는 데 그 뜻이 담겨있다.

▶ 다음호에 관욕(灌浴), 신중작법이 계속 이어집니다.

달마순금판 액자



상반신
규격 27×30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6호
가격: ₩120,000

달마순금판 액자



전신
규격 27×32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6호
가격: ₩120,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한국불교총람



4×6배판/ 1,114쪽/ 양장제본
가격:₩120,000

바위속에 숨은부처



비디오 테잎
가격: ₩13,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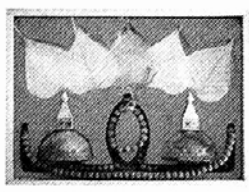
가격:₩9,500

연좌대불상 진주



규격 25×30cm 가격:₩100,000

석가모니 탄생관련 성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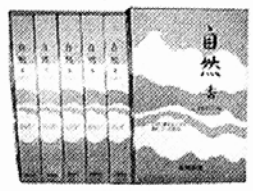
성품내용 성엽(오색잎), 성토, 성수, 성주
(인증서 첨부) 가격:₩148,000

명품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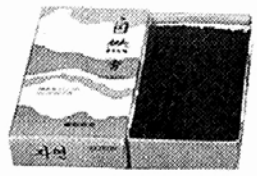
가격:₩12,000

자연향101



규격 26.5×16.5×5cm
가격: ₩10,000(개당 ₩2,000)

자연향102



규격 15.5×8.5×3cm
가격: ₩4,200

박범훈 작곡집 1(CD)



가격: ₩9,500

날개 CD



가격: ₩9,500

옥액자



(대) 17.8×22.5cm
₩15,000
(중) 37×16cm
₩10,000
(소) 7×9cm
₩3,000
· 색상
베이지, 분홍, 녹색
· 재질 옥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쑥엑기스

가격:₩55,000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오보크린

1세트 3개 ₩18,000

전자파제거장치

가격: ₩9,000(2개 한세트)

연곶양면장수

규격 25×25cm(받침대 포함)
가격:₩600,000

싸이버에밀레종

봉황청동
재질 합금
최대 30cm
종높이 15cm
종지름 11cm
가격: ₩143,000

싸이버에밀레종

팔각개금
재질 주석
종높이 17cm
종지름 12cm
가격: ₩200,000

싸이버에밀레종

사각동록
재질 합금
최대 26cm
종높이 15cm
종지름 11cm
가격: ₩143,000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밖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참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 적 원 …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풋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에밀레종

평면받침
지름 11cm
높이 18cm
가격: ₩63,000

에밀레종

사각받침
지름 15.5cm
높이 25cm
가격: ₩219,000

에밀레종

지름 11.5cm
높이 18.5cm
가격: ₩37,000

법회안내

서불칭 교리법회



보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불교청년회 기초교육원 육바라밀 등 교리법회 강좌.(02)730-9108

위빠사나 참선실수

거해스님(내원정사 주석) 6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금강정사 주부를 위한 위빠사나 참선실수법회.(02)893-2700

산스크리트어 입문강좌



문을식박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 연구위원)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20분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설 삼학원 '산스크리트어 입문(Introduction to Sanskrit)' 특별강좌.(02)765-9602

수선당 위빠사나 법회



김열권법사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7시 강남포교원 3층 수선당 위빠사나법회.(02)539-2631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12월1일 (수)

■2000년 맞이 관음성지순례=심곡암은 오전 7시 강화도 보문산 등 관음성지로 2000년 맞이 순례법회를 떠난다. (02)914-8860

■청소년 문화교실=목동청소년수련관은 31일까지 매주 수, 금요일 오후 4시 청소년을 위한 댄스교실 등 문화교실을 운영한다.(02)2646-6816

■장애인돕기 자선음악회=진각종 대구교구청은 총금강회와 금강합창단 주최로 창단 10주년 기념 장애인돕기 자선음악회를 오후 7시 대구시민회관에서, 연다.(053)255-1411

■선체조와 참선호흡=한국불교선학원 무불선원은 오후 3시 선체조와 참선호흡 강좌를 연다. 오후 7시에는 동안거 입재법회도 봉행한다. (02)541-0002

12월2일 (목)

■아미타정토대학 입학식=동산반야회 아미타정토대학 입학식이 오후 7시에 열린다.(02)732-1215

12월3일 (수)

■천태종 학생회 지도교사 합동연수=천태종은 어린이 학생회 지도교사 합동연수교육을 5일까지 총본산 구인사에서 연다.(0444)420-7267

12월 4일 (토)

■성곡사 마곡사 성지순례=불교방송은 오전 7시 충남 공주 고불산 성곡사와 태화산 마곡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조선 중기의 목조건축양식을 대표하는 보물 제 800호 마곡사 영산전을 감상한다.(02)705-5301

■서불청 99 송년정진법회=서울불교청년회는 오후 6시 30분 서울 우면산 대성사에서 99년 마지막 정진법회를 갖는다.(02)730-9108

■극단 완자무늬 원효스님 소재 '옴'=극단 완자무늬는 12일까지 동숭아트센터에서 원효스님의 생애를 연극으로 그린 '옴'을 공연한다.(02)765-5475

12월 5일 (일)

■사자산문 법흥사 참선기행=현대불교신문사는 오전 7시 구산선문의 하나인 사자산문 법흥사와 보덕사 등지로 12월 참선기행을 떠난다.(02)722-4162



◇고즈넉한 산사에서 선의 참맛을 체험해보자.

■둥지청소년의 집 방문=서울불교청년회는 대부도 자현사 둥지소년의 집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떠난다. 오전 8시 사당역에서 집결한다.(02)730-9108

■보탑사·칠장사 순례=옛돌은 오전 8시 국내유일의 목조3층 탑법당인 진천 보탑사와 임꺽정이 수도했던 곳으로 유명한 안성 칠장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02)2266-1233

■맑고향기롭게 경남모임 수련회=맑고향기롭게 경남모임은 6일까지 성주사에서 주말수련회를 갖는다.(0551)266-0170

■JTS 청소년 상담 워크샵=한국JTS는 오전 11시 정토회관에서 청소년 상담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다.(02)581-0330

■금강메아리 6주년 기념법회=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는 6주년 기념법회를 산장호수 녹색장원에서 봉행한다. 오전 9시 동대문 이스턴호텔앞에서 집결한다.(02)772-9517

12월 7일 (화)

■김룡사·대성암·화장암 순례=화요테마는 오전8시 운달산 김룡사와 부속암자인 대성암, 화장암, 금선대 등지로 순례를 떠난다. (02)514-5511

종단소식

조계종

동화사 유물관 기공

대구 동화사(주지 성덕)는 11월 25일 경내 통일대불 앞에서 유물전시관 기공식을 가졌다. 주지 성덕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총공사비 15억원을 투입하여 2000년 12월까지 지하1층 지상1층 총 676평 규모로 건립하겠다"며 "본·말사 성보문화재 590점을 전시하겠다"고 밝혔다.

통도사 화엄산림

양산 통도사는 8일부터 2000년 1월 6일까지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개최한다. 제방의 큰스님들을 초청하여 매주 일요일 열리는 화엄산림법회에는 1개월 기도정진하며 숙식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허스님은 "화엄경 한구절과 한 게송만 들어도 복과 지혜를 갖출 수 있다"며 "부처님의 정골 진신사리를 모신 통도사 화엄산림에 동참하여 다함께 성불과 이고득락하길 기원한다"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0523) 382~7182.

태고종

16일 정기중앙종회

중앙종회는 16일 오전 10시 순천 선암사 회의실에서 제10대 중앙종회 개원 및 제77회 정기중앙종회를 개최한다. 이번 종회의 안건은 △10대 의장단 및 분과위원장 선출 △1999년 세입세출 결산 △2000년 종단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종헌종법 개정 등이다.

제주불교대 1기 배출

제주종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교교양대학은 11월 30일 종무원사 3층 법당에서 제1기 기초교리과정 졸업식을 갖고 수료생 45명을 배출했다.

제주종무원은 12월 한달은 휴강한 후 내년 1월 2기 교리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진각종

진각청년의 밤

전국청년회(회장 선상신)와 역대진각청년모임(회장 강용수)은 4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장안웨딩프라자 2층 부페홀에서 제5회 진각청년의 밤 및 제23대 회향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차기회장단 선출과 제13회 올해의 주인공 시상식을 갖게된다.

법륜종

창종 11주년 기념법회

총무원(원장 법선)은 창종 11주년을 맞아 30일 오전 11시 수송동 법륜빌딩 3층 법당에서 11주년 기념법회를 갖는다. (02)733-4445

조동종

나한사 대웅전 낙성

상주 함창읍 소재 나한사(주지 혜경)는 11월 23일 종정 지명스님 등 종단 간부스님들과 신도 등 4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웅전 낙성식과 후불·지장·신중 탱화 점안과 천등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예산·직제개편 논의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1999년도 정기 종회를 6일 오전 11시 총무원 회의실에서 갖는다.

이번 종회에서는 '99 세출과 신년도 예산안, 중앙 6원장 및 집행부 인선, 직제개편, 종정추대일자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은적사 마정수기 봉행

은적사(주지 법광)는 11월 19일 경남 진주시 청소년 체육관에서 티벳 린포체 등 7명의 라마를 초청 마정수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 부원장 행원, 사무총장 법공 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신도 2백여명이 동참했다.

총화종

'여성역할' 주제 강의



총무원장 남정스님(사진)은 11월 17일 경기도 남양주시 여성종합복지회관에서 여성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천년을 맞는 여성의 역할과 자세'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한편 남정스님은 11월 11일과 20일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원사와 부산 서구 초장동 천불정사의 낙성·점안 법회에 각각 참석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 시 판

알림

▲독거노인 들니지원사업=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 지역거주 독거노인 40명을 대상으로 틀니지원 사업을 전개한다.(0546)458-0230

▲전신지압 등 운동치료실시=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신지압과 스포츠맛사지 등 운동치료를 실시한다.(02)571-2988

▲무료진료소 운영=자양사회복지관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복지관 3층에서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실직가정세대를 위한 무료진료소를 운영한다.(02)458-1664

강좌

▲금강경·아함경=능인선원은 〈금강경〉과 〈아함경〉을 공부하는 6개월과정의 경전공부반을 개설한다. 낮반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저녁반은 매주 목요일 오후7시에 실시한다.(02)577-5800

▲장애인 집단재활체조교실=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집단체조재활교실을 연다. 스트레칭, 기공체조, 명상 등을 실시한다.(0443)652-0900

▲천수경 강좌=조계사는 제2기 〈천수경〉강좌를 1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다.(02)720-1390

▲불교학개론=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지역민을 대상으로 불교학 개론 강좌를 연다.(0342)716-4215

▲원왕생교육=조계사는 1일부터 제2기 원왕생교육강좌를 연다. 법회의식과 염불봉사, 목탁 다루기 등을 지도하며 3개월 과정이다.(02)732-2183

▲주부위한 컴퓨터교실=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1일부터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7시 주부를 위한 컴퓨터교실을 연다. 한글과 인터넷사용법을 지도한다.(02)2282-1100

모집

▲법사원불교대학신입생=법사원불교대학은 200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불교과 2년과정으로 고졸이상의 학력자면 지원 가능하다.(02)499-1671

▲노인 생일잔치물품후원=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노인들의 생일잔치에 필요한 물품 및 위문품 후원을 기다린다. 후원품목은 빵, 우유, 과일, 음료수, 사탕, 과자류 등이다.(02)365-3677

▲김장후원=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밀레니엄 겨울나기 2000 사업의 하나로 김장후원자를 모집한다. 김장에 필요한 배추, 무, 양념재료 등을 후원하면 된다.(0546)458-0230

▲불교방송후원자=불교방송 후원회는 불교방송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원해 줄 후원회원을 모집한다. 지로후원과 ARS전화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02)705-5560

▲능인유치원 원장=능인선원은 능인유치원을 이끌어갈 원장을 구한다. 유치원 운영 3년이상의 유경험자여야 한다.(02)577-5800

▲노인컴퓨터교실 자원봉사자=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컴퓨터교실을 지도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관련학과 전공자 및 컴퓨터에 능숙한 사람이어야 한다.(02)571-2988

▲주간노인보호센터 이용자=연꽃마을 주간노인보호센터에서는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를 모집한다. 마포구 지역 거주 거동불편노인으로 무료진료 및 침술서비스, 이미용서비스, 간식 등을 제공한다.(02)365-3677

▲난방기기 후원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과 지역노인의 가정에 설치할 가스 및 전기난로 등 난방기기 후원자를 모집한다.(02)385-1351

▲서랍장 승차권 후원=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세대에 전달할 서랍장과 승차권 후원을 기다린다.(02)817-8052

▲레크리에이션 봉사자=능인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교실에서 노래와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해줄 봉사자를 모집한다. 주1회 2시간 봉사할수 있으면 된다. (02)571-2988

기적의 순수한방 재생 크림 탱탱크림

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더 좋은 품질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기미·주근깨로 고민하시는 분
2 얼굴의 잡티, 또는 여드름 자국으로 고민하시는 분
3 모공이 넓고, 피부가 늘어져서 고민하시는 분



⊙사용후 3~4일만에 시작되는 피부 재생과정을 거친후 20일이면 아기 속살같은 맑고 깨끗하고, 탱탱한 피부로 되살아납니다
⊙젊은 피부 밝은 얼굴 탱탱크림이 책임집니다.
※ 피부가 밝아지면 관상도 변합니다. ※
※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잡티가 많으신 분은 탱탱크림을 발라 주시고,
잔주름을 없애고 탄력과 윤기를 주실 분은
아래의 아로마 테라피 오일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신제품 아로마 테라피 오일



신제품 아로마 테라피 오일의 성분들은 3개의 피부층(각질 표피, 진피)에 영양을 주고 진정시켜 주며 탄력과 윤기를 불어넣어 잔주름을 없애 줍니다. 뿐만아니라 새로운 생성세포가 생성되도록 자극하고 염증을 제거하며 수분을 공급합니다. 무엇보다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정화작용을 통하여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가꾸어 줍니다.

천연 식물성으로만 만들어진 아로마 테라피 오일
1. 에선셜 크레이징 오일 :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퍼펙트 딥 크레징 오일
2. 에이콤플렉스 에센스 오일: 문제성 피부의 빠른 개선을 위해 처방된 고기능성 미용 농축액, 레티노이드 성분 함유
3. 진동 마사지기: 뭉쳐진 피부를 풀어주고 모공을 열어주는 역할

일주일만 바르셔도 피부에 윤기와 탄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 비젼21 ☎ 02)447-7867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가을은 깊어가고 .....
연인들의 낙엽 밟는 소리가
속삭이 듯 가만히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현대 결혼 연구원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로 사무실 증축과 내부수리
관계로 강남역 현대 골든텔
오피스텔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의 밀레니엄 새 천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여러분 사랑에
끊임없이 연구노력 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날 되시기를 바라며...
부처님 가피로 가정이 번창하시고
신심이 더욱 돈독 하시기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 골든텔(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3472-5575
핸 드 폰 : 018) 277-5592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한국신기록을 획득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용린 佛字체」 최초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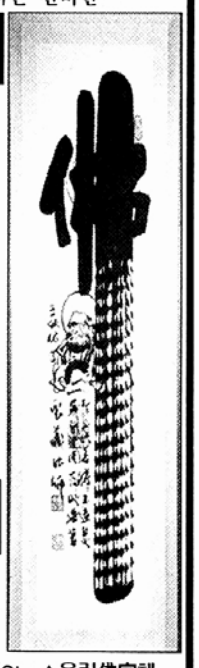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 인터넷 ◆ http://www.mahamall.co.kr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용린佛字체

■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 2242-0255
(야)(02)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사 원 모 집

당사는 레저 관광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새천년의 레저 문화를 이끌어 갈 신규프로젝트와 레저, 금융벤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괘적한 일터에서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뉴밀레니엄시대를 함께할 가족을 찾습니다.

1. 모집부문

사 업 부	초대졸이상으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
주부사원	활동능력 있으며 조직관리 요망자
텔레마케터	고졸이상 용모 단정한자 경력자 우대

2. 전형방법
가. 1차 : 본인 내사 당일 서류전형 및 면접
나. 우편 접수시 추후 통보

3. 제출서류
가. 자필이력서 (사진부착, 연락처 및 응시부문 기재) 1부

4. 제출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22-6 원림B/D 1층
위치: 3호선 양재역 1번출구 남부순환도로
(예술의 전당) 방향 500M 지점 검은색 건물
(코리아나 옥탑 광고물 옆 건물) 원림빌딩 1층

5. 제출기간
1999. 11. 30 ~ 12. 4 (5일간)

6. 공지사항
가. 남자는 공히 병역필, 면제자로서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이력서 우측 상단에 응시부문 및 전화번호 명기 바람
다. 수도권 거주자로서 출퇴근이 자유로운 자
라. 心身 있는 불자는 특채 가능

(문의처) 대표 : (02)598-8542

인사 담당자 : 본부장 이 강 찬
법명: 강주

현대훼미리그룹
(주)현대훼미리서비스 (주)현대훼미리타운 (주)현대훼미리리조트

"불교시민운동 널리 펴자"

경불련 8돌 기념 토론회서 주창

"경제윤리등 새 패러다임 필요"

"경제윤리 등 사회 전반에 새로운 윤리관을 제시하고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불교의 가르침을 일반적인 윤리로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불교시민운동이 시급하다."

11월 22일 서울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경불련, 운영위원장 김동흔) 창립 8주년을 맞아 열린 '경불련 활동과 전망'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불교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를 불교의 당면과제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등 일반 시민단체 실무자들은 불교시민운동이 풍부한 이념과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동은 구호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하고 불교인의 시민운동 참여를 당부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손혁재씨는 "개인신행 차원의 보시를 시민운동 차원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승창 경실련 운영위원장은 "보살공동체, 생태주의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은 불교시민운동단체의 임무"라고 말했다.

전재성(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씨는 "불교도의 공동체는 현대사회에 모범을 보여주는 시민사회적 공동체였다"며 불교시민운동의 경전적 근거를 제시하고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의 대안으로서 불교사상의 정립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박경준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해탈의 종교인 불교는 사회적인 괴로움의 해소에도 적절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며 불교시민운동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11월 22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불교시민운동의 전망' 토론회.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교시민대학 개설, 회원 및 자원봉사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불교시민운동의 과제로 제기됐다.

한편 조대엽(고려대 강사)씨는 최근 창간된 〈불교평론〉에 '시민정치의 확대와 불교시민운동의 전망'이란 글을 통해 "현재의 시민운동이 겪고 있는 △시민없는 시민운동의 문제 △시민운동의 이념적 지향의 부재 등을 불교시민운동이 해소할 수 있다"며 "불교 이념의 구현을 위해 불교의 사회제도화 혹은 조직화는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중국스님 13명이 한국의 전통선수행을 체험하기 위해 11월 22일 송광사 사자루에서 10일동안의 안거에 들어갔다.

中스님 한국선 배운다

13명 송광사서 열흘간 화두선 수행

한국불교의 전통선수행을 체험하기 위한 중국 스님 13명이 11월 22일 송광사 사자루에서 결제에 들어갔다. 중국스님들은 이날부터 10일동안 송광사에서 승국스님(송광사 승가대학 학감) 등으로부터 화두선을 지도받는다.

입제식에서 송광사 주지 현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 당대 이후 한국과 중국의 불교는 같은 맥을 우지해왔다"며 "양국간의 인적 교류를 통해 불교발전에 이바지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아오 지앙스님은 "선체험을 통해 한국불교를 알고 싶다"며 종단협과 송광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입제식에 앞서 중국 대표단은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을 예방하고 '불(佛)'자가 쓰인 족자를 전달했다.

중국불교는 공산화 이후 스님들의 숫자가 대폭 줄었고, 수행의 전통이 끊겼다. 이번에 온 스님들도 주요 사찰의 주지이나 대부분 30~40대 초반의 스님들이다.

정성운 기자

강진불교대학 개교

강진 백련사(주지 혜일)는 11월 14일 정업(강진사암련회장) 보안(다성사주지) 성각(보리암주지)스님과 김병완 강진불교신도회장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불교대학 개교기념및 1기 신입생 120명의 입학식을 개최했다.

1년과정의 강진불교대학은 불교학 불교사 불교문화사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졸업후 포교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사천 모충사 무료양로원 개원

독거노인등 50명 수용

경남 사천 모충사(주지 백산)는 30일 절에서 수행하며 노후를 지낼수 있는 무료양로원 삼소원을 개원했다.

지하1층 지상2층 총 건평 3백평인 삼소원(원장 임혜정)은 13개 방사와 세면실 공양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삼소원은 현재 20여명의 노인이 입주한 상태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주지 백산스님은 "20여년간 발원해온 복지불사가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후원해준 불자들의 정성을 생각하여 노인분들을 편안하게 모시겠다"며 "독거노인등 불자 노인들이 삼소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후원및 입소상담은 0593) 835~9100.

모충사는 이날 이은관(인간문화재 19호)씨와 노영희씨(KBS국악명창 대상)를 초청하여 지역노인잔치를 개최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부산 14개 복지관 연합수련

예절·직업의식등 특강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박남철)는 11월 20~21일 합지골 수련원에서 복지관 직원 연합수련회를 개최했다.

올 7월에 결성된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가 처음으로 가진 연합 행사인 이번 수련회에는 개금사회복지관, 낙동사회복지관, 몰운대사회복지관, 늘기쁜마을 등 14개 기관의 관장 및 직원 1백30여명이 동참했다. 기관별 직원 상견례, 각 법인 대표인사로 친목을 도모하고 직업에 대한 프로의식에 관한 특강과 서비스 매너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이 연수회는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개념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남철 회장은 "실무영역은 다양하지만 복지관 직원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예절과 서비스 정신에 대한 교육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싶었다"고 행사의 목적을 밝혔다.

천미희 기자

"참나가 부처임을 알자"

철웅스님 부산대불련 법회

대불련 부산동문회(회장 최상문)는 25일 통도사부산포교원 법당에서 부산지부 창립35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무한성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 엄영건 부산불교거사림회 회장을 비롯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철웅스님은 법어를 통해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자기의 실상이 부처라고 자각하는 것으로 자타일체감이 저절로 파악되면 자비와 사랑이 자연적으로 구현된다"고 말했다.

수행하는 데도 명당이란 것이 있을까? 국민의 사표가 되고 불교의 상징적인 최고지도자인 조계종 종정을 3인이나 배출한 길지가 있다. 문경시 산북면 김룡리 운달산 김룡사 명부전(冥府殿)이 바로 그곳.

이 명부전은 조계종 제5대 종정 서옹스님과 6, 7대 종정을 역임한 성철스님, 8대 종정 서암스님이 절차탁마한 유서깊은 곳이다.

확철대오 길지 '불교 명당'

20세기 불교 그 현장 그 인물 〈8〉

종정 3인 배출 김룡사 명부전

◇조계종 종정 3인(서옹·성철·서암 스님)을 배출한 불교성지 김룡사 명부전과 그에 딸린 요사채.



이 명부전은 1714년(숙종40년) 불교와 인연이 깊은 숙종임금이 임진왜란때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과 역대 왕권다툼의 과정에서 죽어간 혼령들을 천도하고자 발원해 거국적으로 절친 불사의 일환으로 건립됐다.

따라서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이 주불로 모셔져 있으며 좌우 협시보살과 동자승, 사천왕과 10대 천왕등 모두 18위의 불 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다.

김룡사 명부전은 서장대(西藏臺)라고도 하며 대웅전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동전(東殿)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본 절에서는 잘보이지 않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약 20평 남짓한 명부전 바로 옆에는 황토흙으로 지은 10평짜리 조그만 토굴이 있어 요사채로 사용돼 왔다. 그 뒤로는 소나무가 병풍처럼 펼쳐져 드리워져 있고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다.

서옹·성철·서암스님 50~60년대 주석 수행

김룡사는 풍수지리상으로 암소가 누워있는 와우형국(臥牛形局)의 명당이다. 옛날에는 우물에서 쌀뜨물이나 소젖과 같은 희뿌연 물이 샘솟았으나 일주문밖 마을에서 결혼식에 사용할 소를 잡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물이 말라버렸다고 한다. 명부전은 바로 소의 눈에 해당하는 곳이며 앞에는 구유(밥그릇)에 해당하는 언덕이 있다. 산모퉁이를 돌아가면 어른키보다 작은 약사여래불 입상과 삼층석탑이 서있는데 불상은 목동을, 석탑은 고삐를 매어두는 말뚝으로 본다는 것.

선가(禪家)에서 소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동물이다. 흔히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심우도(尋牛圖)에 비유하고 있으며 견성을 소울음소리에 빗대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곳에서 종정 3인이 배출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제일 먼저 이곳에서 정진했던 분은 스님출신 유학자 퇴경당 권상로박사. 권박사는 19세이던 1897년에 입산해 64년에 입적했으며 〈퇴경당전서〉를 남겼다. 그리고 서옹스님이 50년대에 이곳 명부전서 정진했다. 또 65년에는 성철스님이 명부전에 주석하며 어통(語通)이 열려 66년에 '불시심 불시불 불시물 시심마(不是心 不是佛 不是物 是甚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며 물건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화두로 최초의 대중법문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서암스님은 김룡사가 출가본사이자 경흥강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곳에서 용맹정진했다.

김룡사 주지 자광스님은 "성철스님은 이곳 극락전에 능엄경 사구게가 적힌 주련을 걸어놓고 가행정진하기도 했다"며 "능엄주를 외우게 하고 3천배 수행을 강조한 것도 이곳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봄부터 명부전 요사채에 머물고있는 조계종 종회의원 종림스님은 "이곳에서는 잠이 깊이 들지 않는다"며 새벽 3시30분만 되면 정확하게 저절로 잠이 깬다고 한다.

김룡사는 신라 진평왕10년(588년) 운달조사가 창건한 고찰로 일제때만 해도 50여개의 말거느린 전국31교구 본산가운데 하나였다. 중창불사중인 김룡사 경흥강원은 3백명을 동시에 수용할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온돌방으로 유명하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부산 용호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50명 배출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총)은 19일 제3기 자원봉사과정 양성교육 수료식을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행했다. 15일부터 3일간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54명은 이날 수료장을 받고 앞으로 가정봉사원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펼치게 되었다. 천미희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회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2000년 불교달력은 감로카렌다가 1 등 입니다

동자승의 세계 — 크기:大·小
적멸보궁과 기도도량 — 크기:大·小
대 불(大佛) — 크기:大·小
산사의 향기 — 크기:大·小
한국의 명찰 — 크기:大·小
한국의 석불 — 크기:大·小
살아있는 달마 — 크기:小
북한의 사찰 — 크기:小
불교전통문살의 미 — 크기:小
금강산의 사계 — 크기:小
나한도 — 크기:小
차량용 미니 달력 — 크기:(11×18cm)

〈사진:안장헌〉
대불, 산사의 향기, 한국의 석불, 적멸보궁과 기도도량, 한국의 명찰, 불교전통문살의 美는 한국불교사진 예술의 독보적인 안장헌교수의 작품이다. 안교수는 월간 영상편집장을 지낸바 있으며, 20여년간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사진에 담아왔다. 석불, 국립공원, 석굴암, 영검의 미소, 선의 세계 등의 사진작품집이 있으며, 현 한국사진작가 협의회원 및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자문으로 있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 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4년 달력을 주문 받고 있습니다.

■크 기:大(30×31cm) 국6절
　　小(26×26.5cm) 사륙12절
■매 수:표지포함 13매
■특수고급 제본(TW스프링)
■주문부수:100부이상(차량용 미니 달력 200부이상)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전화:(02)723-4306 · 4307 · 4309 팩스:(02)738-8682
전국 유명불교용품점에 있습니다.

시민수행처 '봉은선원' 개원

봉은사에…입회자격 · 묵언 · 포행등 엄격

11월24일 오후 서울 봉은사 봉은선원. 25평 규모의 공간에서 40명 남짓한 불자들이 좌선삼매에 빠져있다. 일체 묵언.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사이로 가느다란 숨소리가 이따금 새어나올 뿐이다. 인적 끊긴 겨울산사의 느낌. 하지만 선방 안은 참선열기로 가득하다.

도심속에 불자들을 위한 수행공간이 마련돼 화제다. 봉은사(주지 원혜)는 11월22일 주지 원혜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은선원 개원식을 가졌다. 봉은사는 90년 이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재가자들을 위한 선원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청규를 갖춘 공식 선원을 마련하게 됐다.

봉은사의 이번 선원 개원은 우선 조선시대 선종의 으뜸 수행도량으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되살리고 봉은사 고승들의 청정참선 기도정신을 올바로 계승하는 디딤돌을 놓게 됐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또한 선원을 기반으로 한 각종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행도량으로서의 이미지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강남지역에는 없었던 시민선방이 생겨남으로써 이 지역 선수행 포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봉은선원은 다른 시민선방들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봉은선원에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 신분에 관계없이 입회할 수 있다. 하지만 자격요건은 다소 까다롭다. 수행분위기 유지를 위해 다른 선방에서의 수행경험이나 3박4일 이상의 사찰 수련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되지만 출입은 매시 정시에만 허용되며, 입방한 후에는 묵언을 해야 한다. 방선(放禪 · 좌선수행을 쉬는 것)시간에는 대중과 같이 포행을 돌아야 하는 것도 독특하다. 사찰측에서 점심을 제공하지만 반드시 발우공양을 하도록 정해놓았다.

봉은선원에는 현재 40명의 불자들이 입회돼 있다. 그러나 개원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입회 신청자가 80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봉은사는 모든 불자들에게 고루 기회를 주고 선수행을 보급하기 위해 3개월마다 인원을 교체할 계획이다. 또 넘쳐나는 인원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저녁 7~10시 사이에는 직장인만을 위한 시간별 입소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는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의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며, 내년 1월부터는 1개월과정의 수행 프로그램등 다양한 선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02)516-5652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봉은선원은 다양한 수행프로그램으로 강남 지역 선수행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사진은 11월22일 개원식 장면.

조계종 포교대상에 도영스님

공로상에 백남석씨



◇도영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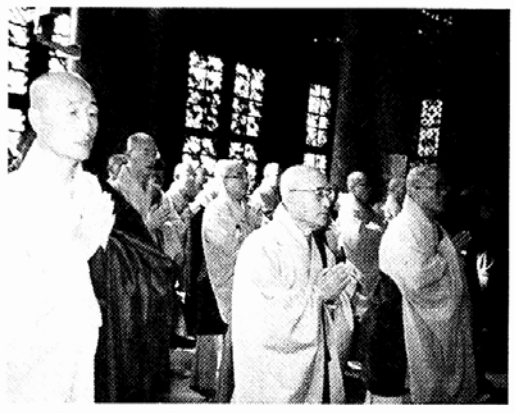
◇백남석법사

김제 금산사 주지 도영스님이 조계종 제11회 포교대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11월 23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포교대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종정상'인 대상에 낙후된 전북지역 불교발전과 군포교 · 복지사업에 헌신해 온 도영스님을 선정했다. 총무원장상인 공로상에는 1989년부터 육군훈련소 법회 활동 지원 및 법당 건립에 공헌한 불교어머니회와 대불련 및 사찰청년회 지도법사로서 어린이, 청소년 및 재소자 포교에 전념한 포교사단 백남석 포교사가 각각 선정됐다.

포교원장상인 원력상에는 국제포교사회 양장운 회장(국제포교), 전국운전자불자회 박영조 회장(일반포교), 한전불자회 이순형씨(직장포교), 불자가수 김태곤씨(예술문화포교),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청주지부 최시선 지도교사(청소년포교), 부산 · 경남지역 어린이포교회 김광호 분과장(어린이포교), 한성대 이기향 교수(문화예술포교) 등이 각각 선정됐다.

포교원은 4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시상식을 거행한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사진 가운데)의 간소한 취임식은 조계종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의미있는 행사로 관심을 끌었다.

정대스님 간소한 취임식

고불식으로 대신

조계종 새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격식 깨뜨리기로 업무를 시작했다.

11월23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 총무원장 정대스님, 교육원장 일면스님, 포교원장 정련스님을 비롯해 종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30대 총무원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꽃다발도 축하 손님도 없었다. 고불식으로 대신한 취임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소한 취임식은 "연초에 고산스님 취임식이 있었는데, 1년에 두 번이나 취임식을 치를 수 없다"는 정대스님의 뜻에 따른 것 가뜩이나 어려운 종단살림에 주름살을 지게 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취임식을 치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의자 대여비와 거마비 식대 등 2천5백여만원. 총무원은 취임식 비용에 상당하는 돈을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위문 비용으로 보탤 예정이다.

기도하러 나온 신도 50여명은 이날의 행사가 끝나기까지 내내 합장하며 조계종의 새로운 모습을 지켜봤다. 정성운 기자

사랑과 참회의 편지쓰기 운동

전불련, 1일부터 108일간

'사랑과 참회의 편지를 씁시다'. 전국불교운동연합회(의장 배영진)는 12월1일부터 3월 17일까지 108일간 새천년 해맞이 행사로 사랑과 참회의 편지쓰기 운동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21세기를 앞둔 마당에서 개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개인과 사회적 인간관계에 대한 '참회문'을 통해 자신과 세상의 변화를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린다. 이를 위해 전불련은 사회지도층 인사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스님과 불교계 단체 대표자들에게 공문 또는 면담을 통해 편지쓰기를 요청할 방침이다.

1천통을 목표로 하는 참회편지는 국내의 정치인 공직자 장애인 고문가해자 북녘동포 군인과 해외의 정치권력자 군부 피해가족 등 개인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을 망라하여 편지를 보낼 수 있다.

전불련은 1차로 31일 보신각 제야의 종소리 행사시 자체행사로 '낭독행사와 홍보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행사가 끝난 뒤 편지모음집인 참회록을 발간할 계획이다. 참가는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1872호〉로 보내면 된다. 김원우 기자

"종단분규로 포교당운영 위축"

사설 사암 · 포교당 대표자회 토론회서 지적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종단분규로 포교당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종단의 지원은 커녕 행정서비스 제약만 있을 뿐이다"

전국 사설사암 및 포교당대표자회(준비실무 선일)는 11월19일 30여명의 스님과 3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대중토론회를 열고 내년초 각 지역 대표자를 선임한 뒤 전국적인 공식단체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대중토론회에서 참가스님들은 물질문명에 기반을 둔 승가의 전도된 가치관이야말로 무명의 성난 파도임을 직시하고 초기불교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가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로 했다. 이어 포교당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포교당의 금융지원책과 각종 포교정보등 포교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들 스님들은 교구본사에 대한 견제세력이 없을 만큼 권력화돼 있다며 획기적인 공개재정관리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선거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우 기자

"대통령부인 선교활동 안된다"

전국신도회 성명

조계종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는 11월25일 '영부인의 선교활동은 안된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공인이나 공공기관이 특정종교를 편애하는 행위는 종교간의 위화감을 줄뿐만 아니라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야기시킨다"면서 "대통령 부인은 기독교 공식행사에 간증 등 선교활동에 신중해야 하며, 아울러 불교 자선행사에도 동참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신도회는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 대통령 부인의 편파적인 선교활동이 계속될 경우 청와대의 종교적 편향에 대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초청법회 빙자 사기 조심하세요"

큰스님 초청법회를 빙자한 고가염주 판매등 사기극이 형태를 달리해 발생하고 있어 불자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1월24일 서울 정동문화회관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걸쳐 '법용스님 초청 대법회'가 열렸다. 이날 법회에서 경북 영주 풍기읍 조계종 신덕사 주지라고 밝힌 법용스님은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에게 만다라 자기그릇를 제공하며, 최근 영주에 완공한 노인복지원 후원 명목으로 한달에 3만원씩 7달간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입금하는 후원회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영주시와 풍기읍에 확인한 결과 신덕사라는 사찰은 등록된 바도 없으며, 노인복지원을 지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덕사 사무장이라는 사람조차도 노인복지원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그런 건물은 건립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례는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어 종단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한명우 기자

뉴스 & 뉴스

"사미니강원 전형 통일"

사미니 승가대학의 입학 전형이 통일되고 학인 모집정원도 30명 이상 늘어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11월24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사미니 승가대학장 회의를 열고, 삼선승가대학을 제외한 동학사 · 봉녕사 운문사 청암사 승가대학의 입학 전형일을 음력 12월 10일(2000년 1월16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사미니 승가대학의 수용시설의 한계로 매년 60명 이상이 강원에 입학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최대한 모집정원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김재경 기자

총화종 내년예산 96억원

총화종은 11월 24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44차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2000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 96억원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종회에서는 △종단 원찰 건립 △총화종 청사 대표자 명의를 현 총무원장으로 변경 △청소년 수련대회 △수진사내 '사회복지문화회관' 건립 등과 종단원찰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ARS 개설(전화 700-1108)을 의결했다.

이경숙 기자

법타스님등 4명 방북

평화통일불교인협회 공동회장 법타스님(대구불교방송 사장)과 정인악이사장(남양 대표이사) 신광식(방송진흥원 상임이사, 불교언론인회 회장) 김도현(생협중앙회회장)이사가 7일부터 14일까지 방북한다. 이에 앞서 법타스님은 11월26일 예비접촉을 위해 북경에 도착했다.

조선불교도연맹 초청으로 이뤄진 평불협 방북 대표단은 북 동포를 위해 모집한 옷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남북불교교류와 관련 다양한 논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방북일정은 평불협지원으로 사리원에 세워진 금강국수공장을 답사하고 광법사 보현사 용화사 등 유명사찰을 참배하고 신계사 등 고찰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위영란 기자

11일 종교언론인 심포지엄

종교신문언론인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주관하는 제3회 종교언론인 심포지엄이 11일 오후 3시 서울 우이동 원불교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21세기 종교와 종교언론…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이주표 목사가 기조강연에 나서며, 각 종교 대표가 주제발표를 한다. 불교계에서는 법보신문 이학종 부장이 '불교와 언론'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심포지엄에 앞서 종교신문언론인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회장 및 임원진을 선출한다. (02)736-2250

도필선 기자

깨침의 상식화 생활화

「하나한」



진정한 새천년 비전!
궁극과 현실을 동시에!

기존심성, 영성, 의식개발 프로그램 종합판 아닌 결정판
삶의 지상 과제인 有와 無 동그라미 길 드디어 개통
기독인 중생, 불독인 애칠, 그외분 여의주 모두 함박웃음

5박 6일만에
존재의 꽃을! 진진한 게임과 놀이로!

1부 : 자아 감옥 벗고 지금여기 무한이기
2부 : 대상과 하나되어 모두가 전체이기
3부 : 현상 속 근원으로 삶을 안무하기

- 열시구 拜上 -

■일 시: 새해 1월부터 매 셋째주 월 15:00 ~ 토 11:00
('99.12월 셋째주 도움반 1/3액 실시)
■장 소: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17-1
전화 0337-885-1011/ 팩스 885-1022/ H.P 016-206-1001
■참가비: 99(求救)만원
(33만원선입금:나머지등록시 또는 매월 만원 회비 자동이체서)

'99.12(8日,15日)19:00-22:00 정신세계원(02-747-7033) 질의응답실습(만원)

회당학회 재창립에 따른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당학회는 회당사상과 불교 및 밀교의 교리수행 · 의식 · 체계에 대해 조사, 연구,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에 창립되었으나, 활발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학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잠시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회당학회**를 대한불교 진각종단이 관리하는 학술신행단체로 면모를 일신하여, 불교학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포함한 폭넓은 계층을 수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회원을 모집합니다.

다 음

모집기간
진기 53년 12월 11일(토)까지 ~ 1차 모집

모집대상
제한 없음

접수방법
학회 입회원서 1부 작성
(연회비 및 기타사항은 추후 통보함)

접수 및 문의처
136-132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 2동 22
대한불교 진각종 교육원내 회당학회
전화 02)913-0133,0134 / 팩스 02)913-0135

제1회 육신보살 지장법사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지장사상의 전개와 지장 법사 그의 위대한 생애

신라의 왕손이면서 고향 땅에서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장법사(694-794) 김교각! 24살 때 불법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안휘성 청양현 구화산에서 75년 동안 수도 정진, 구화산을 지장보살의 성지로 만들고 입적 후 3년만에 지장왕보살로 환생하여 현재에 와서도 추앙받고 있다.

이에 불교춘추사에서는 한국차문화협회의 후원을 받아 구화산 불교협회 및 영명사와 공동으로 교각 스님의 행적과 업적을 더듬어 보고, 각국에서 지장신앙이 어떤 형태로 전개되어왔는지를 살피는 제1회 지장법사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교각 스님이라는 승명을 지장 스님으로 통일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며 한 · 중 · 일의 지장신앙의 흐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일시 : 1999년 12월 12일
오전 9:00 ~ 오후 5시
◆장소 :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
◆주최 : 대한불교 조계종 영명사
Tel. (0546)482-1390
◆주관 : 불교춘추사
Tel. (02)733-8076, 8078
◆후원 : 한국차문화협회
지장보살 김교각 기념관
구화산불교협회
불교방송

내 용

기념강연
김지장의 생애 / 인덕(구화산 기원사 방장)
주제발표
지장 법사의 사상 / 오형근(동국대 교수)
동아시아의 지장사상과 신라왕자 김지장 / 여성구(국민대 강사)
중국 불교에 미친 지장의 영향 / 사주전(안경사범대 교수)
중국 불교사에서 김지장의 위치 / 이희재(광주대 교수)
김지장의 차연구 / 왕진항(안휘농업대학)
김지장 도상의 연원과 전개 / 김정희(원광대 교수)
한국지장 신앙의 특징 / 조용헌(원광대 강사)
11세기 김지장석상에 대하여 / 조영록(동국대 교수)
중국 구화산의 지장 법사와 석대임 이순석의 비교 연구 / 최석환(불교춘추발행인)
당대(唐代) 구화산시와 김지장 / 오윤숙(성균관대 강사)
지장의 시문학 / 지준모(시인)
김지장의 차(茶)관련 기록연구 / 이형석(한국차문화협회 이사)
김지장 스님께 올리는 헌공 다례 (한국차문화협회)

주부신행담 시련을 넘어서 ㊤

고난속 방송대 합격…내 삶의 유일한 돌파구였다



그림 · 문병성

97년 11월28일. 겨울의 문턱에 성큼 다가선 어느날 여동생이 결혼 6년만에 첫아이를 낳았다.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건강하고 예쁜 아이였다. 외아들에게 시집간 여동생은 결혼하고도 4년여 동안 태기가 없어 여간 걱정이 아니었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부처님과의 인연 덕분이라 믿는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늘상 절에 가 불공을 드리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동생은 3년 전부터 절에서 불공을 드렸다. 지극한 기도 덕분인지 태기가 있어 지금의 조카를 보게 됐는데 10여 년이 지나도 아이를 얻지 못해 실의에 빠지고 심지어는 이혼하는 부부들을 생각하면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2년 전의 일이다. 1979년 부처님오신날 우리 가족은 동두천 선양사에서 오랫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오랫동안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셋방에서 죽게 할 수 없다며 술장사도 마다하지 않았던 엄마. 엄마는 쑥대밭이 된 집안을 일으키겠다며 이사를 하셨다. 이사 간 앞집에는 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우리 집안 사정을 들으시고는 의외의 제안을 하셨다.

"애기아빠 약 먹어서 나을 병 같지 않은데, 내가 다니는 절에 한번 가 볼라우."

어머니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 길로 어머니, 아버지는 절에 가 스님을 뵙고 스님이 주시는 차를 드셨다고 한다. 그 차를 꾸준히 복용한 덕분인지, 아니면 스님이 주시는 차니까 나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마신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병은 차차 좋아지셨다. 우리가족 모두는 모든게 부처님의 영험이라 믿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는 말도 있듯 어머니는 부처님께서 아버지 병을 낫게 해 주셨다며 열심히 절에 다니셨다.

그런데 부처님 오신날이 지난 지 꼭 20일 되던 날 청천벽력같은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가 돌아 가셨다. 갑자기 쓰러진 후 5시간만에 어머니는 35세라는 나이로 '신경성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생을 마감하셨다. 내 나이 17살, 막내가 6살이었다.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부처님이 원망스러웠다.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돌아 가셨다고 생각했다. 그 후 나는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만 절에 가고 일체 가지 않았다. 원망이 증오로까지 이어졌던 것 같다.

새 어머니가 들어오자 집은 안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뻥뚫린 엄마의 자리를 새어머니가 대신 채울 수는 없었다. 그 때의 현실이란 정말 끔찍했다는 기억밖에 남은게 없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살면서 많이 변했고, 나역시 동생들 때문에 순종적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게 사는 동안 내 인생은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다.

결국 견디다 못한 나는 중학교를 3번이나 옮긴 끝에 겨우 졸업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는 그나마 마치지도 못했다. 검정고시를 봐서 합격하면서 겪은 나의 삶은 동생들과 살아야만 한다는 처절한 현실뿐이었다. 날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원망하고 어깨에 지어진 짐을 힘들어했다.

87년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과에 합격. 어렵게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그게 내 삶의 유일한 돌파구라 생각했다. 학교에서 만난 진이라는 친구로 인해 절에도 다시 나가게 되었다. 예전의 구복적 신앙이 아니라 정법을 알고자 노력했다. 조계사법회, 구룡사법회, 화계사법회 등 시간만 되면 틈틈히 서울의 여기저기 큰 사찰을 찾아다녔고, 도선사청년법회에 나가 불교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불교세계를 알게 되었다. 찬불가를 부르면서 가슴벅찬 눈물을 여러번 흘렸다.

공부도 국문학이 불교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의렴 못한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재미를 더했다. 그러나 학비 4만~5만원이 없어서 등록 때마다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집에서는 시집이나 가지 무슨 공부냐며 도움은 커녕 인정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럴때면 6.25에 조실부모해 힘들게 살면서도 우리 4남매만큼은 끔찍하게 여기셨던 어머니 생각이 더욱 뼈에 사무쳤다. 시련의 시간들이었다.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겨우 7년만에 졸업을 했다.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학사모를 쓴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후배의 권유로 보험회사에 입사했다. 다행히도 글을 쓸 수 있는 보직을 맡아 하면서 4년동안 보험설계사 일을 했다.

94년 신입사원으로 들어 온 형준이 엄마를 만나면서 직장생활하느라 잠시 잊고 있었던 불교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그해 7월에는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11월에 가정도 꾸렸다.

시집이라고 간 곳은 보잘 것이 없었다. 그 당시 칠순 중반에 계셨던 시어머니는 답십리 다 쓰러져 가는 150만원 짜리 전세집에서 수도도 없고, 개인 화장실도 없이 공공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셨다. 서울에 이런 곳이 또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잘 살아 보겠다는 오기가 생겼다.

남편이 회사에서 돈을 벌어오면 그때 있던 돈과 보태서 방을 얻기로 하고 우선 남편과의 달콤한 신혼도 포기하고 시어머니랑 한 방에서 살았다. 그런데 남편은 12월 말일이 되었는데도 월급을 가져다 주지 않더니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이었다. 결혼한지 겨우 한달 지났는데 이제와서 무슨 소린지, 영문을 모를 일이었다.

김형진(서울시 서대문구 녹번동)

마하몰 … 추천 상품 특선

02)732-1522(직)
02)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수암 만다라 옥침



수암만다라옥침은 두개의 회전구 표면에 각기 약 300여개의 뾰족한 옥침과 내부에 강력한 영구자석과 천연옥을 합성시켜 원적외선과 자기력을 발산하도록 만들어 졌다. 수암만다라옥침으로 손바닥의 경혈을 자극함으로 효과는 수지침과 동일하며 옥과 자력의 상승작용으로 그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가 격 : 30,000원
■재 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웨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영남범음범패집 1 재대령(비디오)
영남범음범패집 2 관욕



이 비디오는 인간문화재 이장(梨丈) 문구암(文九菴) 스님의 영남범음범패집의 소리와 그 의문집으로 출판된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을 한데묶은 것이다. 영남범음범패집의 방대한 소리들 중 일차로 천도재(薦度齋)에 널리 쓰이는 대령, 관욕 부분을 먼저 제작하였다.

■가 격 : 각 25000원

바른자세 건강방석 참선명상방석



바른 자세가 건강한 정신과 편안한 마음을 만듭니다.
현대인들의 척추보호 및 교정을 위하여, 오랜시간 참선이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혁신적인 발명품.
이젠 바르게 허리펴고 건강하게 생활하십시오.

사이즈 - 가로 43 cm X 세로39cm
실용신안 특허 공개 실 19998-025009
의장등록 출원 제 14387호

■가 격 : 27,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발우



여기 이 '황토 질그릇 발우'는 순수한 황토와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이 아닌 낙엽 태운 천연유약과 1300도 불의 조화로 형성된 투박하고 자연적인 옹기로써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본 제품은 혜인사 율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와발우(瓦鉢盂)이다.

■가격 4합 : 6만원 - 무게 2.7kg
2합 : 3만원 - 무게 1kg

옥 베 개



인생의 1/3은 수면시간_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동의보감 신침(神枕) 비방 한방 베개란? 東醫寶鑑 神枕法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황제에게만 비밀 전승되어 온 신침은 여러 가지 한방 생약을 잘 나누어 함께 넣은 베개로서 "100일을 베면 얼굴에 광택이 나고 1년이면 체내에 모든 병이 개선되어 몸에서 향기가 나며, 백발이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나며 이목(耳目)이 청명해진다." 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가격 : 1개 30,000
(한세트 56,000)

창혜거사 달마도 병풍(양면)



- 크기 : 가로 360 cm X 세로 182 cm (8폭)
- 재질 : 고급 비단 표구(양면)
- 덤뚝 : 반야심경

■가격 : 980,000원

달마도의 신비한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창혜거사 화백이 직접그린 작품을 재료비에 지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보내드리니 불자님들과 스님 께서는 좋은 포교방편의 선물용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불사에 관련해 문의 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보광사 불상 · 닫집

부처님을 향한 마음
대·한·불·교·예·술·원

오랜 전통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작품만을 고집해온
대한불교예술원이 불교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서울 석림사 목탱화 법당

佛事 시공 전문업체
- 조각부 - 불상, 사천왕, 산신상, 목탱화
- 목공부 - 수미단, 닫집, 경탁 외
- 건축부 - 전통 건축, 현대식 건축 (초절악형) 임시법당
- 석공부 - 불상, 석등, 부도, 탑
- 화공부 - 단청, 탱화, 담채

대한불교예술원 대표 한성용 합장

공장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무봉리 545-5
TEL : 02)930-1681, 0357)542-1681FAX : 0357)543-3296 H.P : 011)336-5200

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수성동 원당빌딩 201호
TEL : 02)736-9948